

**연구보고 228** / 1990. 12.

#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이 영 대**(책임연구원)  
**정 명 채**(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 머 리 말

최근 UR 협상이 우리 농업현실을 외면한 채 선진농업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는 어려움이 가중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의 국토관리적 기능과 농업종사자의 생활안정적 기능을 감안할 때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이 발전지향적 산업으로 존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을 담당할 우수 농업취업 인력자원의 확보와 육성이 선결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장차 우리 나라 농업을 이끌고 나갈 유능하고 영농의욕이 충만한 정예 농업인력을 확보, 교육, 정착시키는 일련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업인력의 구체적 육성방법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준 농림수산부 관계 담당자, 후계 농업인력 양성업무와 추진 과정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 준 교육부와 농촌진흥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1990. 12.

院長 許信行

빈

면

# 目 次

## 第 1 章 序 論

1.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第 2 章 農業人力의 減少와 그 영향

1. 농업인력의 양적 감소 .....	7
2. 농업인력의 질적 감소 .....	14
3. 농업인력 감소로 인한 문제점 .....	19
4. 농업인력 확보와 육성의 필요성 .....	42

## 第 3 章 農業人力 確保方案

1. 농업인력 확보 기본방향 .....	48
2. 농가 단위에서 후계인력 확보방안 .....	54
3. 정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	67

## 第 4 章 農業人力 育成方案

1. 정예 농업인력 영농정착 지원방안 .....	133
2. 기존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 .....	147

## 第 5 章 要약 및 정책건의

1. 요약 .....	155
2. 정책 건의 .....	160

## 표 목 차

### 제 1 장

표 1-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표 1-2 응답자의 일반 현황 .....	6

### 제 2 장

표 2- 1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	8
표 2- 2 직종별 취업자 구조 전망, 1990~2000 .....	9
표 2- 3 농업기계 보급률 변화의 국제간 비교 .....	11
표 2- 4 농촌 임료금 지수의 변화 .....	12
표 2- 5 경지이용 현황 .....	13
표 2- 6 연령계층별 총이농량 추이 .....	14
표 2- 7 연령별 도시이주 의사 .....	15
표 2- 8 시·군부 거주자 및 이농자의 학력비교(6세 이상) .....	16
표 2- 9 농림어업 취업자의 교육수준 변화 .....	17
표 2-10 직종별 교육정도, 1989 .....	18
표 2-11 농업경영주의 학력변화 1970~85 .....	19
표 2-12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	20
표 2-13 60세 이상 농가인구의 취업별 상태, 1980 .....	21
표 2-14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	22
표 2-15 각급학교 졸업자의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의 변화 .....	24

표 2-16 각급학교 졸업자의 신규농림어업 취업자수 .....	25
표 2-17 연령별 농기계 보유현황(호당) .....	26
표 2-18 연령별 농지보유 현황 .....	28
표 2-19 농가·비농가별,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30
표 2-20 직업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	30
표 2-21 농가의 노동 투하시간의 비율 변화 .....	31
표 2-22 농가노동투하량, 1989 .....	31
표 2-23 경지규모별 여성의 농가노동 투하, 1989 .....	32
표 2-24 농작업 종류별 성별 노동분담 .....	32
표 2-25 농가주부 노동실태 .....	33
표 2-26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직업만족 정도, 1989 .....	35
표 2-27 연령별 농민의 농업만족 정도 .....	36
표 2-28 연령별 농업의 국가근본 여부에 대한 의견 .....	36
표 2-29 연령별 농업의 경제발전 기여 정도에 대한 의견 .....	37
표 2-30 응답자가 보는 농민계층의 사회적 지위 .....	38
표 2-31 연령별 농민의 영농의욕 정도에 대한 의견 .....	38
표 2-32 연령별 농민의 앞으로의 계획 .....	39
표 2-33 연령별 다시 농사를 짓겠는지 여부 .....	39
표 2-34 후계자가 없는 이유 .....	41
표 2-35 농가의 영농후계자 확보 정도 .....	42
표 2-36 연령별 후계자 존재여부 .....	42
표 2-37 농림어업 취업자 조정 필요규모 .....	44
 제 3 장	
표 3- 1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방법 .....	50
표 3- 2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	51

표 3- 3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의 역할 .....	51
표 3- 4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농가부모의 역할 .....	52
표 3- 5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젊은이의 역할 .....	52
표 3- 6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기타 관련자의 역할 .....	53
표 3- 7 연령별 부모의 직업 .....	55
표 3- 8 연령별 부모의 생활수준 .....	56
표 3- 9 연령별 형제관계 .....	56
표 3-10 농민의 영농정착 계기 .....	57
표 3-11 영농정착 이유 .....	58
표 3-12 농민의 자녀중 농업비종사 이유 .....	59
표 3-13 자녀에게 희망하는 직업의 변화, 1958~84 .....	60
표 3-14 자녀의 영농정착 전제조건 .....	62
표 3-15 농업의 조건에 대한 의견 .....	63
표 3-16 영농인이 되는 조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64
표 3-17 농어민후계자의 영농정착 동기 .....	65
표 3-18 연령별 영농정착 방법 .....	66
표 3-19 청년영농인의 기술습득 방법 .....	67
표 3-20 농업계 각급학교 졸업자의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	68
표 3-21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 중 농수산계학교 졸업자 .....	69
표 3-22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 중 농수산계학교 졸업자의 비율 .....	70

표 3-23 농림어업 취업자중 농수산계학교 졸업자의 비율, 1980 .....	71
표 3-24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이 취종학력인자의 농림어업 취업 정도, 1980 .....	71
표 3-25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자의 직종별 취업률, 1980 .....	72
표 3-26 농업계 고등학교학생의 영농정착에 대한 의견 .....	73
표 3-27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변화 .....	74
표 3-28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	74
표 3-29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진로 상황, 1990 .....	75
표 3-30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	76
표 3-31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자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	76
표 3-32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경로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	77
표 3-33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내역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	77
표 3-34 농업계 고등학교,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의 변화 .....	79
표 3-35 농업계 고등학교 총괄, 1990 .....	80
표 3-36 농업계 고교의 문제에 대한 농민의 의견 .....	81
표 3-37 취농증대에 방해가 되는 농고교육의 문제점 .....	82
표 3-38 농업계 고교의 학과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 1990 .....	83
표 3-39 남녀별 농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1990 .....	84
표 3-40 농업계 고교 학과별 입학상황, 1990 .....	85

표 3-41 농림계 고교 입학지원 실태 .....	86
표 3-42 실업계 고교 계열별 지원율의 변화 .....	86
표 3-43 농업계 고교 입학동기 .....	87
표 3-44 농업계 고교 입학생의 중학교 석차상황 .....	88
표 3-45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농고재학에 대한 태도 .....	88
표 3-46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영농작업에 대한 태도 .....	89
표 3-47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영농기반의 정도 .....	89
표 3-48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영농기술 정도 .....	90
표 3-49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학력수준 .....	91
표 3-50 실업계 고교 재학생의 계열별 중도탈락률 .....	91
표 3-51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판단 .....	92
표 3-52 농업계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농업교사의 의견 .....	93
표 3-53 농업교육을 위한 실습시설 규모의 적정성 .....	94
표 3-54 학교농장의 목적별 이용상황 .....	95
표 3-55 농업교사의 근무환경 .....	95
표 3-56 지역별 농업계 고교 현황, 1990 .....	96
표 3-57 각도별 농업계 고교 설치여부별 군, 1990 .....	96
표 3-58 농고가 없는 군, 1990 .....	98
표 3-59 연령별 자녀에게 농고교육 이수 의사 .....	98
표 3-60 농업계 고교 육성 관련 주요시책의 변화 과정 .....	100
표 3-61 자영농고와 자영농과에 대한 지원 실적 .....	101
표 3-62 자영농과계 설치현황(1990. 4. 1 현재) .....	102
표 3-63 자영농과 졸업생 진로 .....	103
표 3-64 한국영농학생 회원수의 변화 .....	106
표 3-65 도별 농업계 학과를 타계열과로 개편할 계획 .....	107
표 3-66 1991년도 농업계 학과를 타학과로 개편할 세부계획 .....	108
표 3-67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학과의 동계열 개편계획 .....	109

표 3-68 21C 농정기획반(1989)의 구상	112
표 3-69 농고의 공고 또는 종합기술고 전환계획	112
표 3-70 농업계 고등학교의 개편 필요성	113
표 3-71 농업계 고등학교의 편제를 개편할 경우 그 방향	114
표 3-72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에 관한 교사의 의견	114
표 3-73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졸업생의 의견	114
표 3-74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데에 대한 졸업생의 의견	115
표 3-75 농업 고등학교에 6개월, 1년과정의 성인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118
표 3-76 농업계 고교의 농림수산부 이관이 가져오는 예상효과와 문제점	119
표 3-77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촌지도소의 통합에 관한 의견	121
표 3-78 농고와 지도소의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121
표 3-79 농고와 지도소의 통합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121
표 3-80 4-H회 조직 현황	131
표 3-81 4-H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132

#### 제 4 장

표 4- 1 농어민후계자 육성인원 및 지원액	134
표 4- 2 농어민후계자의 사업별 지원	134
표 4- 3 농어민후계자의 학력, 1981~89	135
표 4- 4 1990년 선정 농어민후계자 중 농업분야 후계자의 출신분야	135

표 4- 5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 1990 .....	136
표 4- 6 농어민후계자 영농규모 변화 .....	137
표 4- 7 농어민후계자의 농가소득 .....	138
표 4- 8 농어민후계자의 기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	138
표 4- 9 농어민후계자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	139
표 4-10 영농정착자에 대한 병역혜택 추진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141
표 4-11 연령별 농민의 지식과 기술의 충분정도 .....	147
표 4-12 국제화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지식 .....	148
표 4-13 국제화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 .....	149
표 4-14 국제화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정신자세 .....	149
표 4-15 청년영농인의 자질 .....	150
표 4-16 청년 영농인의 부족사항 보충방법 .....	151
표 4-17 농민의 자질 보충방법 .....	151
표 4-18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	153
표 4-19 겨울 영농교육 인원의 변화 .....	154

## 그 림 목 차

### 제 1 장

그림 1-1 연구 추진 내용 .....	3
-----------------------	---

### 제 2 장

그림 2-1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변화 .....	10
그림 2-2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 .....	21
그림 2-3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 .....	23
그림 2-4 농업인력의 문제상황과 소수정예 농업인력육성 필요성.....	46

### 제 3 장

그림 3-1 정예 농업인력 육성단계 .....	49
그림 3-2 전국농업계 고교의 배치, 1990 .....	97
그림 3-3 지역농업기술원(가칭) 체제로의 농업계 고교의 기능정립 .....	120
그림 3-4 네덜란드의 농업, 자연관리 및 수산부와 농업계 학교 기구표 .....	124
그림 3-5 독일의 농업성과 농업계 학교 기구표 .....	125
그림 3-6 독일의 농업교육제도 예 (바이에른) .....	126
그림 3-7 덴마크의 농업교육제도 .....	128
그림 3-8 스위스의 농업교육제도 .....	129

### 제 4 장

그림 4-1 서독의 마이스터 제도의 위치 .....	145
------------------------------	-----

빈

면

## 第 1 章

### 序 論

#### 1. 연구 목적

최근 우리 나라의 농업은 수출입개방과 국제화시대를 맞아 급격한 변화와 신속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60년대초 상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계속적인 성장격차를 보여온 농업부문의 산업간 격차는 이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해졌으며 계속적인 이농과 농업비중 감소로 상대적 쇠퇴화 경향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윤곽이 드러나게 된 UR 농업 협상은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위축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이 국제화에 대응하고 산업화 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농정당국이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한 농업구조 개선의 빠른 달성이며 계속적인 이농으로 공동화되기 직전에

이른 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이다.

지금의 농어촌은 그동안의 계속적인 산업간 성장격차 누적과 농업소득조건의 악화로 이농이 늘어난 데다가 최근에는 UR 농업 협상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지므로 인해 더욱 더 이농이 증가하여 심한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젊고 교육받은 고급인력이 빠져나가, 노령자와 부녀자로 구성된 농민을 가지고 농업의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되는 구조개선을 슬기있고 역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영농후계인력의 확보와 육성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우리 농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이루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영농후계인력의 확보와 육성방안의 강구에 목표를 두었다. 영농후계자를 확보하고 핵심적인 중견영농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영농후계인력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방안에도 역점을 두었다. 물론 이 경우는 현재의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젊은 인력의 이농에 의한 노동력 부족현상의 심화와 농업의 쇠퇴화경향에 영향을 받은 이농희망 농민들의 이농희망 증가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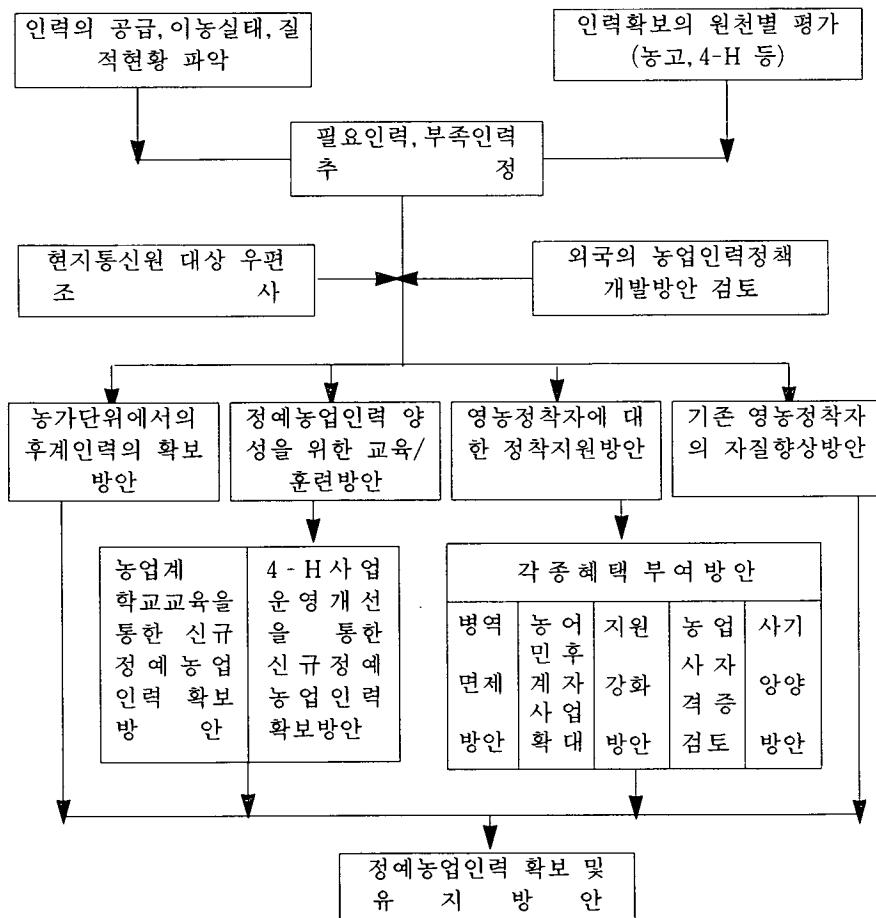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가. 연구범위

위와 같은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인력 수급전망에서 영농후계자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시급한 요청과 시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주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연구의 범위는 농가단위와 교육 및 훈련기관을 통한 영농후계자 확보대책과 그 개선방안, 신규정예농민 양성을 위한 특별대책, 영농정착자의 정착 및 농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제시에 한정시켰다.

그림 1-1 연구 추진 내용



## 나. 연구방법

### ① 조사분석

앞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중점분야별 자료수집과 조사방법을 달리하면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現地調査는 本研究院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하였다. 우편조사는 추수기와 겨울시설채소농사 준비철이 겹치는 농번기에 실시되어 회신율은 37.1%로 이하였다.

응답내용은 연령별 차이점을 보기위해 연령계층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경영규모별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별 구분에 따른 분석은 보충설명을 위한 정도에 그쳤다. 현지설문조사에 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현황이나 통계자료들은 기존의 관련기관자료를 인용하였다.

### ② 응답자 일반 현황

조사응답자에 대한 개황은 본연구원의 현지통신원 총 2,300명 중 설문응답지를 11월 20일까지 반송해준 853명에 대한 것이다. (그 이후에 도착된 응답지는 분석에 이용하지 못했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51~60세 사이의 장년층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40대미만은 14.9% 밖에 되지 않아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음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농지의 소유규모는 7,000평이상의 대규모 소유자도 13.2%나 되었으나 38.8%는 1ha미만의 소규모 경영자들이었다.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아 거의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88%)에 속하고 있으며, 생활 정도도 87.0%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1-1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 구 분 야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인력의 육성 등 인력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인력육성관련 이론 고찰	○ 인력의 형성, 배치, 활용, 보존 등 인력정책 이론 고찰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농업인력의 능력 추출	○ 농민의 상황변화적응 능력개발방안	○ 각종 문헌고찰 및 각종 조사를 통한 능력 추출 ○ 대농민 우편조사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	○ 농업인력의 양적 감소 실태 분석 ○ 농업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학력저하 실태 분석 ○ 농업인력의 농업경영능력 평가 ○ 농업인력의 사기 분석	○ 농림어업취업자 통계분석 ○ 농림어업취업자 장기예측 자료 활용 ○ 경제활동인구 자료 분석 ○ 현지통신원 우편조사 ○ 현지통신원 우편조사
외국의 농업인력개발정책	○ 주요 외국의 농업인력개발정책	○ 각국의 농업인력개발 관련 자료 분석
농업인력 확보방안	○ 농업계학교 졸업자의 취농정도 및 취농저해요인 분석 ○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계 교육기관 개선방안 ○ 신규취농인력에게 각종 지원 부여 방안	○ 문교통계연보 자료 분석 ○ 각종 제도 분석 ○ 각종 제도 분석
농업인력 유지방안	○ 농업인력 양성 각종 교육기관의 운영 개선방안	○ 각종 제도 분석

표 1-2 응답자의 일반 현황

단위: 명, %

구 分		빈 도	백 분 율
연 령	30세 미만	44	5.2
	31~40	83	9.7
	41~50	156	18.3
	51~60	421	49.4
	61~70	135	15.8
	71세 이상	14	1.6
농지소유 규 모	2,000평 이하	205	24.0
	2,001~3,000	126	14.8
	3,001~4,000	133	15.6
	4,001~5,000	128	15.0
	5,001~6,000	89	10.4
	6,001~7,000	59	6.9
	7,001평 이상	113	13.2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751	88.0
	501~600	19	2.2
	601~700	18	2.1
	701~800	10	1.2
	801~900	13	1.5
	901~1,001	8	0.9
	1,001만원 이상	34	4.0
생활정도에 대한 판단	상	58	6.8
	중의 상	150	17.6
	중	355	41.6
	중의 하	185	21.7
	하	53	6.2
	무응답	52	6.1

## 第 2 章

### 農業人力의 減少와 그 影響

#### 1. 농업인력의 양적 감소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 종사인력의 이농에 의한 감소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공업중심의 경제개발이 급속한 경우에는 공업부문에의 취업을 통하여 그리고 공업중심지인 도시의 상업, 서비스업 등의 확대를 통하여 더욱 급속한 이농현상을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과정에서 진척되는 농업경영의 기계화와 과학화 경향은 남은 노동력의 유출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와같이 도시나 상공업분야로의 진출이 誘引要因에 의해서도 크게 일어났지만 한편에서는 농어촌 경제의 악화와 농업의 암담한 장래문제로 이농하게 되는 소위 壓出要因 또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농림어업종사자는 경제개발초기인 1965년 58.4%에서 1989년에는 19.3%로 매년 평균 약 1.7% 포인트씩 낮아지는 급격한 감소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인력감소는 농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시화되는 9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림어업부문의 종사자 감소가 심한 것을 감안하고 그 경향에 맞추어 추계한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00년대까지 농림어업 종사자는 8.4%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계는 지금까지의 경향에 맞추어 추산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농업부문 전망이 어떻게 바뀌고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이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급격한 인력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 종사인력의 감소추세를 <그림 2-1>에서 보면 타업종에 비해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제조업, 서비스업과 전문직종 등의 인력증가가 일어나고 있어 이동인력이 주로 제조업부문에 흡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1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단위: %

연도	전문·기술 행정·관리 종사자	사무· 관련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 업 종사자	생산·운수 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	계
1965	2.9	4.1	12.0	6.4	58.4	16.3	100.0
1970	4.8	6.0	12.4	6.4	50.2	20.2	100.0
1975	3.6	6.4	13.0	7.1	45.8	24.1	100.0
1980	5.3	9.3	14.5	7.9	34.0	29.0	100.0
1985	7.3	11.5	15.5	10.8	24.6	30.3	100.0
1986	7.5	11.6	15.2	10.8	23.4	31.6	100.0
1987	7.5	11.5	15.0	10.9	21.7	33.4	100.0
1988	7.8	12.0	14.7	10.8	20.5	34.2	100.0
1989	8.3	12.4	14.7	10.8	19.3	34.5	100.0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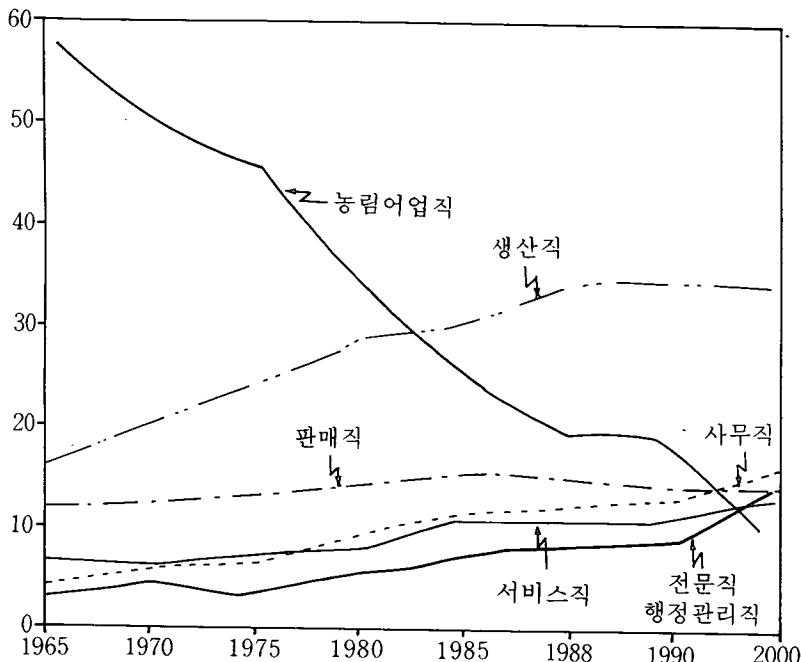
표 2-2 직종별 취업자 구조전망, 1990~2000

단위: 천명 (%)

연도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직	농 림 어업직	생산직	총 수
1990	1,313 (7.3)	262 (1.5)	2,307 (12.8)	2,570 (14.3)	1,927 (10.7)	3,297 (18.3)	6,317 (35.1)	17,993 (100.0)
1991	1,413 (7.7)	280 (1.5)	2,444 (13.2)	2,672 (14.5)	2,016 (10.9)	3,156 (17.1)	6,477 (35.1)	18,458 (100.0)
1992	1,526 (8.1)	298 (1.6)	2,582 (13.7)	2,751 (14.6)	2,126 (11.2)	3,004 (15.9)	6,613 (35.0)	18,901 (100.0)
1993	1,648 (8.5)	314 (1.6)	2,716 (14.0)	2,840 (14.7)	2,242 (11.6)	2,851 (14.7)	6,742 (34.8)	19,353 (100.0)
1994	1,778 (9.0)	329 (1.7)	2,846 (14.4)	2,909 (14.7)	2,354 (11.9)	2,691 (13.6)	6,866 (34.7)	19,773 (100.0)
1995	1,921 (9.5)	343 (1.7)	2,974 (14.7)	2,970 (14.7)	2,461 (12.2)	2,533 (12.5)	6,994 (34.6)	20,196 (100.0)
1996	2,069 (10.1)	355 (1.7)	3,094 (15.1)	3,011 (14.6)	2,556 (12.4)	2,372 (11.5)	7,102 (34.5)	20,559 (100.0)
1997	2,219 (10.6)	366 (1.8)	3,207 (15.4)	3,042 (14.6)	2,638 (12.6)	2,225 (10.7)	7,189 (34.4)	20,886 (100.0)
1998	2,369 (11.2)	377 (1.8)	3,313 (15.6)	3,072 (14.5)	2,713 (12.8)	2,086 (9.8)	7,268 (34.3)	21,198 (100.0)
1999	2,526 (11.7)	387 (1.8)	3,420 (15.9)	3,109 (14.4)	2,788 (12.9)	1,962 (9.1)	7,357 (34.1)	21,549 (100.0)
2000	2,683 (12.3)	396 (1.8)	3,524 (16.1)	3,145 (14.4)	2,863 (13.1)	1,845 (8.4)	7,442 (34.0)	21,898 (100.0)

자료: 노동연구원.

그림 2-1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변화



60년대초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에 힘입은 제조업부문의 취업증가가 농림어업부문의 이농인력을 대부분 흡수해 왔으나 88년을 기점으로 제조업 부문의 취업은 정체되고 그대신 사무직, 서비스직 및 전문직종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난해 3,4분기 동안의 농림어업인구는 192,000명이 줄었으며 서비스업 종은 66만명이나 증가하여 이제 서비스업 종사인력의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농경향이 계속될 경우 농업부문의 노동력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력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농업기계화의 영향으로 대체효과를 보여왔지만 특별한 농작업의 경우나 농업기계작업 가능도가 낮은 작물의 경우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작업률이 비교적 높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재배지역과

팔기, 토마도, 고추 등 과채류 재배지역에서는 수확기나 적과작업 등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 노임의 상승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농산물의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우리 나라의 농업기계화가 수도작 중심에 치우쳐 있어 밭농사는 아직도 상당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도작 기계화율도 타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실제로 일본이나 대만의 농기계 보급률을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일본의 1970년대 수준에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작의 노동파크기인 봄철 이앙작업과 가을철 수확작업에 필요한 이앙기와 수확기의 보급률이 특히 부진하다(표 2-3 참조). 또한 수도작의 경우는 그동안의 경지정리와 기반정비 투자가 이루어져 기계작업이 가능해졌지만 밭작업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밭의 경지정리와 기반정비에 필요한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밭의 기계화를 위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이 계속 심화되면서 도시임금의 일반적인 상승효과가 농촌노임을 부추겨 농가경제를 크게 압박하게 될 것이다. 특히

표 2-3 농업기계 보급률 변화의 국제간 비교

단위: %

농기계 별	1970			1980			1987			1988*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	일본	한국	일본
경운기	0.5	3.3	59.2	13.4	11.4	59.0	38.0	15.2	63.5	39.7	63.1
트랙터	-	0.1	5.4	0.1	0.5	31.6	1.1	1.5	36.9	1.3	46.8
이앙기	-	0.1	0.6	0.5	4.0	37.5	4.1	7.7	46.1	5.0	51.9
콤바인	-	-	0.9	0.1	1.7	19.0	1.1	3.0	23.2	1.4	29.3
방제기	1.8	2.1	40.8	15.4	6.2	45.9	33.6	-	83.0	36.3	-

\* 농기계 보급률은 일본의 1970년도 수준임.

자료: 박상우, “농업기계화사업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계화의 과제와 개선방향」, 1988. p. 2.

이와 같은 노동력부족과 농업노임 상승이 과수재배 주산지역과 밭작물의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답작지대에는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화 영농단이나 농기계작업용역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농촌 임료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촌 임료금의 지수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과 임료금의 총지수 상승폭보다 높으며 1989년의 농업노동임금 상승폭은 138.7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농업경영조건은 이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우리 농어촌의 농경지의 정상적인 경영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었으며 따라서 농어촌 오지의 농지나 산간 농지의 폐기화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곧 농업부문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며 토지 이용률이 떨

표 2-4 농촌임료금 지수의 변화

1985 = 100

연 도	농가구입가격 및 임료금 총 지수	농촌임료금			
		농업노동임금	기 타 임 금	농업용 요금	농촌임료금 전체
1977	37.0	24.3	22.2	27.2	24.4
1978	48.2	35.5	31.3	31.9	34.6
1979	54.8	53.8	51.9	44.5	52.2
1980	68.3	68.2	69.1	60.3	66.8
1981	87.8	77.4	79.4	77.0	77.5
1982	98.8	86.4	84.9	85.2	86.1
1983	107.0	91.3	89.1	91.3	91.2
1984	102.5	94.8	93.4	95.6	94.9
1985	100.0	100.0	100.0	100.0	100.0
1986	99.4	104.6	102.9	101.8	103.5
1987	101.0	109.8	107.3	105.8	108.1
1988	109.0	127.0	120.4	108.4	119.6
1989	118.6	155.3	153.6	112.8	138.7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연도.

어지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농지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농경지로서 개발되어 생산성을 가진 국토가 다시 폐허로 변하게 되는 현상은 국토관리의 누수적현상으로서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이 기능해 주어야 할 국가재산의 유지관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점이다. 생산성을 가진 농지로서 개발되어진 국토를 다시 불모지화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국가재산의 손실이며 환경보존과 자연생태계 관리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까지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개발되어진 농지와 그 농지에 부속된 농로, 수로, 제방, 논둑, 밭둑 등 하부구조는 계속적인 관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며 지력유지가 가능하도록 경영되어야 하므로 농민의 손이 필요하고, 농업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농업인력이 농지와 농업하부구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만 있는 이농의 원인처방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농어촌인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남아 있어야만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지는 과제이며 농업기계화율과 농어촌인력의 질적구성 및 앞으로의 농어업 경영구조 변화에도 크게 의존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2-5 경지이용 현황

연 도	경지면적 千ha	증감률 %	이용면적 千ha	이용률 %
1965	2,256	3.9	3,560	157.8
1970	2,298	△ 0.6	3,478	151.3
1975	2,240	0.1	3,144	140.4
1980	2,196	△ 0.5	2,765	125.3
1985	2,144	△ 0.4	2,592	120.4
1989	2,127	△ 0.5	2,485	116.2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90.

## 2. 농업인력의 질적 감소

농업인력의 감소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어업 부문이 산업화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우리나라 농업발전전망이나 농업경제적 여건 및 UR협상 등에 따른 특수조건적 현상에서 유인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의 초점은 농어촌노동력 부족과 농어업의 기능축소 및 국토관리 차원에서의 농지보존 문제 등에 두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농인력이 잔존인력보다 학력이나 기술 등 노동력의 질적수준에서 크게 우위에 있어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응한다거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쇠퇴화 내지는 소멸의 상황으로 가게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0

표 2-6 연령계층별 총이농량 추이

단위: 천명

연령별	1970 ~ 75	1975 ~ 80	1980 ~ 85
17 ~ 21세	199.8	385.8	164.2
22 ~ 26	239.5	307.1	266.8
27 ~ 31	134.2	167.3	95.7
32 ~ 36	67.3	98.0	73.0
37 ~ 41	76.4	80.8	72.8
42 ~ 46	- 20.3	44.5	74.2
47 ~ 51	- 13.6	25.9	23.6
52 ~ 56	- 58.1	- 30.7	0.0
57 ~ 61	[ ] - 47.6	[ ] - 4.3	[ ] 0.4
62세 이상	[ ]	[ ]	15.6
계	577.6	1,074.4	786.3

자료: 이정환 외, 「농업부문 장기 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년대 이후 지금까지 농어촌을 떠난 이농인구의 대부분은 학력이 비교적 높고 연령이 낮은 청년계층에서 주축을 이루어 왔으며 잔존인력들은 크게 노령화되거나 부녀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계층별 인력 이동량을 추계해 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5년 동안은 41세를 기점으로 젊은 층은 이농하고 42세 이상은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貞煥 1986). 1975~80년까지는 51세가 분기점이 되면서 고령층의 귀농현상이 유지되다가 1980년 이후는 전체 연령계층에서 이농이 귀농하는 양보다 높아 전 계층의 이농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기간 동안 이농의 주축을 이루는 계층은 26세미만의 젊은이들이고 50세이상의 고령층은 귀농하거나 이농하더라도 소수에 그쳐 결국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젊은층의 이농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농가설문조사에서도 도시로 이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40세 이하의 계층에서 응답자중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50세 이상의 계층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도시이주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농자들은 대부분이 학력도 높아 농어촌 잔존인력에 비해 고급

표 2-7 연령별 도시 이주 의사\*

단위: 명 (%)

연령별	없다	있다	계
29세 이하	18(47.4)	20(52.6)	38(100.0)
30~39	37(47.4)	41(52.6)	78(100.0)
40~49	78(53.8)	67(46.2)	145(100.0)
50~59	252(67.4)	122(32.6)	374(100.0)
60~69	90(73.2)	33(26.8)	123(100.0)
70세 이상	7(53.9)	6(46.2)	13(100.0)
계	482(62.5)	289(37.5)	771(100.0)

\* 무응답자 제외.

인력의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표 2-8>에서도 농촌거주자의 학력은 국졸이 45.8%, 중졸이 19.8%, 고졸이 13.6%, 대졸 2.5%인데 반해 이농자의 학력은 국졸 31.5%, 중졸 29.5%, 고졸 27.5%, 대졸 이상이 5.7%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격차 경향은 근래로 올수록 계속 높아져 농촌인력은 전반적인 열세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타산업부문과의 상대적비교에 따른 결과이며 과거의 학력과 최근의 학력을 비교해 볼 때는 농업부문의 종사인력의 학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8 시·군부 거주자와 이농자의 학력 비교(6세이상)

단위: 천명, (%)

	1970		'66~70 이동 인구	1975		'71~75 이동 인구	1980		'76~80 이동 인구
	시 부	군 부		시 부	군 부		시 부	군 부	
국 민 학 교 (재학, 졸업, 중퇴)	4,899 (44.6)	8,563 (56.0)	877 (48.6)	5,566 (39.0)	8,169 (53.5)	723 (42.0)	6,181 (33.1)	6,466 (45.8)	780 (31.5)
중 학 교	2,319 (21.1)	1,691 (11.1)	404 (22.4)	3,351 (23.5)	2,493 (16.3)	457 (26.6)	4,392 (23.5)	2,720 (19.8)	729 (29.4)
고 등 학 교	1,796 (16.4)	824 (5.4)	271 (15.0)	3,044 (21.3)	1,272 (19.9)	342 (19.8)	4,910 (26.3)	1,924 (13.6)	680 (27.8)
대 학 (교)	847 (7.7)	199 (1.3)	81 (4.5)	1,182 (8.3)	248 (1.6)	78 (4.5)	1,931 (10.3)	347 (2.5)	141 (5.7)
불 쥐 학	1,122 (10.2)	4,001 (26.2)	171 (9.5)	1,133 (7.9)	3,082 (20.2)	121 (7.1)	1,276 (6.8)	2,595 (18.4)	146 (5.9)
15세 미만 불 쥐 학	253 (2.3)	439 (2.9)	41 (2.3)	256 (1.8)	305 (2.0)	22 (1.3)	321 (1.4)	255 (1.8)	34 (1.4)
전 체	10,983 (100.0)	15,278 (100.0)	1,804 (100.0)	14,276 (100.0)	15,264 (100.0)	1,721 (100.0)	18,690 (100.0)	14,122 (100.0)	2,476 (100.0)

자료: 농협중앙회, 「농촌사회구조변화와 농협」, 1986.

표 2-9 농림어업 취업자의 교육수준 변화

단위: %

연 도	무 학	국졸이하	중졸이하	전문대졸 이 상	계	평균 <sup>1)</sup> 학 력
1960	56	37	7	-	100	2.6
1966	46	44	10	1	100	3.2
1970	39	49	11	1	100	3.7
1975	33	51	15	1	100	4.2
1980	32	48	19	1	100	4.4
1985	N. A. <sup>2)</sup>	75	24	1	100	6.3
1989	N. A.	73	26	1	100	6.4

1) 평균학력 계산방법은 1~6년을 5년, 7~12년을 10년, 13년이상은 16년으로 계산하였음.

2) 무학과 국졸이하 구분 안됨.

자료: 1960~1980년은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보고」 자료이며 1985년과 1989년은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 연보」의 자료임.

〈표 2-9〉와 같이 농림어업취업자 가운데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960년의 93%에서 1989년 73%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사람의 비율이 1960년 56%에서 1980년 32%로 감소하였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을 최종 학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 1960년 7%에서 1989년 26%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었다.

김영봉 등(1984)은 평균 교육 연수를 국민학교(1~6년)를 5년, 중고교(7~12년)를 10년, 대학이상(13~)을 16년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의 교육수준이 1960년 2.6년에서 1980년 4.4년으로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학력향상에도 기인

표 2-10 직종별 교육 정도, 1989

단위: %

학력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직	농림 어업직	생산직	전체
국졸이하	2.4	4.8	1.2	24.1	32.5	73.4	25.0	30.0
중졸	2.8	7.7	4.0	21.4	26.8	14.7	30.4	20.1
고졸	25.5	34.7	61.5	4.0	35.4	10.9	41.5	36.4
전문대졸이상	68.0	52.8	33.2	11.5	5.3	1.1	3.1	1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러나 농림어업 취업자의 교육 수준을 타산업부문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2-10>과 같이 농림어업직은 생산직이나 서비스직과 같이 학력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직종보다 더 낮았다. 더구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등에 비하여 학력이 크게 낮았다.

특히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경영주의 학력이 중요한데 이 농업경영주의 학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2-11>과 같이 농업경영주 가운데 문맹자가 1970년의 12.6%에서 1985년의 8.6%로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높은 편이었다. 1985년의 간이농업센서스의 결과에서는 국민학교 졸업자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15.3%, 고졸이 9.5%, 전문대(초급대) 졸이 0.3%, 대졸이 0.9%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과 여자들은 학령시절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1) 경제기획원의 사회지표, 1987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학력이 1966년 5.0년에서 1985년 8.58년으로 증가하였다.

표 2-11 농업경영주의 학력변화, 1970~85

단위: %

연도	무학		국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초급대졸	대 졸	계
	문 맹	글을 앓						
1970	12.6	31.2	44.9	6.6	3.9	0.2	0.5	99.9
1980	10.4	18.6	50.4	12.5	6.9	0.4	0.9	100.1
1985	8.6	18.7	46.7	15.3	9.5	0.3	0.9	100.0

자료: 1970~80은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1985년은 농수산부 「간이 농업센서스」

이와 같이 농림어업직에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이 신규로 취업 되지 못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낮은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체되어 그 교육수준이 타직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림어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 3. 농업인력 감소로 인한 문제점

#### 가. 농업인력의 노령화 문제

##### ① 농업인력의 노령화 실태

젊고 교육받은 농업 인력의 이농이 증가하나 반면 새로운 인력이 공급되지 않게 되자 노령화된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게 되었다.

먼저 농림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실태를 보면 지난 1960년대 농촌 청장년층의 급격한 이농에 따라 농림어업 취업자들의 연령이 크게 고령화되고 있다.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83년만 하여도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5.8%였으나 1989년에는 53.5%로 증가하였으며, 이 경향은 앞

표 2-12 농림어업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千名 (%)

연도 \ 연령	~19	20~29	30~39	40~49	50~59	60~	계
1983	114 (2.7)	671 (15.7)	801 (18.8)	1,158 (27.1)	978 (22.9)	550 (12.9)	4,272 (100.1)
1984	87 (2.2)	554 (14.3)	694 (17.9)	1,074 (27.8)	904 (23.4)	556 (14.4)	3,869 (100.0)
1985	6.8 (1.8)	486 (13.2)	668 (18.1)	984 (26.7)	918 (24.9)	562 (15.2)	3,686 (99.9)
1986	60 (1.7)	440 (12.1)	673 (18.6)	919 (25.4)	931 (25.7)	602 (16.6)	3,625 (100.1)
1987	55 (1.6)	350 (9.9)	635 (17.9)	878 (24.8)	942 (26.6)	683 (19.3)	3,543 (100.1)
1988	31 (0.9)	313 (9.1)	598 (17.3)	820 (23.7)	1,005 (29.1)	690 (20.0)	3,457 (100.0)
1989	26 (0.8)	254 (7.5)	541 (16.0)	756 (22.3)	1,062 (31.3)	750 (22.1)	3,388 (100.0)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으로도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1989년의 경우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가운데 1,812천명이 50세 이상이고 29세 이하는 불과 280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970년 이후 농림어업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그림 2-2>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령층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65세 이하의 인구를 나타내는데 농촌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 2-13>은 1980년의 60세 이상 농가 인구의 취업별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농업 主從事가 53.0%, 겸업 主從事가 1.2%, 가사가 18.0%, 기타가 27.8%로 농업종사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연령이 낮은 남자일수록 농업취업이 많았는데 60~64 세 남자의 경우 94.7%, 65~69세 남자의 경우 89.5%, 70세 이상 남자의 경우 59.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자료는 1980년의 것인데

그림 2-2 농림어업취업자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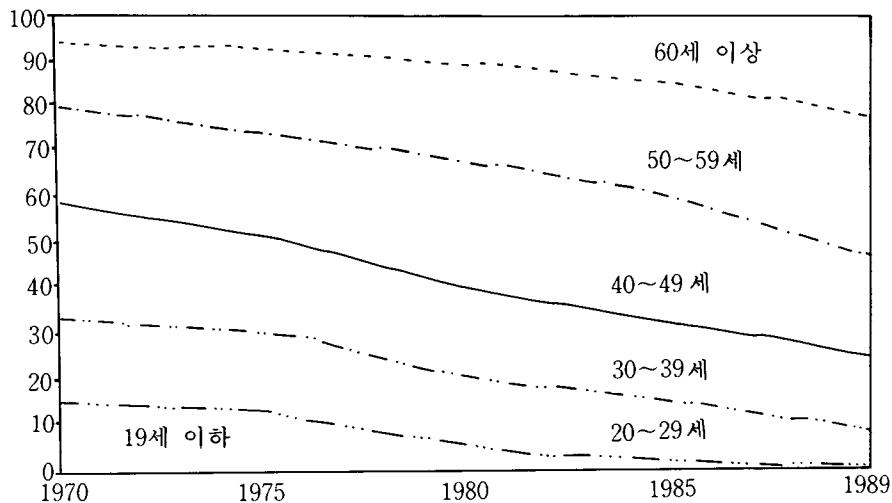


표 2-13 60세 이상 농가인구의 취업별 상태, 1980

단위: 명 (%)

취업 종류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농업 주종사	190,932 (94.7)	90,220 (43.2)	281,152 (68.5)	127,162 (89.5)	55,911 (35.6)	183,073 (61.2)	96,775 (59.4)	42,445 (16.0)	139,230 (32.5)	414,869 (81.9)	188,586 (29.9)	603,455 (53.0)
경업 주종사	4,678 (2.3)	2,818 (1.3)	7,496 (1.8)	2,252 (1.6)	1,612 (1.0)	3,864 (1.3)	1,334 (0.8)	1,076 (0.4)	2,410 (0.6)	8,264 (1.6)	5,506 (0.9)	13,770 (1.2)
가사	-	92,511 (44.3)	92,511 (22.5)	-	61,898 (39.4)	61,898 (20.7)	-	50,561 (19.0)	50,561 (11.8)	-	204,970 (32.5)	204,970 (18.0)
기타	6,009 (3.0)	23,208 (11.1)	29,217 (7.1)	12,698 (8.9)	37,614 (24.0)	50,312 (16.8)	64,727 (39.7)	171,582 (64.6)	236,309 (55.1)	83,434 (16.5)	232,040 (36.8)	315,838 (27.8)
계	201,619 (100.0)	208,757 (99.9)	410,376 (99.9)	142,112 (100.0)	157,035 (100.0)	299,147 (100.0)	162,836 (99.9)	265,674 (100.0)	428,510 (100.0)	506,567 (100.0)	631,466 (100.1)	1,138,033 (100.0)

자료: 농수산부, 「1980 농업센서스」, 1980.

그 이후 농업경제의 상황이 어렵고 많은 농가인구가 이농을 하여 더 많은 농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특히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는 가장 심각하며 더 많은 문제가 된다. 1970년에서 1989년까지 농업경영주의 연령 분포의 변화를 보면 <표 2-14>와 같

표 2-14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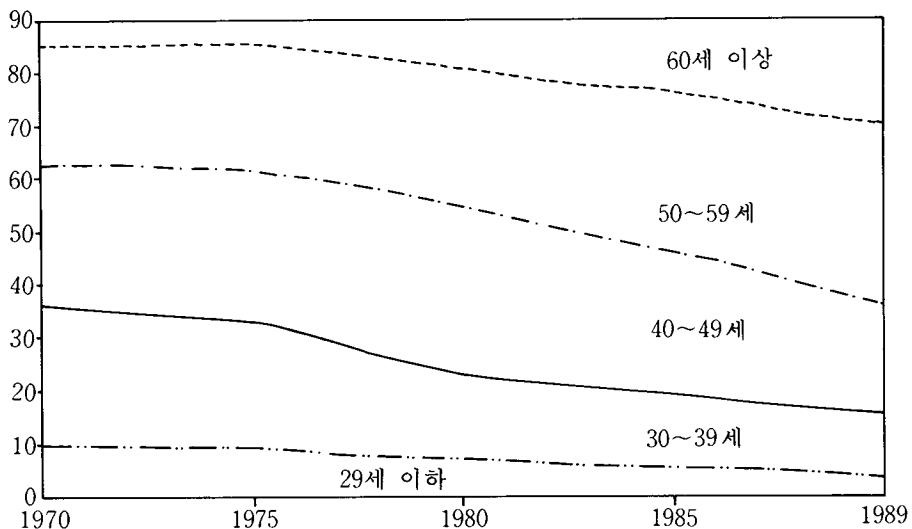
연령 연도 \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계
1970	215,812 (9.9)	657,922 (30.2)	662,953 (30.4)	456,111 (20.9)	184,542 (8.5)	2,177,340 (100.0)
1975	212,647 (8.9)	564,355 (23.7)	677,316 (28.5)	567,700 (23.9)	357,040 (15.0)	2,379,058 (100.0)
1980	129,673 (6.0)	367,123 (17.0)	664,794 (30.8)	555,907 (25.8)	437,576 (20.3)	2,155,073 (99.9)
1981	103,327 (5.1)	302,858 (14.9)	633,296 (31.2)	556,186 (27.4)	434,959 (21.4)	2,029,626 (100.0)
1982	98,634 (4.9)	286,111 (14.3)	608,787 (30.5)	556,812 (27.9)	445,425 (22.3)	1,995,769 (99.9)
1983	95,731 (4.8)	279,225 (14.0)	581,269 (29.1)	571,410 (28.6)	472,798 (23.6)	2,000,433 (100.1)
1984	85,196 (4.3)	268,715 (13.6)	544,240 (27.6)	583,160 (29.5)	492,228 (24.9)	1,973,539 (99.9)
1985	83,804 (4.4)	277,632 (14.4)	511,665 (26.6)	582,097 (30.2)	470,671 (24.4)	1,925,869 (100.0)
1986	77,247 (4.1)	261,902 (13.7)	480,009 (25.2)	593,598 (31.1)	493,228 (25.9)	1,905,984 (100.0)
1987	58,416 (3.1)	241,056 (12.9)	451,176 (24.1)	601,337 (32.1)	519,470 (27.8)	1,871,455 (100.0)
1988	46,022 (2.5)	223,468 (12.2)	412,425 (22.6)	606,528 (33.2)	537,901 (29.5)	1,826,344 (100.0)
1989	35,049 (2.0)	206,405 (11.6)	380,839 (21.5)	596,856 (33.7)	552,627 (31.2)	1,771,776 (100.0)

자료: 1970, 1980년은 농수산부, 농업 센서스.

1975, 1985년은 농수산부, 간이농업 센서스.

그밖의 연도는 농림수산부,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그림 2-3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



이 39세 이하의 농업 경영주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각 연령 계층은 각각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후기에 와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55세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중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비율이 1970~89년까지 변화한 것을 나타내면 <그림 2-3>과 같이 50세 이상의 노령층 증가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농림어업취업자의 노령층 증가는 젊은 농어업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에 취업하고 있던 젊은이들까지도 비전없는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부문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영농정착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오히려 타업종으로의 취업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젊고 교육받은 농업인력이 이농하는 만큼 신규로 공급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는 원천으로는 ① 각

급학교 졸업후 취농하는 경우, ② 학교교육을 거치지 않고 취농하는 경우, ③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 취농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취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일 것이다.

매년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취농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 2-15〉와 같이 점차 취농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학교는 1985년에 0.7% (1985년 이후 발표 안됨), 1990년에 고교졸업자의 1.3%, 전문대학 졸업자의 0.9%, 대학 졸업자의 0.5%만이 농림어업 취업자가 되고 있었다.

취업비율이 낮은 것은 실제로 농림어업 신규 취업자수를 〈표 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평균 2만명이라고 보더라도 이것은 연간 이농인구 40~50만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농어촌 인력의 부족 현상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표 2-15 각급학교 졸업자의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의 변화

단위: 명, %

연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 문 대 학			대 학		
	졸업자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졸업자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졸업자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졸업자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1970	312,814	4,602	1.5	145,662	4,955	3.4	6,947	430	6.2	23,315	283	1.2
1975	568,648	11,502	2.0	263,369	8,720	3.3	13,861	140	1.0	33,610	260	0.8
1980	741,618	6,566	0.9	467,388	9,341	2.0	51,507	688	1.3	49,735	242	0.5
1985	855,627	5,771	0.7	642,354	13,368	2.1	73,927	797	1.1	118,584	895	0.8
1990	N.A.	N.A.	N.A.	761,922	9,805	1.3	87,131	762	0.9	165,916	810	0.5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표 2-16 각급학교 졸업자의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수

단위: 명

연도	중학교	인문고교	실업계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계
1970	4,602	1,208	3,747	430	283	25	10,270
1971	7,407	1,287	4,388	234	552	42	13,868
1972	5,579	1,446	3,964	386	326	28	11,701
1973	9,800	1,617	4,780	554	390	20	17,141
1974	11,551	1,551	5,467	367	374	35	19,310
1975	11,502	2,265	6,455	140	260	22	20,622
1976	11,371	3,241	7,275	699	366	49	22,952
1977	10,111	4,098	6,530	834	285	3	21,858
1978	9,269	4,756	8,267	623	498	59	23,472
1979	9,751	3,706	6,970	820	402	22	21,649
1980	6,566	2,671	6,670	688	242	34	16,837
1981	7,423	2,484	6,990	486	299	62	17,682
1982	6,970	2,588	7,222	446	416	78	17,662
1983	6,545	3,425	7,968	726	590	56	19,254
1984	6,146	3,681	9,609	500	740	41	20,676
1985	5,771	3,401	9,967	797	895	180	20,831
1986	NA	3,545	8,272	820	680	108	13,425
1987	NA	3,018	8,725	658	953	133	13,418
1988	NA	2,931	8,051	629	847	170	12,628
1989	NA	2,577	8,702	672	1,002	145	13,098
1990	NA	2,580	7,225	762	828*	138	11,533

\* 각종 학교(대학) 포함.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 ②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

농어촌의 노령인구 증가와 노령 농업경영주의 증가는 노령화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한 산업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키게 된다.

우선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농어촌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농지이용률 감소 경향이 뚜렷한 점이며〈표 2-17 참조〉,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노임상승이 현격한 점이다.

노령자가 농업을 경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로서는 농지의 소유를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문제와 생산성문제, 농어민후계자 육성문제 등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노령이 되면 노동능력이 감퇴되고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농업의 고된 육체노동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노령으로서 넓은 농지를 경영하기 위해 농기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노령자에게 농기계기술의 습득은 어렵고 농기계조작이 능숙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빈발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경영주들의 농기계 소유는 젊은 경영주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진다. 〈표 2-17〉에서도 볼 수 있듯이 65세 이상의 경영주의 농기계 보유율은 0.97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경영주의 농업경영은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노동능력이 약해진 이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는 노인들의 경영내용을 살펴보

표 2-17 연령별 농기계 보유 현황(호당)

연령별	경영 자수	농기계보유 대수 (평균)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양수기	동 력 탈곡기	동 력 분무기	전조기	계
20~29세	66	0.58	0.06	0.08	0.015	0.030	0.32	0.21	0.36	-	1.65
30~39	291	0.55	0.04	0.05	0.017	0.014	0.27	0.23	0.40	0.024	1.60
40~49	630	0.43	0.02	0.05	0.008	0.010	0.30	0.22	0.36	0.014	1.42
50~59	635	0.29	0.03	0.04	0.006	0.008	0.30	0.17	0.28	0.020	1.13
60~64	182	0.31	0.02	0.03	0.011	0.005	0.26	0.18	0.28	-	1.10
65세이상	193	0.26	0.04	0.03	0.010	0.005	0.26	0.15	0.20	0.010	0.97
평균	1,997	0.38	0.03	0.05	0.010	0.010	0.29	0.19	0.32	0.016	1.29

자료: 김운근 외, 1985.

면 대부분이 임대경영을 통한 간접경영을 위주로 하고 있다. 노동력이 감퇴함에 따라 처음에는 농지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점차는 모든 농지를 임대하거나 처분하게 된다. 다행히 영농을 상속할 후계자가 있는 농민들은 적당한 시기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되지만 이 때에도 상속은 대개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18>에서 살펴보면 연령별 농지보유형태가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갈수록 임차지가 줄어가다가 65세에는 땅을 빌릴 수가 없어 임차지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임차지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다가 노동력이 쇠퇴하게 되는 65세 이후에는 남에게 빌려주는 토지가 자작지의 20.7%에 달하게 되고 그 이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노령농민의 농지소유는 우리 나라와 같이 토지자원이 좁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자원의 적정배분 문제와 관련되어 토지이용도의 제고문제가 제기된다. 노령농민의 생계수단적 농지소유는 비록 원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비농민의 투기적 소유와 형태에서는 같아진다. 따라서 진정한 생산농민의 기반이 침식되는 것이며, 영농후계자들의 농지소유의 기회는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농지의 가격도 수익지가를 훨씬 윗도는 실세지가를 형성시키게 된다.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량과 가격에 따른 농지의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가격은 의미가 없어지고 투기적 작용에 의한 실제의 지가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게 되었다. 농지임대수입을 기대하는 것 외에 지가의 상승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더 크게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증가에 관심이 커질수록 그 농지의 생산성에는 관심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노령농민이나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경영방식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남의 땅을 빌리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나 농지의 개량 등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지력을 소모시키는 掠奪농업방식을 쓰게 된다. 금비와 농약위주로 경작하며 토양유실이나 기반의 붕괴 등에는 신

표 2-18 연령별 농지보유 현황

단위: 평, %

연령별	소유지	경영지	임대지(A)	임차지(B)	경영지 대 임차율 (%)	소유지 대 임차율 (%)	A/B (%)
30 ~ 39	5,163 (1.72)	5,592 (1.86)	375 (0.13)	804 (0.27)	14.4	7.3	46.6
40 ~ 49	4,953 (1.65)	5,390 (1.80)	251 (0.08)	688 (0.23)	12.8	5.1	36.5
50 ~ 59	4,428 (1.48)	4,794 (1.60)	213 (0.07)	579 (0.19)	12.1	4.8	36.8
60세 이상	4,234 (1.41)	4,111 (1.37)	567 (0.19)	285 (0.10)	6.9	6.7	198.9
60 ~ 64	4,111 (1.37)	4,279 (1.43)	278 (0.09)	446 (0.15)	10.4	6.8	62.3
65세 이상	4,859 (1.62)	3,835 (1.28)	1,044 (0.35)	20 (0.01)	0.5	20.7	5,200.2
평균	4,726 (1.58)	5,116 (1.71)	264 (0.09)	654 (0.22)	12.8	5.6	40.4

( ) 내는 ha임.

자료: 김운근 외, 1985.

경도 쓰지 않게 된다. 최근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비닐멀칭재배도 임대지일 경우는 가을에 다 찢어진 비닐을 품을 들여 걷어내는 예는 보기 드물다. 비록 얇은 비닐이지만 그대로 갈아 엎으면 토질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소유주가 농지의 지력이나 토질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임대조건으로 비닐을 제거하고 침식방지를 위한 두둑의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지소유가 투기적인 경우의 소유주는 이와 같은 문제는 생각치도 못한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비와 구비를 많이 넣고 표토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랑의 방향, 두둑의 설치, 배수구 설치 등이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땅이 아닌

땅을 가꾸기 위해 이런 일들에 자금이나 노동을 투입할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임대경영은 생산성을 기본적으로 저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령농민의 직접적인 경작의 경우 특히, 상속후계자가 없거나 부양해 줄 자녀가 없어서 계속적인 농업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의 노인들에게서도 노령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감소는 전체 국민생산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농어촌 노령인구의 증가는 농어촌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며 노령의 생리적 특성에 따른 쇠약화로 활기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특히 최근의 농어촌은 UR협상과 농산물수입개방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다가 노령화로 활기마저 사라져 농업의 쇠퇴화론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 노령인구와 노령세대의 증가는 또 한편 짊은 가임 여성의 감소와 그에 따른 어린이 감소도 조화 있는 인간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문제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회적 영향에 관하여는 논외로 하겠다.

#### 나. 농업 인력의 여성화와 문제

젊은 남성 농업인구의 이농으로 농가 여성의 농작업 활동에서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표 2-19>는 농가, 비농가별,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 것인데 농가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65년 41%에서 1989년에는 60.9%로 증가하였으며, 비농가 여자와 비교하면 농가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았다.

농가 여자의 경제활동 분야는 어떤 것일까? 최근 농촌지역에도 비농업 분야의 취업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농업 분야가 대부분이라 생각된다.

<표 2-20>은 직업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를 나타낸 것인데 직종별 취

업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농림어업직은 서비스직, 판매직 다음으로 높은 44.8%였다.

농가의 노동투하 시간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 2-21〉

표 2-19 농가·비농가별,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단위: %

연 도	농 가		비 농 가		전 체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76.8	41.0	76.3	30.9	76.6	36.5
1970	75.2	48.2	75.1	29.8	75.1	38.5
1975	73.8	51.8	75.1	31.2	74.5	39.6
1980	72.4	53.0	74.2	36.1	73.6	41.6
1985	72.5	52.9	72.3	38.8	72.3	41.9
1989	74.3	60.9	73.1	43.5	73.3	46.5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표 2-20 직업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단위: %

연 도	전문·기술 행정·관리 종사자	사무·관련직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생산·운수 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	계
1965	18.0	10.0	46.2	45.7	38.4	19.8	35.0
1970	18.4	13.4	42.6	56.7	42.3	23.3	36.5
1975	20.9	20.9	40.7	56.9	41.3	25.3	36.4
1980	25.4	32.7	43.7	58.1	43.8	27.6	38.2
1985	29.1	34.5	46.3	61.2	43.7	27.5	39.0
1986	30.4	36.6	47.4	61.2	44.6	28.6	40.4
1987	31.4	36.9	47.2	60.8	45.3	30.9	40.4
1988	32.2	37.5	46.0	60.7	44.8	31.1	40.1
1989	34.3	38.9	47.2	61.3	45.3*	31.0	40.7

\* 일본은 62% 수준임.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과 같이 1965년 27.5%에서 1988년 46.2%로 증가하였다. 농가노동 투하량을 보면 <표 2-22>와 같이 임시고와 품앗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농업노동에 투하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지규모 별로는 <표 2-23>과 같이 경지규모가 클수록 여성의 농가노동투하량이 많았다. 즉 농가 규모가 큰 가정의 여성들일수록 “농촌 부자집은 일부자”라는 유행어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농가 주부의 농업참여율은 96.

표 2-21 농가의 노동 투하시간의 비율 변화

단위: 능력환산시간, %

연도	노동 투하시간 (환산시간)	가족 노동		고용(품삯) 노동		품앗이 노동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2,584.74	69.7%	30.3%	82.5%	17.5%	70.2%	29.8%	72.5%	27.5%
1970	2,154.83	66.2%	33.8%	74.0%	26.0%	65.2%	34.8%	67.4%	32.4%
1975	1,708.47	64.6%	35.4%	75.0%	25.0%	69.3%	30.7%	66.7%	33.3%
1980	1,814.00	58.3%	41.7%	57.4%	42.6%	49.5%	50.5%	57.4%	42.6%
1985	2,016.95	59.3%	40.7%	51.0%	49.0%	46.9%	53.1%	57.2%	42.8%
1988	1,847.21	57.5%	42.5%	N.A.	N.A.	37.7%	63.3%	53.8%	46.2%
1989	1,800.43	56.3%	43.7%	N.A.	N.A.	37.2%	62.8%	52.9%	47.1%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연도.

표 2-22 농가노동 투하량, 1989

단위: 능력환산시간

노동 종류	남	여	계
가족노동	804.24(56.3)	625.29(43.7)	1,429.53(100.0)
고용노동	연 고	13.09(100.0)	0.00(0.0)
	임시고	110.65(45.6)	132.17(54.4)
	소 계	98.49(41.8)	136.96(58.2)
품앗이	50.33(37.2)	85.13(62.8)	135.46(100.0)
계	953.06(52.9)	847.38(47.1)	1,800.43(100.0)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9.

1%로 남편의 92.1%보다 높았다. 농작업의 종류별로는 <표 2-24>와 같이 주로 남자가 하는 일, 남녀가 비슷하게 하는 일, 주로 여자가 하는 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여자가 하는 농작업은 계란고르기, 밭농사의 김매기, 옮겨심기, 씨뿌리기, 과수의 봉지 씌우기 등이 있었다.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는 농가 여성의 농업노동과 가사 노동의 2중부담을 갖게 한다. <표 2-25>와 같이 농업노동이 1966년의 3시간 25분에서 1979년 5시간 17분으로 늘었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1983년 4시간 45분이 되었으며, 가사노동시간은 대폭 축소되어 1966년 8시간 49분에서

표 2-23 경지규모별 여성의 농가노동통계, 1989

단위: 능력환산시간

노동종류	0.5ha미만	0.5~1.0	1.0~1.5	1.5~2.0	2.0ha이상	계
가족노동	325.57	527.27	698.27	800.22	853.67	625.29
고용노동	61.25	113.26	128.52	183.58	287.16	136.96
품앗이	26.01	61.74	94.36	127.02	139.60	85.13
계	383.64	702.27	921.15	1,110.82	1,280.43	847.38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9.

표 2-24 농작업 종류별 성별 노동분담

( )내는 여성 역할 비율

구 분	농 작 업 내 용
주로 여자가 함	축산의 계란고르기(68.9%), 밭의 김매기(55.7%), 밭의 옮겨심기(47.7%), 밭의 씨뿌리기(35.3%), 과수의 봉지씌우기(45.1%)
남여가 비슷하게 함	논의 모때우기(39.6%), 논의 김매기(40.0%), 밭의 수확, 타작, 포장 과수의 속아내기, 수확, 포장
주로 남자가 함*	논갈이(92.6%), 농약살포(79.5%), 못자리(62.7%), 비료주기(79.0), 벼베기(51.2%), 타작(65.3%), 밭의 비료주기, 농약살포, 축산의 축사청소, 사료주기, 젖짜기

\* 주로 남자가 함의 ( )내는 남성 역할 비율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1987.

표 2-25 농가주부 노동실태

단위: 시간

연 도	농 가 여 성 .			농 업 경 영 주		
	농업노동	가사노동	계	농업노동	가사노동	계
1966	3 : 25	8 : 29	12 : 14			
1973	4 : 39	6 : 40	11 : 19			
1975	5 : 31	5 : 15	10 : 46			
1976	5 : 06	7 : 36	12 : 42			
	농번기	9 : 46	4 : 28	14 : 14	12 : 33	0 : 16
1979	연평균	5 : 17	5 : 40	10 : 56	8 : 02	1 : 21
	농한기	1 : 13	6 : 51	8 : 04	3 : 32	2 : 26
	농번기	8 : 54	4 : 29	13 : 23	11 : 28	0 : 23
1983	연평균	4 : 45	5 : 00	9 : 45	6 : 43	0 : 32
	농한기	0 : 35	5 : 32	6 : 07	1 : 59	0 : 40
1985	농번기	6 : 32			11 : 45	
	농한기	1 : 19			1 : 46	
1987	농번기	11 : 28	2 : 58	14 : 26	11 : 55	0 : 34
	농한기	2 : 27	4 : 50	7 : 17	3 : 01	0 : 52
	농번기	7 : 52	4 : 52	12 : 44	10 : 47	0 : 38
1988	연평균	4 : 45	5 : 24	10 : 09	7 : 27	1 : 00
	농한기	1 : 39	5 : 56	7 : 35	4 : 07	1 : 22
						5 : 29

자료: 전승규, "농촌여성의 가사노동실태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1982에서 재인용.

이영심,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가사기구 및 설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농진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 1980.

농진청, 「'8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1984, 1988

Shin Dong-Wan, Statistical Case Study on Women's Role in Agriculture at Selected Villag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85,  
pp. 13~14.

권영자 외,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87.

1983년 5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노동 시간이 1966년 12시간 14분, 1973년 11시간 19분, 1979년 10시간 56분, 1983년 9시간 45분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농한기에 비하여 농가주부들이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다. 농번기 농가 주부의 노동 시간은 1979년 14시간 14분, 1983년 13시간 23분으로, 해당연도 남편의 노동시간 보다 각각 85분과 92분이 더 많았다.

1979년과 1983년을 비교할 때 농가 주부, 농가 경영주의 농업노동 시간은 줄어드나 주부의 가사노동은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농가주부의 하루 일과를 보면 농번기에는 4시30분~5시에 기상하는 경우가, 취침은 9시30분~10시가 가장 많은 것이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5시 이전에 기상하는 주부의 비율이 89.6%이고, 10시30분 이후 취침하는 비율도 49.7%였다.

또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주부의 83.3%는 농업노동이 힘들다고, 71%는 가사노동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정리해 볼 때 농어촌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증대는 바쁜 일손에 몰려 산후조리 부족이나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한 農婦病이나 農夫症의 발병위험이 높고 고된 농업노동으로 농업을 기피하려는 심리적 영향이 파급적으로 미치게 되며 이것은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강한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그 파급적 영향은 농어촌 청년들의 결혼대상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영농 후계인력 확보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농어촌 부녀자들이 농업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농업기계화율이 높고 농기계의 이용이 부녀자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잘 만들어져 그 이용이 보편화되는 경우를 예상할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작업 기계화율은 아직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남자들의 개인적 체력에만 맞추어져 기계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

은 문제의 해결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농업인력의 사기 저하

농업인력의 감소로 인한 물리적인 문제점 못지않게 심리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농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낮은 것이며,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점이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농민들이 생업인 농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업에서의 일의 성과 (performance)는 농민들의 능력 (ability) 수준과 농민들의 일에 대한 의욕, 사기 (土氣)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직업만족도는 다른 어떤 직업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표 2-26>은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살펴본 것인데 농업의 수입성, 장래성,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불만이 가장 높았고 직무, 작업환경, 인간관계 등에서는 크게 만족하거나 불만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앞의 자료는 경제기획원의 사회조사의 결과인데 이번에는 본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2-27>과 같이 농민들 가운데 농업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1.1%, 만족이 6.6%로 결국은 전체의 7.7%만이 농업

표 2-26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직업만족정도, 1989

단위: %

직업조건	만족	보통	불만	계
직무	11.9	59.4	33.6	99.9
직업환경	7.0	50.9	42.1	100.0
장래성	3.5	42.3	54.2	100.0
수입	8.8	40.6	50.6	100.0
근로시간	6.3	46.7	47.1	100.1
인간관계	24.6	64.5	11.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9.

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만족이라는 사람은 37.9%이고 매우 불만족인 경우가 19.7%로 전체 응답자중 과반수인 57.6%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조사결과 농업에 대한 직업적 불만족이 강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결과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28〉과 같이 농업이 국가의 근본(천하지 대

표 2-27 연령별 농민의 농업만족 정도\*

단위: 명 (%)

연령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29세 이하	0(0.0)	0(0.0)	8(22.9)	20(57.1)	7(20.0)	35(100.0)
30 ~ 39	2(2.5)	8(9.9)	26(32.1)	38(46.9)	7(8.6)	81(100.0)
40 ~ 49	1(0.7)	5(3.3)	57(37.5)	58(38.2)	31(20.4)	152(100.0)
50 ~ 59	3(0.7)	33(8.0)	144(34.7)	142(34.2)	93(22.4)	415(100.0)
60 ~ 69	2(1.5)	7(5.2)	47(35.1)	55(41.0)	23(17.2)	134(100.0)
70세 이상	1(7.1)	2(14.3)	6(42.9)	2(14.3)	3(21.4)	14(100.0)
계	9(1.1)	55(6.6)	288(34.7)	315(37.9)	164(19.7)	831(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2-28 연령별 농업의 국가근본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연령별	근본이다	근본이 아니다	계
29세 이하	20(50.0)	20(50.0)	40(100.0)
30 ~ 39	45(57.0)	34(43.0)	79(100.0)
40 ~ 49	95(62.5)	57(37.5)	152(100.0)
50 ~ 59	251(61.5)	157(38.5)	408(100.0)
60 ~ 69	87(65.9)	45(34.1)	132(100.0)
70세 이상	7(53.9)	6(46.2)	13(100.0)
계	505(61.3)	319(38.7)	824(100.0)

\* 무응답자 제외.

본)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61.3%가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을 국가의 근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따라서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약화되며 새로운 세대가 올수록 농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낮아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 <표 2-29>는 연령별 농업의 경제 발전 기여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 농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고 보는 의견이, 낮다고 보는 의견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응답자가 대부분 농어민이기 때문에 농업이 중요하고 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농민이 소득과 재산, 교육수준 등에 있어서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표 2-30>은 농민들이 어떠한 사회계층에 속하고 있는 가를 응답자에게 물어본 것인데 사회적 최하위라고 보는 사람이 24%나 되었고 하위라고 보는 48.1%를 합하면 72.8%의 응답자가 농민은 사회의 하위 계층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농민을 상위계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2.

표 2-29 연령별 농업의 경제발전 기여 정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연령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계
29세 이하	5(12.2)	7(17.1)	8(19.5)	12(29.3)	9(22.0)	41(100.0)
30 ~ 39	27(33.3)	17(21.0)	20(24.7)	10(12.3)	7(8.6)	81(100.0)
40 ~ 49	49(31.6)	39(25.2)	30(19.4)	20(12.9)	17(11.0)	155(100.0)
50 ~ 59	102(24.6)	94(22.7)	90(21.7)	63(15.2)	66(15.9)	415(100.0)
60 ~ 69	32(23.9)	26(19.4)	37(27.6)	27(20.2)	12(9.0)	134(100.0)
70세 이상	5(38.5)	0(0.0)	3(23.1)	3(23.1)	2(15.4)	13(100.0)
계	220(26.2)	183(21.8)	188(22.4)	135(16.1)	113(13.5)	839(100.0)

\* 무응답자 제외.

6%밖에 안되어 상당히 대조적이면서도 농업에 대한 직업적 가치의 평가가 낮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경제적 열위성이나 흐린 전망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농업의 직업적 가치의 열위로 농민의 영농의욕은 <표 2-31>과 같이 매우 낮으며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경향은 세대가 바뀔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면 <표 2-32>와 같이 영농 규모 확대

표 2-30 응답자가 보는 농민계층의 사회적 지위\*

단위: 명 (%)

연령별	최하위	하위	중	상위	최상위	계
29세 이하	11(31.4)	13(37.1)	11(31.4)	0(0.0)	0(0.0)	35(100.0)
30 ~ 39	16(20.0)	50(61.7)	12(14.8)	3(3.7)	0(0.0)	81(100.0)
40 ~ 49	36(23.5)	75(49.0)	41(26.8)	1(0.7)	0(0.0)	153(100.0)
50 ~ 59	106(25.5)	194(46.8)	100(24.1)	13(3.1)	2(0.5)	415(100.0)
60 ~ 69	32(24.1)	64(48.1)	36(27.1)	1(0.8)	0(0.0)	133(100.0)
70세 이상	4(28.6)	4(28.6)	5(35.7)	1(7.1)	0(0.0)	14(100.0)
계	205(24.7)	400(48.1)	205(24.7)	19(2.3)	2(0.3)	831(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2-31 연령별 농민의 영농의욕 정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연령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계
29세 이하	0(0.0)	0(0.0)	6(17.1)	21(60.0)	8(22.9)	35(100.0)
30 ~ 39	2(2.5)	5(6.2)	16(20.0)	40(49.4)	18(22.2)	81(100.0)
40 ~ 49	3(2.0)	10(6.5)	39(25.5)	64(41.8)	37(24.2)	153(100.0)
50 ~ 59	8(1.9)	21(5.0)	100(23.9)	188(45.0)	101(24.2)	418(100.0)
60 ~ 69	2(1.5)	8(6.0)	23(17.3)	66(49.6)	34(25.6)	133(100.0)
70세 이상	2(14.3)	2(14.3)	5(35.7)	4(28.6)	1(7.1)	14(100.0)
계	17(2.0)	46(5.5)	189(22.7)	383(45.9)	199(23.9)	834(100.0)

\* 무응답자 제외.

가 14.5%, 겸업이 22.5%, 전직이 16%, 은퇴가 12.6%, 현상유지가 34.4%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영농 규모 확대, 겸업, 현상 유지를 합하면 71.4%가 어떤 형태로든 영농을 계속하려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9세 이하는 겸업의 향이, 50세 이상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2-33〉에서는 이들에게 직업을 다시 택할 수 있다면 농사를 짓겠느냐는 질문을 해본 결과 불과 30.2%만이 다시 직업선택의 기회가 있

표 2-32 연령별 농민의 앞으로의 계획\*

단위: 명 (%)

연령별	영농규모확대	겸업	전직	은퇴	현상유지	계
29세 이하	8(18.2)	11(25.0)	9(20.5)	5(11.4)	11(25.0)	44(100.0)
30~39	19(22.9)	35(42.2)	19(22.9)	1(1.2)	9(10.8)	83(100.0)
40~49	32(20.9)	58(37.9)	28(18.3)	8(5.2)	27(17.7)	153(100.0)
50~59	51(12.4)	71(17.2)	67(16.2)	45(10.9)	179(43.3)	413(100.0)
60~69	10(7.5)	10(7.5)	10(7.5)	46(34.3)	58(43.3)	134(100.0)
70세 이상	2(15.4)	4(30.8)	1(7.7)	1(7.7)	5(38.5)	13(100.0)
계	122(14.5)	189(22.5)	134(16.0)	106(12.6)	289(34.4)	840(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2-33 연령별 다시 농사를 짓겠는지 여부\*

단위: 명 (%)

연령별	짓겠다	짓지 않겠다	계
29세 이하	8(21.6)	2(78.4)	37(100.0)
30 ~ 39	33(41.8)	46(58.2)	79(100.0)
40 ~ 49	35(23.3)	115(76.7)	150(100.0)
50 ~ 59	117(29.9)	275(70.2)	392(100.0)
60 ~ 69	41(34.2)	79(65.8)	120(100.0)
70세 이상	5(38.5)	8(61.5)	13(100.0)
계	239(30.2)	552(69.8)	791(100.0)

\* 무응답자 제외.

어도 농업을 택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결국 농어민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가장 열위이며 가장 장래성이 없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이동하려는, 소위 사기저하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라. 영농후계자 확보 곤란

지금의 우리나라 농어촌 인력 감소 현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물리적, 심리적 농촌사회에의 영향은 곧 농어촌 후계인력의 확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영농후계자 육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업발전의 정체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농어민 후계인력확보를 저해하게 되는 요인들 중에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선은 농어촌인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절대수 부족에 원인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연령계층별 농어업 취업자수를 논의하였으며 이들 남아있는 농어촌 젊은이들 중에서도 농어업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점 또한 논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겠다는 의욕이 감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정책적 특혜나 선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며 장기적이고 확실한 농업의 장래를 제시하고 정책적 의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만 분위기의 변화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은 우리 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광범위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이며 오히려 UR협상이나 국제화 사회로의 발전의 영향으로 그 조건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 위해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게 그이유를 물어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농업의 수지문제(가격 불안정, 저소득등), 농사일이 힘들어서, 그리고 농사는 장래성이 없어서등 농업적 이유를 내세운 사람이 37.3%나 되었다. 한편 자녀가 도시로 나가거나 타분야에 취업한 경우, 자녀가 농업을 원치 않는 경우, 또 자녀의 적성이 맞

표 2-34 후계자가 없는 이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농업의 수지문제(가격불안정, 저소득)	149	25.9
농업의 힘듦	30	5.2
농업의 장래성 없음	36	6.2
농촌생활을 싫어함(농촌 저발전)	21	3.6
자녀의 적성이 농업에 안맞음	10	1.7
자녀가 도시에 나가거나 타분야 취업	180	31.3
자녀가 원치않음	81	14.1
해당없음(자녀가 없거나 어림)	66	11.5
기타	3	0.5
계	576	100.0

\* 무응답자 제외.

지않는 등 자녀들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경우가 47.1%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이농이나 타산업분야로의 진출이 농업부문의 후계자 확보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업이 결코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직업적 매력이나 성취동기 유발이 없다는 점을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와같은 원인들 때문에 영농후계자 확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농가의 영농후계자 확보 비율을 살펴보면 <표 2-35>와 같이 후계자를 확정한 농가가 1980에는 43.3%, 1985년에는 24.0%가 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의 농업센서스와 같이 농업센서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표 2-36>과 같이 50세 이상의 응답자 조사 결과만을 살펴보면 50~59세에서는 13.5%, 60~69세에서는 17.5%만이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후계자확보가 현실적으로도 부진하고 젊은이들의 농업취업기피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기존농민들의 의사도 농업을 자녀에게 물려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표 2-35 농가의 영농후계자 확보정도

단위: 명 (%)

연 도	영 농 후 계 자 확 정 농 가			영 농 후 계 자 미 확 정 농 가	계
	14~17세후계자	18~40세후계자	소 계		
1980	236,874	695,526	932,400 (43.4%)	1,222,673 (56.7%)	2,155,073 (100.0%)
1985	75,192	387,885	463,077 (24.0%)	1,462,792 (76.0%)	1,925,869 (100.0%)

자료: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1980, 「간이 농업센서스」, 1985.

표 2-36 연령별 후계자 존재 여부\*

단위: 명 (%)

연 령 별	있 다	없 다	계
50 ~ 59세	53(13.5)	340(86.5)	393(100.0)
60 ~ 69세	21(17.5)	99(82.5)	120(100.0)
70세 이상	4(30.8)	9(69.2)	13(100.0)
계	78(11.8)	448(88.2)	526(100.0)

\* 무응답자와 49세 이하는 제외.

심해짐으로써 결국 우리 나라 농어촌은 농어업후계인력의 확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 4. 농업인력 확보와 육성의 필요성

##### 가. 신규인력 확보의 중요성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새로운 공급은 젊은 신규취농인력과 중견의 귀농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귀농에 의한 농업인력

은 대부분이 이농했다가 사업실패 또는 여건의 변화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며 한편에는 노령이 되어 직업을 퇴직하고 시골로(고향) 돌아와 취농하거나 현지에서 공공기관을 다니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농업이 주업으로 변하게 된 재촌지주였던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농업종사인력의 일부에 속하며 중요한 것은 농업에 의 기반을 상속에 의하여 물려받게된 농가상속 후계자와 농업계 교육 기관이나 농업관련단체를 통하여 영농을 희망하고 정착하게 되는 신규취농인력이다.

신규취농인력의 구성을 보면 <표 3-22>에서와 같이 1984년의 신규농업취업자중 농수산계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은 39.9%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부모로 부터의 영농상속이나 농업적 기반을 얻어 취업하게 되는 비농수산계 학교졸업자 또는 귀농한 장년층과 노년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2-6>과 같이 연령계층별 이농량을 보면 1980년에서 85년 사이의 신규취농자연령계층에 해당하는 26세미만의 젊은농민층 이농량이 전체 이농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신규농림어업 취업자 중 반수이상을 취업후 수년내에 이농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1984년의 농림어업취업자는 3,914,000명이었으며 89년에는 3,420,000명으로 그동안 약 50만명 정도가 감소하여 약13%나 감소했다. 그중에도 25세미만의 취업자 비중은 84년에 8.1%에서 89년에는 3.3%로 크게 줄어 상당한 이농이 이 젊은 계층에서 이루어져왔으며 신규취농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농업인력의 신규투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감소를 가져 왔으며 그것은 우선 농업계학교 졸업자의 영농취업이나 영농상속 또는 농업기반을 가진 새로운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둘 수 있다. 다음은 새로운 취업농민계층인 젊은이들이 수년내에 대거 이탈 농함으로써 결국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확보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론이다. 이제 우리 농업이 새로운 국제화시대를 맞아 경쟁에서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신규인력의 확보없이는 안된다. UR협상대책을 위한 작업반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1989년 현재의 농림어업취업자 3,276,000명이 2001년에는 2,034,000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취업구조가 노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책적으로 중요한 구조개선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층의 은퇴를 촉진하고 젊은이의 취업을 장려하여 1,660,000명 수준의 취업인구중 45세미만을 634,000명(38.2%)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세치에 비해 44세미만의 농업인력을 최소한도 324,000명을 더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은 농업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을 우리 농업의 기존상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와같이 신규인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의 농업문제는 매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지만 특히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농

표 2-37 농림어업 취업자 조정 필요규모

단위: 천명 (%)

연 도	1989	2001				비 고
		추 세	목 표	조 정 량		
15~19세	26(4.3)	2(0.4)	16(3)	14		
20 ~ 24	75(4.2)	5(0.2)	65(3)	60		
25 ~ 29	156(6.0)	12(0.5)	105(4)	93		
30 ~ 34	245(9.0)	36(1.2)	119(4)	83		
35 ~ 39	262(12.5)	94(3.1)	152(5)	58		
40 ~ 44	311(15.5)	161(5.5)	177(6)	16		
45 ~ 49	418(23.2)	189(8.0)	189(8)	0		
50 ~ 54	571(35.3)	216(12.2)	140(10)	-76		
55 ~ 59	470(44.0)	279(21.0)	157(15)	-122		
60세이상	743(62.1)	1,040(63.5)	540(28)	-500		
계	3,276(18.7)	2,034(9.5)	1,660(7.8)	-374		

자료: UR이후 대책반, 1990.

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즉 농업의 대를 잊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의 우리 농업은 과잉취업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이제 신규취업인구의 절대부족과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직면하여 농업의 지속적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노동력의 확보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기존의 농지와 국가재산으로서의 농업하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농토는 농민의 손으로 계속 가꾸어져야만 한다. 생산성을 가지는 농토로 개발되어진 우리의 농토를 인력이 없어서 다시 폐허로 되돌려 버린다는 것은 국가적 재산의 손실이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국민자존과 국가존립을 위협받게 되는 失政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농토를 유지하고 농지기반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력은 계속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 농민들이 그 농지를 이용함에 충분한 경제적 생활수준유지와 농어촌정주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도 물론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신규농업인력의 확보와 농업인력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새로운 국제화사회,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기를 맞아 크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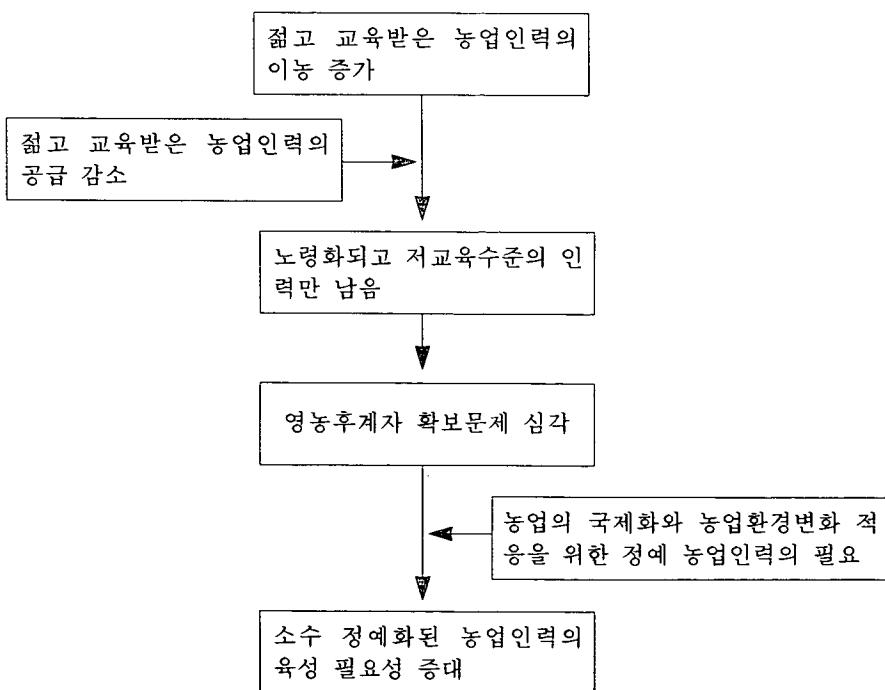
#### 나.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

농업인력은 신규취업을 통한 영농후계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신규인력을 육성하여 영농정책에 성공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영농후계자들이 수년내에 농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농하는 경향이 높고 젊은층의 농민들의 이탈농이 많은 것은 영농인력육성차원에서 다루어야만 할 중대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 협상타결이 눈앞에 다가온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산물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을 이루기 위해 기술과 경영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서 농업인력의 육성问题是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우리나라

라의 농업인력감소로부터 후계인력확보 및 정예농민육성의 필요성에 이르는 일련의 문제고리를 정리해 보면 <그림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농업인력의 감소로인한 문제에서도 특히 젊고 교육받은 인력들이 농업에 비전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어 신규취농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취농한 사람까지도 타산업분야로 이농하게 됨으로써 영농후계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잔존하고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노령 부녀자화 됨은 물론 질적저하를 면치 못하게 된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농업은 이제 새로운 국제화 시대를 맞아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UR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농업의 형태나

그림 2-4 농업인력의 문제 상황과 소수정예 농업인력 육성 필요성



적응방법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왔으나 이와같이 노령, 부녀자화 되고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진 노동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농어민후계자 확보대책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대응가능한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정예화된 농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정예화된 농민을 강조하는 의미는 두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나는 영농후계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농업에 정착할 사람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농업 교육과 확실한 영농지원을 통하여 기간영농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영농종사자 중에서 기반을 갖추고 농업으로의 성장가능성과 의욕이 있는 농민을 선별적으로 집중지원함으로써 고도의 기술습득은 물론 새로운 농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해 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곧 우리농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본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며 우리 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다.

### 第 3 章

## 農業人力 確保方案

### 1. 농업인력 확보 기본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예 농업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정예농업인력 확보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예 농업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력은 양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고 질적으로도 기존의 고령 인구가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되어,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우리나라가 시급히 요구하는 농업 구조 개선 사업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수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정예 농업 인력 확보의 방향은 첫째, 적정수의 젊은 영농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젊은 영농인들이 과소 취업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고 적정수의 젊은 영농인이 취농을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질적으로 우수하고 영농에 대한 의욕이 강한 젊은 인력을 농업으로 유인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경지규모가 적은 등 영농기반이 부족하거나, 영농의욕이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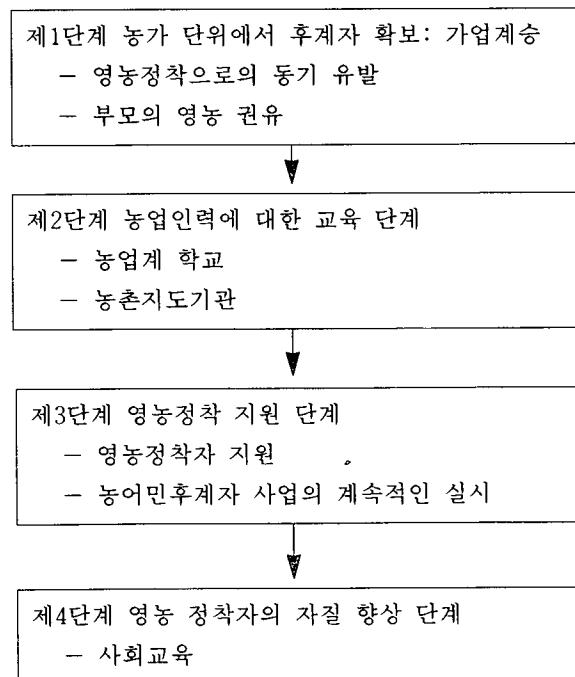
청년층의 유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영농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이들이 완전히 정착에 성공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령취업자의 은퇴를 위한 대책은 별도의 추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방향에 비추어 정예 농업 인력 확보단계를 <그림 3-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농가 단위에서의 영농 후계자 확보단계이다. 영농 기반이 튼튼하고 상당한 농업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자녀들이 영농 정착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농지등의 상속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정한 농지 규모를 갖추도록 하게 한다.

제2단계는 영농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단계이다. 영농 희

그림 3-1 정예 농업인력 육성단계



망자에 대하여 농업계 학교기관이나 농촌지도 기관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소수정예 위주로 실시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영농 정착 지원 단계이다. 영농을 희망하고, 철저한 영농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농 정착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영농정착자의 성공정착으로의 유도단계이다. 이것은 영농 정착자들이 초기 정착을 한 이후 경험이나 기술등을 갖추어 완전 성공 정착으로 유도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완전성공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훈련은 물론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방안도 포함된다.

농가설문조사 결과 미래의 정예 농민 확보방안으로서 정부, 학교, 부모, 청년, 기타관련자가 할 일을 정리해보면 <표 3-1>에서 <표 3-6> 까지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미래 영농인 확보를 위하여는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 농업소득증대가 가장 높고, 후계자 제도의 계속적 실시, 농민의

표 3-1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 방법\*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농업계 학교교육의 강화	31	7.3
위탁영농회사 설립, 운영	25	5.9
농민 지위 향상	47	11.1
후계자 제도 계속 운영	58	13.7
농과계 졸업생 지원 자금 지원 미비	15	3.5
청년영농인 사기 앙양	11	2.6
전문영농인 양성	28	6.6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 농업소득 증대	204	48.2
기타(농산물 수입 금지)	4	0.9
계	423	100.0

\* 무응답자 제외.

지위향상, 농업계 학교의 교육 강화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역할로는 역시 중농정책이 가장 높았으며, 후계자 제도의 계속적인 실시, 영농정책 지원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후계자의 계속적인 육성	73	14.3	
중농정책, 농민의 사기 양양	275	53.9	
농업계 학교 지원	13	2.5	
청년의 결혼문제 해결	19	3.7	
교육 지도사업 개선	17	3.3	
영농정책 지원, 재정지원 강화	67	13.1	
대농민 정신교육 강화	3	0.6	
경작면적 확대, 적정인구 확보	43	8.4	
계	510	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3-3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의 역할\*

항	목	빈 도	백 분 비
교육내용의 개선	131	30.4	
학생정신의 고취	44	10.2	
영농인 양성 강조	86	20.0	
시설의 확충	13	3.0	
적격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 확대	43	10.0	
병역면제 기타 지원 강화	14	3.2	
졸업생 영농정책 지원 강화	55	12.8	
현지지역 설정 고려 강화 중농정책	30	7.0	
기타(학교 교사 등의 문제)	15	3.5	
계	431	100.0	

\* 무응답자 제외.

농업계 각급 학교는 교육내용을 개선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급 시설의 확충, 영농인 양성기능 강조, 우수학생 유치방안(예:장학금 지원확대) 강구, 졸업생영농정착지원강화, 학생정신면에서의 지도 등을 높게 반응하고 있었다.

표 3-4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농가부모의 역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본인의 농업관 확립		28	10.9
자녀 의식구조 변화		23	8.9
농업의 성공가능성 설명		15	5.8
농업의 장점을 설명(중요성 설명)		20	7.8
농업의 욕이 있는 자녀에게 농사 물려주고 지원		65	25.2
자녀 영농 권유		53	20.5
자녀에게 영농경험 체험케		13	5.0
영농소득 증대		29	11.2
기타(분위기 조성 등)		12	8.3
계		258	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3-5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젊은이의 역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애국적 차원에서 농촌에 정착		37	14.1
농업의 중요성 느끼고 긍지가져야		43	16.4
농업발전에 대한 신념, 가치관 정립		69	26.3
노력, 열심히 하는 자세		63	24.0
배우려는 자세		29	11.1
도시에서 귀농		7	2.7
협 동		4	1.5
기 타		10	3.8
계		262	100.0

\* 무응답자 제외.

농가부모는 농업의욕이 있는 자녀에게 영농을 계승시키고 지원을 하며, 실제로 머뭇거리는 자녀에게 영농을 권유하며, 그전에 자신이 영농으로 성공하고, 어릴때부터 자녀에게 영농으로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청년들 자신들도 애국적인 차원에서 영농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고 농업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들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 이외의 관련자들은 미래의 영농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을 하거나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 주어야 함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밖에 농촌지도소, 농협등이 미래 영농인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3-6 미래의 정예 영농인 확보를 위한 기타 관련자의 역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국민들이 농업 이해, 지원		65		26.3		
농촌 청년 결혼문제 해결		18		7.3		
농촌지도소 선진기술 보급		16		6.5		
농협의 역할 증대		14		5.7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 먹기		59		23.9		
젊은이에게 힘과 용기를		20		8.1		
국민들이 농기계 지원, 유통 지원		22		8.9		
영농인의 기반 마련해 주어야		25		10.1		
기 타(방송의 공정보도 등)		8		3.1		
.	계		247		100.0	

\* 무응답자 제외.

## 2. 농가 단위에서 후계인력 확보방안

### 가. 자녀의 직업선택에서 가정환경 요인의 중요성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작용을 하는 많은 요인(예 : 적성, 흥미, 성격, 학교교육,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 요인이 중요하다. 각종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자녀의 직업선택에 관련된 가정 환경요인은 다음과 같다(이영대, 1981).

① 부모의 직업, ② 부모의 학력 정도, ③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사회계층), ④ 부모의 의견, ⑤ 거주지(도시, 농촌여부), ⑥ 가족 구성, ⑦ 가족과의 연계 정도, ⑧ 직업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⑨ 기타 가정적 배경이다.

특히 영농정착과 관련하여 부모의 직업 등 가정변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영대, 1981).

① 부모의 학력, ② 부모의 직업(농업여부), ③ 가족구성(형제서열 등), ④ 부모의 경지규모, 소작면적 비율, 가정의 경제적 형편 정도, 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직업기대(농업여부), 농업을 하도록 압력을 주는지 여부, ⑥ 부모의 지원정도, ⑦ 가정의 사회적 풍토, 가치지향성, 의사교환구조 등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영농 정착에 유리한 가정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이영대, 1981).

①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 ② 농촌지역에서 거주하였거나 학교를 다닌 사람, ③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부모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소작을 하지 않는 사람, ⑤ 소농보다는 중·대농 가의 자녀인 사람, ⑥ 농업경영을 잘 하는 가정의 자녀인 사람, ⑦ 농가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정의 자녀인 사람, ⑧ 형제수가 적은 사람,

⑨ 장남인 사람, ⑩ 부모가 자녀의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등으로, 영농정착에 유리한 가정환경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기존 농민들의 영농정착과 가정환경 요인의 중요성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농에 정착하였나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부모의 직업은 <표 3-7>과 같이 89.9%가 농업이었으므로 역시 농민의 자녀가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의 생활수준을 보면 <표 3-8>과 같이 상이 19.9%, 중이 49.9%, 하가 30.2%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중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이 영농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표 3-9>는 영농 종사자의 형제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총 형제수(전부 남자 형제수만 나타내는 것임)는 2.98명, 그 중 상속형제수는 70.1%인 2.09명, 영농 형제수는 49.3%인 1.47명이었다. 형제서열을 보면 1.67번째가 평균인 바, 장남과 차남의 중간 정도였다.

이들은 왜 영농에 정착을 하였는가? <표 3-10>과 같이 가장 큰 이유

표 3-7 연령별 부모의 직업\*

단위: 명 (%)

연령별	농업	비농업	계
29세 이하	43(97.7)	1(2.3)	44(100.0)
30~39	75(90.4)	8(9.6)	83(100.0)
40~49	137(87.8)	19(12.2)	156(100.0)
50~59	374(89.7)	43(2.3)	417(100.0)
60~69	119(90.2)	13(9.9)	132(100.0)
70세 이상	12(92.3)	1(7.7)	13(100.0)
계	760(89.9)	85(10.1)	846(100.0)

\* 무응답자 제외.

가 장남이어서,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으로가 전체의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사를 물려받아야,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가 22.1%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50.9%가 가정적 이유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농촌의 장점, 고향을 지키고자가 8.9%, 도시 진출이나 타산업 취업곤란이 8.1%, 농장의 꿈, 돈을 벌고자가 7.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표 3-8 연령별 부모의 생활수준\*

단위: 명 (%)

연령별	상	중	하	계
29세 이하	4(9.3)	21(48.8)	18(41.9)	43(100.0)
30~39	15(18.1)	40(48.2)	28(33.7)	83(100.0)
40~49	26(16.7)	73(46.8)	57(36.5)	156(100.0)
50~59	95(22.7)	209(50.0)	114(27.3)	418(100.0)
60~69	27(20.8)	70(53.9)	33(25.4)	130(100.0)
70세이상	1(7.1)	8(57.1)	5(35.7)	14(100.0)
계	168(19.9)	421(49.9)	255(30.2)	844(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3-9 연령별 형제 관계\*

단위: 명 (%)

연령별	총 형제 수	상속형제수	영농형제수	본인의 형제서열
20세 이하	2.80	1.70(60.7%)	1.50(53.6%)	1.67번째
30~39	3.29	1.98(60.2%)	1.41(42.9%)	2.03번째
40~49	2.97	2.00(67.3%)	1.40(47.1%)	1.58번째
50~59	2.94	2.09(71.1%)	1.51(51.4%)	1.64번째
60~69	3.02	2.31(76.5%)	1.50(49.7%)	1.71번째
70세 이상	2.67	1.83(68.5%)	1.25(46.8%)	1.45번째
계	2.98	2.09(70.1%)	1.47(49.3%)	1.67번째

\* 무응답자 제외.

표 3-10 농민의 영농정착 계기\*

단위: 명 (%)

항	목	빈도	백분비
농장의 꿈, 돈을 벌고자		68	7.1
농업이 좋아서, 농업에 자신이 있어서		40	4.2
농업의 장점, 장래성, 편함, 중요성		23	2.4
농촌의 장점, 고향을 지키고자		85	8.9
농업계 학교교육을 받아서		10	1.0
농사를 물려받아야,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211	22.1
장남이어서, 부모를 모셔야 함		275	28.8
사업이나 다른 직업에 실패		15	1.6
도시 진출이나 타산업 취업 곤란		77	8.1
몸이 아파서		10	1.0
못 배워서, 진학을 못하여		37	3.9
공직퇴직후		20	2.1
농토가 있어서		11	1.2
부득이한 사정		17	1.8
그 당시에는 농업뿐이었음		10	1.0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15	1.6
농촌에 살기에		6	0.6
기타		24	2.6
계		954	100.0

\* 복수응답한 자료임.

다. 또 농업이 좋아서, 농업에 자신이 있어서는 4.2%, 못 배워서, 진학을 못하여가 3.9%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 영농 정착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1〉과 같이 농촌노부모를 위한 봉양이 23.8%,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좋아서 13.4%, 본인의 의사대로 경영이 가능하며, 능력에 따라 성공가능이 1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은 농업의 안정성을, 40~69세는 농촌 노부모부양을 위해, 30~39세는 본

표 3-11 영농정착 이유

이유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단위: %
							계
농업이 직업으로서 안정성이 있어서	7.4	4.2	3.1	6.6	8.6	26.1	6.2
본인의 의사대로 경영이 가능하며 능력에 따라 성공이 가능	14.7	19.2	11.5	9.2	7.1	8.7	11.2
농업에 대하여 적성이 맞아서	22.9	8.0	5.2	3.7	6.1	4.3	5.0
농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좋아서	19.1	16.9	17.4	10.8	10.7	8.7	13.4
부모 또는 친척의 권유	7.4	5.2	10.1	10.5	7.1	8.7	9.0
농지 상속에 의한 영농	8.8	6.6	7.7	9.7	13.2	13.0	9.3
농촌 노부모를 위한 봉양	19.1	18.3	21.3	27.5	24.4	17.4	23.8
농업계 학교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1.5	5.6	7.0	5.0	3.6	0.0	5.1
교사 및 교수의 영향과 지도를 받아서	0.0	1.9	1.4	1.0	0.5	0.0	1.1
농업이외의 직업에서 실패를 하였기에	0.0	2.3	2.8	1.9	3.0	0.0	2.1
도시생활에 실패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2.9	4.7	2.8	1.9	3.0	4.4	2.8
배운 것이 없어서	14.7	5.6	9.1	10.0	11.7	4.4	9.5
기타	1.5	1.4	0.7	2.1	2.0	4.4	1.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응답자수*	68	213	287	619	197	23	1,407

\* 복수응답하였음.

표 3-12 농민의 자녀중 농업 비종사 이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농업의 문제(고달픔, 희망없음, 저소득)	198	31.9
농촌의 문제(자녀교육 등)	57	9.2
개인의 문제(적성, 흥미, 다른교육 이수)	181	29.1
농경지의 부족(가정의 문제)	139	22.4
차남이하이어서	19	3.1
농사짓는 형제가 많아서	13	2.1
농업의 사회적 신분저위	7	1.1
농업에 실패하여서	1	0.2
기 타	6	0.9
계	621	100.0

\* 무응답자 제외.

인의 의사대로 경영가능, 29세 이하는 농업이 적성에 맞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민 자녀 중 50.7%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들의 농업 비종사 이유는 <표 3-12>와 같이 농업의 문제(고달픔, 희망 없음, 저소득)가 31.9%로 가장 높았고, 비농업 종사 개인의 문제(적성, 흥미가 없음, 다른 교육 이수함)가 29.1%, 가정의 농경지 부족 등 가정여건이 영농에 부적합이 2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다. 농가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농권유 의사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청소년의 진로 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농가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농을 무조건 반대만 말고 자녀가 희망하고 적성이 맞는 경우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의 부모들 가운데 자녀에게 영농을 시키려는 비율은 낮은 편일

것이다. 농업은 나의 대로 끝이며 자식만은 농업을 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표 3-13〉은 지난 1958년에서부터 1984년까지 농촌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직업기대인데 1965년의 경우 52%의 농촌부모가 자녀에게 농업을 시키기를 바랐으나 점차 그 비율이 떨어져서 1984년에는 5.9%에 불과

표 3-13 자녀에게 희망하는 직업의 변화, 1958~84

單位: % (名)

		1958 <sup>1)</sup>	1965 <sup>2)</sup>	1974 <sup>3)</sup>	1978 <sup>4)</sup>	1979 <sup>5)</sup>	1982 <sup>6)</sup>	1984 <sup>7)</sup>
농업		29.4	52.1	27.1	6.7	12.8	8.7	5.9
비	소계	70.6	47.9	72.9	93.3	98.2	91.3	94.1
비	교사	-	1.2	9.6	9.4	9.5	9.8	6.3
농	공무원	10.7	12.1	-	23.1	12.8	27.2	25.5
직업	상업	19.1	7.9	16.5	9.5	2.2	15.8	5.0
농	회사원	14.4	10.3	-	23.2	2.9	9.0	17.6
직업	의사, 간호원	-	-	-	6.2	-	3.0	2.1
농	정치가, 법관	9.2	-	6.9	-	6.2	2.3	11.8
직업	기술자	10.7	10.9	25.0	15.2	30.8	10.2	19.7
농	기타	6.6	5.5	14.9	6.7	33.8	14.0	6.1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인원수)		(272)	(165)	(253)	(1,500)	-	(793)	(239)

- 자료 1) 이만갑,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총서 제5집, 1960.  
 2) 노창섭 외, 「개발과정에 있는 농촌사회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65.  
 3) 함종한·정지웅, “농촌현장 실습 부락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전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6권1호, 1974.  
 4) 최민호 외, “농촌 청소년 선도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과대학, 1978.  
 5) 이동규, “농민의 사회관과 교육관,” 농촌경제 제2권 제1호, 1979.  
 6) 홍성찬, “구역말지역의 농업종합개발계획,”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7권 4호, 1982.  
 7) 박평식, “농가의 교육투자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하였으며 이 비율은 더욱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는 이유로 들 수 있는 유형은 ① 농업의 유리점, 안정성, 중요성, ② 농촌의 공기가 좋음 등의 유리점, ③ 고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④ 가정적 이유(예: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 ⑤ 자녀의 이유(자녀가 영농에 적합하고, 영농을 희망, 농업계 학교 교육을 배웠기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이 고려되어 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농을 권유하여야겠다.

반면 농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영농을 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많은데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① 농업의 소득과 수익성의 저위, ② 농업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듬, ③ 농업이 발전성과 안정성이 없음 등의 농업적 요인, ④ 농민의 사회적 지위 저하, ⑤ 정부의 농업정책의 문제 등이 있다. 농업이외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① 자녀들이 영농정착을 기피, ② 농촌의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젊은이들이 영농을 기피하는 점, ③ 농가의 경지규모가 적어 자녀가 영농을 할 여유가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는 농업의 소득과 수익성 저하일 것이다. 더구나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농업소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음의 이유로는 농업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듦인데 농업기계화의 추진으로 이분야도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

#### 라. 농가 단위에서 후계인력 확보방안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자녀들에게 영농을 권유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나라의 농업을 미래에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누군가는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적임자인가?

영농기반이 취약한 영세농의 자녀는 가능한 한 영농으로 유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상당한 농업 소득을 올리는 유망한 농가의 자녀 중에서 1명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 영농인을 정착으로 유인하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다. <표 3-14>는 농민들이 어떤 조건이면 자녀에게 영농을 시키겠는가를 조사한 결과인데 농업의 수익성, 소득증가, 가격안정, 전망이 있어야, 힘이 덜 들어야, 안정성이 있어야 등 농업의 여건개선이 49.9%나 되었으며 그 밖에 중농정책(획기적인 지원강화, 확실한 농업정책)이 14.5%, 농업기반 정비 7.5%, 농민우대, 사기앙양, 국민의 인식 전환 6.6%, 영농규모 확대 6.1% 등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 다음과 같은 단계별 농가내에서 후계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제1단계는 농가부모 자신들이 먼저 농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표 3-15>는 농업의 조건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표 3-14 자녀의 영농정착 전제조건\*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농업의 수익성, 소득 증가, 가격 안정	76	33.3
농업의 전망이 있어야	14	6.1
농업이 힘이 덜 들어야	6	2.6
농업이 안전성이 있어야	18	7.9
농업기반 정비(기계화, 경지정리)	17	7.5
영농규모 확대	14	6.1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2	0.9
농민 우대, 사기 앙양, 국민의 인식 전환	15	6.6
중농정책(획기적인 지원, 확실한 농업정책)	33	14.5
농민복지 증진	3	1.3
농촌의 생활여건 향상	30	13.2
계	228	100.0

\* 무응답자 제외.

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농업의 장래성, 발전가능성, 소득(수입), 사회적 인정(명예)의 순으로 나쁘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인간관계, 휴식시간, 신체적 위험, 안정성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바 농가부모부터가 먼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겠다.

농가부모 자신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농업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

표 3-15 농업의 조건에 대한 의견<sup>1)</sup>

단위: 명 (%), 점

농업조건	나쁘다고 봄	보통	좋다고 봄	계	평균점수 <sup>2)</sup>
작업환경 조건	397 (49.6)	347 (43.4)	56 (7.0)	800 (100.0)	1.58
신체적 위험도	294 (37.5)	432 (55.0)	59 (7.5)	785 (100.0)	1.70
작업량	384 (49.8)	351 (45.5)	36 (4.7)	771 (100.0)	1.55
정신적 스트레스	362 (46.9)	330 (42.8)	80 (10.4)	772 (100.0)	1.63
일의 종류나 다양성	317 (42.7)	367 (49.4)	59 (7.9)	743 (100.0)	1.65
근로시간	404 (53.0)	307 (40.2)	52 (6.8)	763 (100.0)	1.54
휴식시간	268 (35.3)	366 (48.2)	125 (16.5)	759 (100.0)	1.81
안전성	364 (47.8)	291 (38.2)	107 (14.0)	762 (100.0)	1.66
사회적 인정(명예)	548 (72.1)	173 (22.8)	39 (5.1)	760 (100.0)	1.33
성취감(보람)	376 (49.9)	309 (41.0)	69 (9.2)	754 (100.0)	1.59
능력발휘 가능성	402 (53.2)	282 (37.3)	72 (9.5)	756 (100.0)	1.56
장래성	662 (85.1)	94 (12.1)	22 (2.8)	778 (100.0)	1.18
발전 가능성	598 (78.4)	131 (17.2)	34 (4.5)	763 (100.0)	1.26
소득(수입)	488 (74.7)	144 (22.1)	149 (22.8)	653 (100.0)	1.29
인간관계	122 (35.1)	148 (42.5)	78 (22.4)	348 (100.0)	1.92

1) 무응답자 제외.

2) 점수산정방법: 나쁘다고 봄 1점, 보통 2점, 좋다고 봄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냄.

여 반드시 실시되는 것이 아님이 현실이다.

제2단계는 농가의 부모 자신들이 농업으로 성공하여 농업 소득만으로도 도시의 웬만한 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겠다. 이것을 보고 농가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 고생을 하기 보다는 부모의 농업을 계승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겠다. 유럽의 경우 농가의 자녀들이 서로 부모의 농사를 물려받으려 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 나라도 되어야 되겠다.

제3단계는 부모가 자녀의 영농 동기를 유도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농업의 장점(경제적인 혹은 비경제적인)을 설명하고 농업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자녀의 영농 동기를 유발하여야 겠다. 그 한 방안으로서 현재 1개 부락에 수십 명이 경영하는 농업경영규모를 20년만 지나고 나면 현재 취농을 하는 젊은 사람 1~2명이 다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영농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자녀의 영농의향을 고취시켜야 한다. <표 3-16>과 같이 영농인이 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하려는 본인의 생각

표 3-16 영농인이 되는 조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토지의 상속		296	6.8
충분한 자금		796	18.3
영농하려는 본인의 생각과 굳은 결심		1,160	26.8
기술을 충분히 배움		603	13.9
부모의 지원과 동의		151	3.5
농산물 가격의 안정		1,012	23.3
정부의 후계자에 대한 지원		321	7.4
계		4,339	100.0

자료: 송해균 외, 「2000년대 농업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 1989.

과 굳은 결심이 높게 나타나 이와 일치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적극적으로 영농을 권유하고 준비시킨다. 자녀들이 영농 정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 적극적으로 영농을 권유한다. 도시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규모의 농토를 갖고 농사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영농을 권장한다.

또 영농정착을 자녀들이 원할 때 부모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적성이 맞고 영농에 종사하여 성공 가능한 자녀에게 영농을 권유하여야 겠다.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영농인의 영농이유 중에는 <표 3-17>과 같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이 때문이 41%, 영농발전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 21%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농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영농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야 하겠다.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농에 관한 경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농기술을 습득시킨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린시절부터 영농 성공사례를 소개한다든지, 독농가 견학 등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업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고 가정내에서 농사기술도

표 3-17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정착 동기

단위: 명, %

영 농 정 착 동 기	빈 도	백 분 비
영농발전에 대한 사명감	27	21.4
흥미와 적성이 맞음	52	41.3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16	12.7
다른 할 일이 없어서	17	13.5
토지상속 때문	14	11.1
계	126	100.0

자료: 조영철·김성수,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정착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2, 1987.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농을 하려는 자녀에게는 4-H 활동을 권유하고 농업계 학교교육을 권유하여야 하겠다.

제5단계는 영농정착을 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농지규모를 갖도록 하여야 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농민들은 자녀에 대한 상속과정에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자 상속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영농후계자가 된 상속인이 타 상속인의 상속 농지를 구입할 경우 상속 농지 매매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농지구입용 금융지원이 추진되어야 겠다. 즉 정부는 영농 자녀의 농지상속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겠다.

〈표 3-18〉은 이와 관련하여 연령별 영농정착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62.2%가 부모의 농사를 물려받았으며, 18.8%가 분가하였다.

표 3-18 연령별 영농정착 방법\*

단위: 명, (%)

연령별	분 가	부모님의 농사 물려 받음	타직업 종사 하다가 전업	계
29세 이하	6(13.6)	32(72.7)	6(13.6)	44(100.0)
30~39	14(18.4)	41(53.9)	21(27.6)	76(100.0)
40~49	29(19.2)	95(62.9)	27(17.9)	151(100.0)
50~59	72(17.4)	278(67.2)	64(15.5)	414(100.0)
60~69	34(25.8)	63(47.7)	35(26.5)	132(100.0)
70세 이상	1(7.1)	8(57.1)	5(35.7)	14(100.0)
계	156(18.8)	517(62.2)	158(19.0)	831(100.0)

\* 무응답자 제외.

### 3. 정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

#### 가.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력 확보의 중요성

농가단위에서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상당한 농업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자녀들을 영농 정착으로 유도한 다음 단계는 이들 영농 희망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시키는 단계이다.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시키는 분야는 다양 한데 그 중에서도 농업계 학교 교육기관과 4-H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 영농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1987), 영농기술 습득방법은 <표 3-19>와 같이 4-H 과제 이수가 39.7%, 농고·농전교육이 39.7%, 기타 다른 교육이 17.5%로 나타나 학교교육과 4-H가 중요한 영농기술습득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농업계 각급 학교 교육기관 졸업생의 취농실태

우리 나라의 농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는 각급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각급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영농인을 양성하고 있다.

농업계 각급 교육기관을 통하여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

표 3-19 청년영농인의 기술습득방법

기술습득방법	빈도	백분비
농고·농전교육	50	39.7
4-H	50	39.7
기타 다른교육	22	17.5
교육 못 받음	4	3.1
계	126	100.0

자료: 조영철·김성수, 전계서.

들 중 실제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농업계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영농에 정착하는 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3-20〉와 같이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23.6%, 취업자의 29.0%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이며, 농업계 전문대학의 경우는 졸업자의 7.2%, 취업자의 25.2%, 농업계 대학의 경우 졸업자의 10.4% 와 취업자의 27.4%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는 1985년 이후에는 농업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1984년의 자료를 나타내었다)가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전체 졸업자중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각급 학교 졸업자중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 총수에서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자 출신은 인원으로는 매년 8천명 수준이며, 비율로는 4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0 농업계 각급 학교 졸업자의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단위: %

연 도	농업계 고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대학	
	졸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졸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졸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1981	22.4	75.1	6.2	22.4	7.8	18.2
1982	18.4	70.0	3.6	14.2	7.7	15.7
1983	23.9	73.6	6.6	25.9	8.8	21.9
1984	28.4	68.7	7.2	25.2	10.4	27.4
1985	32.4	71.9	N. A.	N. A.	N. A.	N. A.
1986	28.5	65.3	N. A.	N. A.	N. A.	N. A.
1987	31.4	54.2	N. A.	N. A.	N. A.	N. A.
1988	31.8	44.6	N. A.	N. A.	N. A.	N. A.
1989	30.4	38.7	N. A.	N. A.	N. A.	N. A.
1990	23.6	29.0	N. A.	N. A.	N. A.	N. A.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표 3-21〉은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중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수이고,  
 〈표 3-22〉는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중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의 비율이다.

그 결과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가운데 농수산계 학교교육을 이수한

표 3-21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 중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

단위: 명

연도	농업분야				수산분야				계 (A)	신규농림 어업취업 자 (B)	A/B (%)
	농고	농전	농대	소계	수고	수전	수대	소계			
1970	2,902	326	159	3,387	188	82	35	305	3,692	10,270	35.9
1971	3,509	140	264	3,913	169	94	32	295	4,208	13,868	30.3
1972	3,200	217	174	3,591	170	136	52	358	3,949	11,701	33.7
1973	3,233	344	224	3,801	275	192	86	553	4,354	17,141	24.8
1974	3,985	219	118	4,322	447	82	84	613	4,935	19,310	25.6
1975	4,217	37	130	4,384	623	70	99	792	5,176	20,622	25.1
1976	4,557	462	15	5,034	593	218	77	888	5,922	22,952	25.8
1977	4,500	503	196	5,199	699	243	55	997	6,196	21,858	28.3
1978	4,879	346	351	5,576	855	205	49	1,109	6,685	23,358	28.6
1979	4,977	366	260	5,603	775	294	35	1,104	6,707	21,655	31.0
1980	4,428	222	214	4,864	647	278	3	928	5,792	16,837	34.4
1981	4,861	191	251	5,303	477	133	9	619	5,922	17,510	33.8
1982	4,356	102	290	4,748	635	78	31	744	5,492	17,563	31.3
1983	5,654	254	349	6,257	700	106	17	823	7,080	19,052	37.2
1984	6,762	228	467	7,457	670	119	1	790	8,247	20,661	39.9
1985	7,264	1) -	2) -	-	915	-	-	-	-	20,831	-
1986	5,671	-	-	-	806	-	-	-	-	13,425	-
1987	6,257	-	-	-	1,060	-	-	-	-	13,418	-
1988	5,634	-	-	-	1,045	-	-	-	-	12,628	-
1989	5,101	-	-	-	1,594	-	-	-	-	13,098	-
1990	4,142	-	-	-	1,744	-	-	-	-	11,533	-

1) 1985년부터 전문대 이상의 계열별 분류가 변경되어 농·수산분야가 밝혀지지 않음.

2)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농림어업취업자수가 빠졌음.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자의 비율을 보면 <표 3-23>과 같이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가운데 농수산계 학교교육 이수자는 1980년의 경우 1.5% (남자가 2.6%, 여자가 0.1%)였다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는 조사 당시 경제활동 인구편에서 이 조사가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 1985년부터 이 분야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가운데 농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1.3%, 전문대, 초급대가 0.1%, 4년제 대학 이상이 0.1%로 각각 나타났다.

표 3-22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 중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의 비율\*

단위: %

	농업계 고교				수산계 고교				전체
	농고	농전	농대	소계	수고	수전	수대	소계	
1970	28.25	3.17	1.54	32.97	1.83	0.79	0.34	2.96	35.94
1971	25.30	1.00	1.90	28.21	1.21	0.67	0.23	2.12	30.34
1972	27.34	1.85	1.48	30.68	1.45	1.16	0.44	3.05	33.74
1973	18.86	2.00	1.30	22.17	1.60	1.12	0.50	3.22	25.40
1974	20.63	1.13	0.61	22.38	2.31	0.42	0.43	3.17	25.55
1975	20.44	0.17	0.63	21.25	3.02	0.33	0.48	3.84	25.09
1976	19.85	2.01	0.06	21.93	2.58	0.94	0.33	3.86	25.80
1977	20.58	2.30	0.89	23.78	3.19	1.11	0.25	4.56	28.34
1978	20.88	1.48	1.50	23.87	3.66	0.87	0.20	4.74	28.61
1979	22.98	1.69	1.20	25.87	3.57	1.35	0.16	5.09	30.97
1980	26.29	1.31	1.27	28.88	3.84	1.65	0.01	5.51	34.40
1981	27.76	1.09	1.43	30.28	2.72	0.75	0.05	3.53	33.82
1983	24.80	0.58	1.65	27.03	3.61	0.44	0.17	4.23	31.27
1984	32.72	1.10	2.26	36.09	3.24	0.57	0.00	3.82	39.91

\* 전체 신규 농림어업취업자 중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 비율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가운데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것은 농수산계 각급 학교 졸업생 가운데 농림 어업 취업자수가 매우 적기 때문인 것 같았다. 즉 〈표 3-24〉와 같이

표 3-23 농림어업 취업자 중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의 비율, 1980

단위: 명, %

구 분	농 림 어 취업자수 (A)	농 수 산 교 졸업자수 (B)	농 수 산 전 문 대 졸업자수 (C)	농 수 산 대 학 졸업자수 (D)	B + C + D = E	비 율			
						B/A	C/A	D/A	E/A
남	2,460,147	59,791	3,083	5,849	68,723	2.6	0.1	0.2	2.6
여	2,154,549	1,679	89	89	1,857	0.1	0.0	0.0	0.1
계	4,794,696	61,470	3,172	5,938	70,580	1.3	0.1	0.1	1.5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0.

표 3-24 농수산계 각급 학교졸업이 최종학력인자의 농림어업 취업 정도, 1980

단위: 명, %

구 분	농업계 고 교	농업계 초 급/ 전문대	농업계 대 학	수산계 고 교	수산계 초 급/ 전문대	수산계 대 학
졸업자 수 (A)	214,663	11,810	47,027	14,706	5,407	8,930
경제활동인구(B)	194,624	10,225	42,233	13,597	4,859	4,404
경제활동률(B/A)	90.7	86.6	89.8	92.5	89.9	94.1
취업자 수(C)	183,109	9,333	40,697	12,331	4,270	7,908
실업자 수(D)	11,515	892	1,536	1,266	589	496
실업률(D/B)	5.9	8.7	3.6	9.3	12.1	5.9
농림어업취업자(E)	56,532	2,200	4,876	3,705	494	263
농림어업취업률(E/C)	30.9	23.6	12.0	30.0	11.6	3.3
농림어업취업률(E/B)	29.0	21.5	11.5	27.2	10.2	3.1
농림어업취업률(E/A)	26.3	18.6	10.3	25.2	9.1	2.9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0.

농업계 고교 졸업을 최종 학력으로 가진 사람의 31.2%가 농업직에 종사하고, 농업계 전문대학의 23.8%, 농대의 12.0%, 수고의 30.0%, 수전의 11.6%, 수대의 3.3%이었다.

그러면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자는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가? <표 3-25>와 같이 농고와 수산고교 졸업자는 농림어업직에, 농전과 농대는 사무직에, 수전과 수대는 전문기술직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농수산계 각급학교 졸업생들은 농림어업직 이외의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 농림어업 취업자들 가운데 농수산계 학교 출신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 다. 농업계고교의 영농인 양성 미흡실태

앞에서 농업계 고교의 농림어업 취업실태를 살펴보았는데, 농업계 각급학교 가운데서도 신규 영농인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계 고교의 영농인 양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3-25 농수산계 각급 학교졸업이 최종학력인 자의 직종별 취업률, 1980

단위: %

구 분	농 고	농 전	농 대	수 고	수 전	수 대
전문기술직	3.7	15.5	25.4	7.6	26.8	37.4
행정관리직	1.1	2.1	6.1	1.3	1.9	8.2
사 무 직	19.9	33.6	33.2	17.7	20.0	29.5
판 매 직	13.4	11.8	12.9	7.9	10.9	8.2
서 비 스 직	6.1	4.4	3.2	4.3	4.0	2.3
농 업 직	31.2	23.8	12.0	30.0	11.6	3.3
생 산 직	24.5	8.7	7.1	31.2	24.8	11.1
전 체	99.9	99.9	99.9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0.

먼저 농업계 고교생의 영농희망률이 낮은 편이다. 농고생의 영농희망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3-26>과 같이 이용환의 조사(1975)에서는 영농희망률이 67%이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조사(1985)에서는 3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우 높은 편으로 예상되며 어떤 농고의 조사에서는 불과 4%인 경우도 있다.

농업계 고교생들이 영농정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농의 기반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과 정부의 영농자금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또 농업고교생들은 농업에 종사하여 충분한 수익을 올으면 영농에 종사하겠다는 응답도 하고 있었다. 또 농업고교생의 30% 정도의 학생은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충북 1985년 27.6%, 전남 1985년 23.2%).

다음은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살펴보자. <표 3-27>은 지난 1971년 이후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취업자의 비율은 최근 상승되나 3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취업자중 농업직 관계 취업자는 1985년까지 60~70%를 나타내다가 1990년에 들어서는 39.2%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 만큼 농업계 고교 졸업생들

표 3-26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영농정착에 대한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비
영농을 하고 싶고 여건도 되어 영농을 하겠다.	104	21.3
영농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어 취업하겠다.	223	45.7
영농여건은 되어 있으나 영농은 않겠다.	58	11.9
영농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80	16.4
장래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23	4.7
계	488	100.0

자료: 이용환, “자립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I),”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 1975.

의 비농업 분야에서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매년 4월의 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문교통계연보를 통하여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로와 취업실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2월 졸업자의 경우 <표 3-28>과 같이 81.2%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진학이 7.6%, 무직자가 3.2%, 입대자가 1.5%, 미상이 6.5%로 각각 나타나고 있었다. 취업자 가운데 전공분야 취업이 31.9%이며 49.4%는 비전공 분야 취업이었다. 전공분야 취업자보다 비전공

표 3-27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변화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A)	취업자 (B)	전공분야 취업자 (C)	C/A (%)	C/B (%)
1970	13,834	5,052	2,865	20.7	56.7
1975	17,942	6,766	4,214	23.5	62.3
1980	21,764	7,166	4,428	20.3	61.8
1985	22,451	10,103	7,868	35.0	77.9
1990	17,566	14,269	5,595	31.9	39.2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표 3-28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단위: 명, %

구분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상	계
		전공분야	비전공분야	계				
명	1,328	5,595	8,674	14,269	562	259	1,148	17,566
%	7.6	31.9	49.4	81.2	3.2	1.5	6.5	100.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분야 취업자가 1.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계 고교의 학과별 졸업자의 진로상황은 <표 3-29>와 같은데 학과별로는 취업률이 자영농과가 97.8%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농산제조과가 66.7%로 가장 낮았다. 반면 진학자는 농산제조과(23.0%), 농업기계과(9.6%), 농업토목과(8.9%)의 순이었다.

먼저 산업별 취업실태를 보면 30.1%만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표 3-30>), 직업별 취업실태를 보면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자가 29.0%를 나타내고 있어(<표 3-31>) 다른 산업이나 직업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29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진로 상황, 1990

단위: 명, (%)

학 과 별	졸업자	진 학 자	취 업 자
농산제조과	369	85(23.0)	246(66.7)
농업가정과	207	3(1.4)	169(81.6)
농업과	4,356	248(5.7)	3,546(81.4)
농업기계과	1,100	106(9.6)	881(80.1)
농업토목과	1,469	131(8.9)	1,172(79.8)
식품가공과	309	27(8.7)	250(80.9)
원예과	3,427	260(7.6)	2,827(82.5)
임업과	1,209	93(7.7)	920(76.0)
자영농과	540	3(0.6)	528(97.8)
잠업과	37	2(5.4)	35(94.6)
축산과	4,543	370(8.1)	3,695(81.3)
조원과*	-(-)	-(-)	-(-)
	17,566	1,328(7.6)	14,269(81.2)

\* 1990년 1학년 처음 입학.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3-30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 수	비율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4,291	30.1
광업	21	0.1
제조업	5,602	39.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40	2.4
건설업	645	4.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0	4.1
운수·창고 및 통신업	349	2.4
금융·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136	1.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25	7.9
기타	1,180	8.3
계	14,269	100.1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3-31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자(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 수	비율
전문직, 기술직 및 관련직 종사자	1,042	7.3
행정 및 관련직 종사자	66	0.5
사무직 및 사무관련직 종사자	565	4.0
서어비스직 종사자	1,214	8.5
판매종사자	1,025	7.2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종사자	4,142	29.0
생산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노무자	5,304	37.2
기타	831	5.8
군인	80	0.6
계	14,269	100.1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3-32 농업계고교 졸업자의 취업경로(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단위: 명, %

구 分	학 교 추 천	채 용 시 험	친구 및 친지소개	실 습	부모경영 사 업	자 영	기 타	계
빈 도	6,057	73	2,462	3,116	375	1,408	778	14,269
비 율	42.4	0.5	17.3	21.8	2.6	9.9	5.5	100.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3-33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내역(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구 分	학교수	3 학년 학생수 (A)	취업희망자수 (B)		취업확정 자 수 (C)		취업 율 (C/A)	취업율	
			취업 희망자 대 비 (C/B)	졸업생 대 비 (C/A)					
농 고	59	14,277	자 영	1,474	자	1,352	9.46	95.43	79.87
			동일계	3,213	동	3,175	22.23		
			타 계	7,263	타	6,877	48.16		
			계	11,950	계	11,404	79.87		
종 고	34	2,834	자 영	317	자	279	9.84	97.97	90.26
			동일계	535	동	512	18.06		
			타 계	1,759	타	1,767	62.35		
			계	2,611	계	2,558	90.26		
실 고	5	478	자 영	45	자	39	8.15	98.78	84.52
			동일계	63	동	56	11.71		
			타 계	301	타	309	64.64		
			계	409	계	404	84.5		
계	98	17,589	자 영	1,836	자	1,670	9.49	95.97	81.68
			동일계	3,811	동	3,743	21.28		
			타 계	9,323	타	8,953	50.90		
			계	14,970	계	14,366	81.68		

자료: 정성봉,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취업현황과 전망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4, 1990. p. 31.

취업자의 취업 경로는 〈표 3-32〉와 같이 학교 추천이 42.4%, 실습이 21.8%, 친구 및 친지 소개 17.3%, 자영이 9.9%, 부모 경영사업이 2.6%, 채용시험 0.5%, 기타 5.5%로 각각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영농정착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모 경영 실습이 2.6%, 자영이 9.9%로 합하여 12.5%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교통계연보에는 농업계 고교 졸업자 중 자영 즉 영농정착자에 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표 3-33〉은 문교부의 내부 자료의 하나로서 농업계 학생의 취업 내역을 나타낸 것인데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전체 졸업생 중 자영자는 9.49%인 1,670명 정도이며, 동일계 취업이 21.28%, 타 직종 취업이 50.90%, 기타 18.33%로 나타났다. 농고별로는 순수농고가 1,352명, 종고가 279명, 실고가 39명의 자영자를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 라. 농업계 고교 졸업생의 영농인 양성 미흡과 관련된 농업계 고교 상황

농업의 상대적인 저발전으로 인하여 농업계 고등학교도 발전이 지연되어 왔다. 〈표 3-34〉는 지난 1970년 이후 농업계 고등학교의 변화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농업계 학생수는 우리 나라의 베이비 봄 세대의 취학인구 증가와 취학률의 증대로 1982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1982년 86,160명으로 최고치임) 그 이후 연평균 6.7%씩 감소하여 1990년에는 49,397명으로 나타났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순수농고와 종합고교 혹은 실업고교에 농업계 과가 설치되어 있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순수농고가 아닌 농업계 고교의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전체 농업계고교생 중 비순수 농고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2년 35%, 1985년 19.1%로 감소되었다가 최근 농업계 고교에 공과계통 등을 설치하면서 그 비율이 최근 증가하여 1990년 23.8%였다.

이와 관련하여 순수농고수는 1970년 123개교에서 1985년 61개교,

표 3-34 농업계 고등학교,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의 변화

연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순수 농고	비 순수 농고	계	순수 농고	비 순수 농고	계	순수 농고	비 순수 농고	계	순수 농고	비 순수 농고	계
1970	123			771	258	1029	41178	10511	51689	1971		
1971	115			781	252	1033	39788	13177	52965	2022		
1972	108			758	289	1047	40068	15713	55781	1933		
1973	66			638	399	1037	35236	20851	56087	1480		
1974	68			704	351	1055	38748	18899	57647	1590		
1975	69			774	319	1093	42011	17103	59114	1735		
1976	62			780	367	1147	42405	19156	61561	1636		
1977	62			860	280	1140	47428	14851	62279	1778		
1978	61			870	349	1219	48968	18823	67791	1758		
1979	59	64	123	889	373	1262	50340	20767	71107	1847		
1980	75			953	379	1332	53678	26122	79800	1930		
1981	56	59		990	396	1386	55105	21863	76968	1997		
1982	58			1050	389	1439	56028	20706	76734	2150		
1983	60			1102	336	1438	55952	17256	73208	2283		
1984	61	44	106	1119	286	1405	55121	12987	68108	2314		
1985	61	42	103	1098	275	1373	51842	12108	63950	2335	1356	3660
1986	61			1096	255	1351	49271	11156	60427	2336		
1987	62			1098	232	1330	48034	9942	57976	2418		
1988	62			1090	213	1303	46568	8770	55338	2521		
1989	59	37	96	1041	235	1276	44356	9090	53446	2513	1166	3679
1990	52	44	96	984	261	1245	40646	8940	49586	2552	1320	3872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1990년에는 52개교로 감소되었으며 반면 비순수농고의 수는 1989년 38개교, 1990년 44개교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4월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의 현황은 <표 3-35>와 같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5 농업계 고등학교 총괄, 1990

단위: 개, 명

계 열	설 립 별	학 교 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학 급 수	정 원	현 원									
농 고	공립	50	302	15,578	13,184 (2,193)	303	16,128	12,170 (1,684)	300	16,608	11,778 (1,425)	905	48,314	37,132 (5,302)
	사립	2	4	208	173 (29)	4	216	182 (40)	3	168	145	11	592	500 (69)
	계	52	306	15,786	13,357 (2,222)	307	16,344	12,352 (1,724)	303	16,776	11,923 (1,425)	916	48,906	37,632 (5,371)
종 실 고	공립	42	100	5,188	3,707 (451)	110	5,888	3,836 (373)	116	6,442	4,026 (281)	326	17,518	11,569 (1,105)
	사립	2	2	104	73 (9)	2	106	58	2	110	65 (7)	6	320	196 (16)
	계	44	102	5,292	3,780 (460)	112	5,994	3,894 (373)	118	6,552	4,091 (288)	332	17,838	11,766 (1,121)
합 계	공립	92	402	20,766	16,891 (2,644)	413	22,016	66,016 (2,057)	416	23,050	15,804 (1,706)	1,231	65,832	48,701 (6,407)
	사립	4	6	312	246 (38)	6	322	240 (40)	5	278	210 (7)	17	912	696 (85)
	계	96	408	21,708	17,137 (2,682)	419	22,338	16,246 (6,097)	421	23,328	16,014 (1,713)	1,248	66,744	49,397 (7,492)

( )안은 여학생수로 전체수에 포함됨.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 1990.

첫째, 농업고교생은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74%에 불과하다. 순수농고는 76.9%, 비순수농고 66.0%로 순수농고가 비순수 농고보다 정원충족률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8.9%, 2학년이 72.7%, 3학년이 68.6%로 학년이 높을수록 정원충족률이 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급당 학생수는 39.5명으로 다른 계열이 50여명이 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고유형별로는 순수농고가 41.1명, 비순수농고

가 35.4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42.0명, 2학년 38.8명, 3학년 38.0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당 학생수가 515명선으로 나타났다. 순수농고는 724명(공립 743명, 사립 250명), 비순수농고 267명(공립 275명, 사립 98명)으로 나타나 공립 순수농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즉 사립 순수농고, 공·사립 비순수농고)는 극히 학교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여학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1학년이 15.6%, 2학년 12.9%, 3학년 10.7%로 연도가 갈수록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순수농고는 14.3%, 비순수농고 9.5%로 나타났다.

농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하여 농민들은 <표 3-36>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계 고교의 취농 증대에 방해가 되는 학교 상황은 <표 3-37>과 같다. 이들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1990년 조원과가 신설되어 12개의 전공학

표 3-36 농업계 고교의 문제에 대한 농민의 의견\*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비
교육내용의 문제	77	23.3
학생정신의 문제	36	10.9
영농인 양성 미흡	70	21.2
시설의 문제	5	1.5
적격학생유치 미흡, 정학금지원 미비	51	15.5
병역면제 미비 등 지원미비	16	4.8
졸업생 영농정착 미흡	51	15.5
현지지역 설정 고려 미흡	17	5.2
기타(학교 교사 등의 문제)	7	2.1
계	330	100.0

\* 무등답자 제외.

표 3-37 취농증대에 방해가 되는 농고교육의 문제점

문제영역	문제점
교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개의 전공학과로 너무 세분되어 있음 : 학과별 목표는 비슷 (1990년 조원과 신설)</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중심이며 지식전수에 편중됨(너무 이론적: 54.5%)</li> <li>○ 생산기술, 경영기술교육이 미흡</li> <li>○ 실험실습의 부진(학생들이 노작교육 기피)</li> <li>○ 지역사회의 농업내용이 중점적으로 교육되지 못함.</li> </ul>
입학관련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고지원자가 정원에 비해 낮으며 입학자는 정원에 비해 미달 (1990년의 경우 입학정원의 99.8% 지원, 82%가 입학, 81.2%가 1990년 4월중에 재학하여 합격후에도 진학포기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li> <li>○ 농고입학동기가 부정적임(영농위해 7.6%, 타교 진학이 안돼 40.3%)</li> <li>○ 중학교 때의 성적이 낮음 :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 (상위급 3.8%, 중위급 9.2%, 하위급 87%임)</li> </ul>
학교생활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짐(긍지를 못가짐)</li> <li>○ 학생들의 농고재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만족 26.6%)</li> <li>○ 기초학력 낮음(국교 6학년 산수를 38%, 중학교 1학년 영어를 41% 이해)</li> <li>○ 중도탈락자가 많음 등에 따라 정원미달(74%)</li> <li>○ 여학생의 수가 적음(1990년 13.1%)</li> </ul>
영농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배경도 없는 편임(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자 28.3%)</li> <li>○ 부정적인 농업관(긍정적이 36.4%에 불과)</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 과다(평균 3과목, 16.8시간의 포장담당)</li> <li>○ 농업교사의 사기저하</li> </ul>
시설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실습기자재의 노후화</li> <li>○ 국고재정지원의 미약</li> </ul>
산학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고수준의 산학협동 미약</li> <li>○ 현장실습의 미약</li> <li>○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의 미흡</li> <li>○ 졸업생에 대한 영농자금지원의 미약</li> </ul>
지역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교육이 안됨.</li> <li>○ 학생위주의 교육만 될뿐 지역사회의 농민교육기관으로 활용 미흡</li> </ul>

자료: 농업교육의 문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것임.

과(농산제조과, 농업가정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원예과, 임업과, 자영농과, 잠업과, 축산과, 조원과)로 세분되어 있다. 그 중에서 농산제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등은 농업관련 산업 취업이 목적이지만 다른 나머지 과는 영농 정착이 목적이나 각기 과가 세분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자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영농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이들 학과별의 교육목표는 영농인 양성이라는 것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 3-38〉은 농업계 고교의 학과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의 1990년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학급수가 많은 것은 축산과가 310개이며,

표 3-38 농업계 고교의 학과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 1990.

단위: 개, 명

	1 학년			2 학년			3 학년			전 체		
	학급 수 (A)	학생 수 (B)	B/A	학급 수 (C)	학생 수 (D)	D/C	학급 수 (E)	학생 수 (F)	F/E	학급 수 (G)	학생 수 (H)	H/G
농산제조과	7	285	40.7	11	479	43.5	9	358	39.8	27	1122	41.6
농업가정과	5	197	39.4	6	222	37	6	156	26	17	575	33.8
농업과	88	3439	39.1	91	3300	36.3	98	3569	36.4	277	10308	37.2
농업기계과	27	1321	48.9	25	1200	48	24	1070	44.6	76	3591	47.3
농업토목과	31	1381	44.5	34	1394	41	35	1408	40.2	100	4183	41.8
식품가공과	11	542	49.3	6	285	47.5	7	310	44.3	24	1137	47.4
원예과	94	4329	46.1	95	4049	42.6	86	3505	40.8	275	11883	43.2
임업과	24	907	37.8	30	932	31.1	33	990	30	87	2829	32.5
자영농과	15	563	37.5	15	491	32.7	16	512	32	46	1566	34.0
잠업과	1	52	52	1	40	40	1	49	49	3	141	47
축산과	100	4103	41.0	104	3913	37.6	106	4112	38.8	310	12128	39.1
조원과	3	123	41	0	0	0.0	0	0	0.0	3	123	41
계	406	17242	42	418	16305	39.0	421	16039	38.1	1245	49586	39.8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그 다음으로 농업과 277개, 원예과 275개, 농업토목과 100개, 임업과 87개, 농업기계과 76개 등의 순이었다. <표 3-39>는 남녀별, 학급별 학생수를 나타낸 것인데 1개 학급당 남학생 34.6명, 여학생이 5.3명이었다. 여학생이 많은 과는 농업가정과(100%), 원예과(33.8%), 식품가공과(31.4%)였다.

다음은 입학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3-40>과 같이 농고 지원자가 정원에 비해 적으며, 입학자는 정원에 비하여 더욱 미달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입학 정원의 99.8%가 지원을 하고, 정원의 82%만이 입학을 하였으며, 1990년 4월에는 정원의 81.2%만이 재학하고 있

표 3-39 남녀별 농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1990

단위: 명

학과별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전체 학생수	남 학생수	여 학생수	전체	남	여
농산제조과	27	1,122	859	263	41.6	31.8	9.7
농업가정과	17	575	0	575	33.8	0	33.8
농업과	277	10,308	9,635	673	37.2	34.8	2.4
농업기계과	76	3,591	3,589	2	47.3	47.2	0.0
농업토목과	100	4,183	4,143	40	41.8	41.4	0.4
식품가공과	24	1,137	779	358	47.4	32.5	14.9
원예과	275	11,883	7,857	4,026	43.2	28.6	14.6
임업과	87	2,829	2,726	103	32.5	31.3	1.2
자영농과	46	1,566	1,535	31	34.0	33.4	0.7
잠업과	3	141	131	10	47	43.7	3.3
축산과	310	12,128	11,681	447	39.1	37.7	1.4
조원과	3	123	104	19	41	34.7	6.3
계	1,245	49,586	43,039	6,547	39.8	34.6	5.3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3-40 농업계 고교 학과별 입학 상황, 1990

단위: 명, %

학 과 별	1990년 4월 현재 1학년(A)	입 학 정 원 (B)	A/B × 100 (%)	지원자 (C)	C/B × 100 (%)	입 학자 (D)	D/B × 100 (%)	A/D × 100 (%)
농산제조과	285	366	77.9	273	74.6	285	77.9	100.0
농업가정과	197	260	75.8	222	85.4	197	75.8	100.0
농 업 과	3439	4628	74.3	3549	76.7	3513	75.9	97.9
농업기계과	1321	1404	94.1	2205	157.1	1325	94.4	99.7
농업토목과	1381	1612	85.7	1714	106.3	1389	86.2	99.4
식품가공과	542	570	95.1	1163	204.0	548	96.1	98.9
원 예 과	4329	4887	88.6	6220	127.3	4360	89.2	99.3
임 업 과	907	1300	69.8	883	67.9	912	70.2	99.5
자 영 농 과	563	654	86.1	637	97.4	574	87.8	98.1
잠 업 과	52	52	100	31	59.6	52	100.0	100.0
축 산 과	4103	5352	76.7	4203	78.5	4139	77.3	99.1
조 원 과	123	158	77.8	100	63.3	123	77.8	100.0
계	17,242	21,243	81.2	21,200	99.8	17,417	82.0	99.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어 합격후에도 진학 포기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지원자 수가 적다. <표 3-41>은 1971년부터 1990년까지 농업계 고교의 입학 정원과 지원자를 비교한 것인데 최근으로 올수록 지원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입학원서만 내면 합격이 되는 실정이다. 또 <표 3-42>와 같이 공업계, 상업계, 수·해 운계에 비하여 농업계의 지원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농업계 고교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고서도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1차 전형자의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하자 추가 전형을 하여 합격을 시켜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1990년의 경우 21,243명 정원에

표 3-41 농림계 고교 입학지원 실태

단위: 명, %

연도	정원(A)	지원자(B)	비율(B/A:1)	입학자(C)	C/A(%)
1970	20,840	21,166	1.0:1	18,630	89.4
1971	21,420	23,722	1.1:1	20,113	93.9
1972	21,270	25,491	1.2:1	20,723	97.4
1973	19,020	28,306	1.5:1	18,966	99.7
1974	20,720	30,153	1.5:1	20,726	100.0
1975	22,741	29,417	1.3:1	22,142	97.4
1976	24,340	29,639	1.2:1	23,084	94.8
1977	23,700	29,402	1.2:1	23,055	97.3
1978	24,784	30,716	1.2:1	24,516	98.9
1979	26,040	38,211	1.5:1	26,253	100.8
1981	28,894	33,539	1.2:1	28,072	97.2
1983	28,760	31,524	1.1:1	25,083	87.2
1985	26,682	27,022	1.0:1	22,439	84.1
1986	26,100	24,519	0.94:1	21,154	81.0
1987	25,456	27,680	1.09:1	21,962	86.3
1988	24,178	24,439	1.01:1	19,624	81.2
1989	22,776	22,707	1.00:1	18,808	82.6
1990	21,243	21,200	1.00:1	17,417	82.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표 3-42 실업계 고교 계열별 지원율의 변화

학년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해운계	평균
1981	1.16:1	1.50:1	1.37:1	1.33:1	1.3:1
1982	1.06:1	1.53:1	1.38:1	1.33:1	1.4:1
1983	1.10:1	1.55:1	1.31:1	1.14:1	1.36:1
1984	1.08:1	1.68:1	1.37:1	1.36:1	1.43:1
1985	1.01:1	1.61:1	1.35:1	1.26:1	1.39:1
1986	0.94:1	1.67:1	1.38:1	1.15:1	1.42:1
1987	1.09:1	2.06:1	1.52:1	1.32:1	1.62:1
1988	1.01:1	1.79:1	1.56:1	1.20:1	1.56:1
1989	0.99:1	1.71:1	1.46:1	1.25:1	1.49:1
1990	1.00:1	1.72:1	1.51:1	1.35:1	1.52:1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1990.

21,200명이 지원하였고 17,417명이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에 따라 농업계 고교의 신입생 충족률(등록자수 대비 신입생 정원)이 매우 낮아 1981년 97.2%, 1985년 84.1%, 1990년 82.0%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생의 학교 입학 동기가 부정적인 것 같다. 양복승의 조사(1980)에 의하면 <표 3-43>과 같이 농업계 고등학생의 입학 동기는 영농을 위해서는 7.6%에 불과하고, 경제적 곤란이 42.0%, 타교 진학이 안되어서가 40.3%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유로 농업계 고교에 입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농업계 고교생의 중학교 때의 성적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무근(1985)의 조사에 의하면 <표 3-44>와 같이 농업계 고교 학생의 41.6%가 중학교 재학중 성적이 하위 20%였다. 이것은 중학교 재학중 성적이 낮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진학할 수 없음이라는 앞의 양복승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농고 재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승희의 조사(1985)에 의하면 <표 3-45>와 같이 농고생의 농고 재학에 대한 태도가 후회함이 28.8%이고, 만족이 26.6%, 보통이 44.6%로 나타났다.

표 3-43 농업계 고교 입학동기

	빈 도	백 분 비
경제적 곤란	50	42.0
영농을 위해	9	7.6
대학진학	12	10.1
타교진학이 안되어	48	40.3
	119	100.0

자료: 양복승,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영농후계자로서 육성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1980, p. 53.

표 3-44 농업계 고교 입학생의 중학교 석차 상황

	빈 도	백 분 비
상위 1 ~ 10%	13	1.4
11 ~ 20	21	2.3
21 ~ 30	42	4.6
31 ~ 40	41	4.5
41 ~ 50	45	5.0
51 ~ 60	88	9.7
61 ~ 70	115	12.7
71 ~ 80	164	18.1
81 ~ 90	164	18.1
91 ~ 99	194	21.4
100	19	21.0
계	906	100.0

자료: 이무근 외,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에 관한 연구,” 1985, p. 24.

표 3-45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농고재학에 대한 태도

단위: 빈도, %

구 분	만 족	보 통	후 회	계
인원	47	79	51	177
%	26.6	44.6	28.8	100.0

자료: 한국농업교육학회, 「농고교육 및 농촌교육 활성화 세미나 발표문」, 1985. 10.

또 농업고교생의 농업관에 관한 이용환의 조사(1975)에 의하면 <표 3-46>과 같이 일하는 것이 아주 쉽다가 4.2%, 쉽다가 13.3%이며 보통이 46.1%, 즐겁다가 27.0%, 아주 즐겁다가 9.4%로 부정적인 농업관이 약간 있었다.

농업고교생의 영농 기반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견 영농인이

되려면 충분한 영농기반을 가진 가정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충분한 규모의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고교생의 영농기반을 조사한 결과(양복승, 1980) <표 3-47>과 같이 영농기반이 부족하다가 58.3%이고, 영농기반이 전혀 없다가 28.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영농기반이 부족한 편이었으며 이용환의 조사(1975)에서도 약 62%의 농업고교생들이 영농기반이 없는 편이었다. 강진농고의 조사결과(1985) 82.9%의 학생이 2,000평 이하의 경지소유 면적 가정의 자녀이었다. 농

표 3-46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영농작업에 대한 태도, 1975

단위: 명, %

	빈 도	백 분 비
흙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즐겁다	46	9.4
" 즐겁다	132	27.0
" 보통이다	225	46.1
" 쉽다	65	13.3
" 아주 쉽다	20	4.2
계	488	100.0

자료: 이용환 “자립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I),”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 1975, p. 30.

표 3-47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영농기반의 정도, 1980.

단위: 명, %

	빈 도	백 분 비
되어 있다	16	13.3
부족하다	70	58.3
없다	34	28.3
계	120	99.9

자료: 양복승 “농업고등학교 학생등을 영농후계자로서 육성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1980) p. 53.

업고교생들이 졸업후 취농할 수 있는 규모의 농경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었다.

농업고교생들의 농업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고교생들의 농업기술 능력에 대한 조사결과(1975) <표 3-48>과 같이 농업고교생이 토양산도 측정, 병충해 방제, 시비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현재의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업기계인 경운기의 운전조작을 약 반 정도만이 할 수 있으며, 반면 벼 재배경영과 못자리 설치, 건실한 모기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은 편이었다.

농업계 고교 학생들의 중학교 성적이 낮음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현재의 學力이 얼마나 낮은 가는 <표 3-49>와 같이 농업계 고교 1학년 학생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시험을 본 결과 중학교 1학년 교과목의 경우 국어가 49.4점, 수학이 14.4점, 영어가 40.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농업고교생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은 중학교 때의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기 때문이다.

또 농업계 고교 재학생들의 상당수가 재학중에 중도탈락을 하고 있

표 3-48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영농기술 정도

단위: %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계
토양산도측정	25.4	74.6	100.0
못자리 설치와 건설한 모기르기	65.8	34.2	100.0
병충해 방제	20.9	79.1	100.0
시비	35.9	64.1	100.0
경운기운전조작	48.8	51.2	100.0
벼재배경영	76.0	24.0	100.0

자료: 이용환, “자립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I),”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1975), pp. 25-36.

는데 그 이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자퇴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표 3-50>과 같이 농업계열의 중도탈락률은 20%로 다른 어떤 계열에 비하여도 높았다. 이

표 3-49 농업계 고교 재학생의 학력 수준<sup>1)</sup>

단위: 성취율

학력 수준	국 어	산수 / 수학	영 어
국민학교 4학년	80.0	61.7	-
국민학교 5학년	75.8	46.7	-
국민학교 6학년	70.0	37.5	-
중학교 1학년	49.4	14.4	40.8
중학교 2학년	30.6	9.4	32.9
중학교 3학년	30.0	1.9	30.4
고등학교 1학년	19.4	0.6	24.3

\* 1,917명의 농고 1학년 대상 조사임.

자료: 이무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출발전 행동에 관한 연구,” 1985.

표 3-50 실업계 고교 재학생의 계열별 중도 탈락률

단위: %

학년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해운계	평균
1981	9.8	7.4	4.3	12.0	6.0
1982	10.3	7.9	8.0	10.1	8.2
1983	15.1	11.0	9.0	16.5	10.4
1984	18.7	11.3	9.5	16.8	11.0
1985	17.6	12.5	15.3	12.0	14.8
1986	18.7	13.5	9.5	24.1	11.7
1987	18.3	12.6	8.0	17.0	10.5
1988	19.9	11.2	11.6	18.0	12.3
1989	20.8	20.6	17.9	11.4	18.8
1990	20.0	10.7	6.0	9.4	8.5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1990.

에 따라 농업교사들은 <표 3-51>과 같이 농업계고교생들의 농업교육에의 적합성, 흥미, 학력 정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업교사들은 <표 3-52>와 같이 내용의 수준이 쉬운 것보다는 어렵다는 의견이, 내용이 흥미있다는 의견보다 흥미없음이, 내용이 현실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이라는 의견이, 내용의 분량이 적음보다는 많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즉 내용이 이론적이고, 양이 많으며, 어려우며, 자연히 학생들의 흥미가 없다는 것이다.

농업계 각급 실험실습 시설에 대하여 농업계 교사들은 <표 3-53>과

표 3-51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판단

항 목		빈 도	백 분 율
농업교육에의 적합성	대부분이 적합	18	1.4
	적합한 학생이 더 많음	49	3.7
	적합한 학생과 부적합한 학생이 반반	246	18.8
	부적합한 학생이 더 많음	691	52.8
	부적합한 학생이 월등히 많음	305	23.3
	계	1,309	100.0
농업에 대한 흥미	아주 높음	12	0.9
	높음	29	2.2
	그저 그럼	333	25.4
	낮음	519	39.6
	아주 낮음	416	31.8
	계	1,309	100.0
학력 수준	아주 높음	16	1.2
	높음	1	0.1
	그저 그럼	52	4.0
	낮음	416	32.0
	아주 낮음	817	62.7
	계	1,302	100.0

자료: 송해균외, 전계서.

표 3-52 농업계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농업교사의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율
내용의 수준	아주 어렵다	56	4.3
	어렵다	497	38.0
	보통	698	53.4
	쉽다	50	3.8
	아주 쉽다	6	0.5
	계	1,307	100.0
내용의 흥미정도	전혀 흥미 없음	56	4.3
	흥미 없음	569	38.0
	보통	657	53.4
	흥미	24	3.8
	대단히 흥미	1	0.5
	계	1,307	100.0
졸업후의 유효성	전혀 없음	28	2.2
	별로 없음	401	30.8
	그저 그럴	463	35.6
	유용	403	31.0
	아주 유용	5	0.4
	계	1,300	100.0
내용의 현실성	아주 이론적	49	3.8
	이론적	657	50.7
	그저 그럴	426	32.9
	현실적	161	12.4
	아주 현실적	3	0.2
	계	1,298	100.0
내용의 분량	아주 적음	6	0.5
	적음	88	6.8
	적당	316	24.4
	많음	710	54.9
	너무 많음	173	13.4
	계	1,293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같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많이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 3-54〉와 같이 학교 농장의 62.7%가 재정수입이 목적이며, 31.6%는 재정수입과 학생실습을 병행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즉 학교 농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그 경영이 학생의 실습목적보다는 재정수입에 치우치고 있어 교육적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농업교사들은 농업교육의 성과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농업교사들의 士氣(morale)가 낮은 편인 것 같으며 근무환경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표 3-55〉는 농업교사들의 근무환경을 나타낸 것인데 경제적 대우,

표 3-53 농업교육을 위한 실습시설 규모의 적정성

항 목	답작재배농작		전작재배농장		채소재배농장		과수재배농장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주 부족	62	5.4	126	11.0	44	3.8	259	22.7
부 족	87	7.6	298	26.0	171	14.8	229	20.1
보 통	203	17.7	283	24.7	331	28.7	252	22.1
충 분	371	32.4	267	23.3	336	31.7	249	21.8
아주 충분	423	36.9	170	14.9	242	21.0	152	13.3
계	1,146	100.0	1,147	100.0	1,154	100.0	1,141	100.0

항 목	화훼재배농장		목 장		실내실험실습시설	
	빈 도	%	빈 도	%	빈 도	%
아주 부족	45	3.9	119	10.1	247	20.4
부 족	189	16.2	117	9.9	247	28.6
보 통	324	27.8	153	13.0	346	28.5
충 분	381	32.7	298	25.2	212	17.5
아주 충분	225	19.3	494	41.8	60	5.0
계	1,164	100.0	1,181	100.0	1,212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개서.

업무수행 환경, 사회적 대우는 낮으면서 직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농업교사들이 농업교육에 충실히 수행할는지 의문이 듦다.

다음으로 농업계 고교의 지역사회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업계 고교가 점차 감축되고 있으며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농업센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농업내용이 학교교육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3-56>에서 <표 3-58>은 지역별 농업계 고교현황, 각 군별 농업계과 설치상황, 농고가 없는 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54 학교농장의 목적별 이용 상황

항 목	빈 도	백 분 율
학생들의 실습목적	49	3.8
학교의 재정수입 위주	816	62.7
재정수입과 학생실습 병행	411	31.6
모르겠다	14	1.1
기 타	12	0.9
계	1,302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55 농업교사의 근무 환경

항 목	매우낮음		낮 음		보 통		높 음		매우높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경제적 대우	188	14.5	630	48.6	459	35.4	15	1.2	3	0.2
직무 부담	66	5.1	155	12.0	240	18.6	555	43.1	272	21.1
업무수행 환경	263	20.5	544	42.5	291	22.7	147	11.5	36	2.8
사회적 대우	499	38.9	614	47.8	162	12.6	6	0.5	3	0.2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56 지역별 농업계 고교 현황, 1990

구분	인구구분	순수농고	농업계과 설치 종합고교	농업계과 설치 실업고교	계
도시	70만 이상	4	0	0	4
	60~69	1	0	0	1
	50~59	1	0	0	1
	40~49	1	0	0	1
	30~39	0	0	0	0
	20~29	4	0	0	4
	10~19	6	0	1	7
	5~10만	5	0	2	7
계		22	0	3*	25
농촌					
	계	30	34	7	71
계		52	34	10	96

\* 농공고등학교는 농업계과 설치 실업고교로 간주하였음.

표 3-57 각 도별 농업계 고교 설치 여부별 군, 1990

	순수농고만 위치군	종고, 실고만 위치군	순수농고와 종·실고 동시 에 위치한 군	농고가 없는 군	계
경기	4	9	0	5	18
강원	4	4	0	7	15
충북	2	0	0	8	10
충남	5	0	0	10	15
전북	3	1	0	9	13
전남	5	5	1	10	21
경북	1	8	0	15	24
경남	3	11	1	4	19
제주	0	0	0	2	2
계	27	38	2	70	137

그림 3-2 전국 농업계 고교의 배치, 1990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표 3-59>와 같이 조사대상 농민들의 80.7%는 자녀를 농

표 3-58 농고가 없는 군, 1990

도 별	군 수	군 명
경 기	5	양주 가평 평택 용진 남양주
강 원	7	화천 춘성 횡성 원주 정선 양양 명주
충 북	8	단양 음성 괴산 옥천 제원 중원 청원 진천
충 남	10	아산 예산 홍성 서천 논산 연기 공주 천원 서산 태안
전 북	9	진안 장수 임실 익산 옥구 완주 정읍 김제 무주
전 남	10	여천 승주 담양 화순 장흥 해남 완도 신안 무안 영암
경 북	15	영풍 봉화 영양 영일 경산 군위 칠곡 달성 울릉
		선산 상주 문경 안동 금릉 경주
경 남	4	의창 통영 진양 양산
제 주	2	북제주 남제주
계	70	

표 3-59 연령별 자녀에게 농고 교육 이수 의사\*

단위: 명 (%)

	있 다	없 다	계
29세 이하	8(32.0)	17(68.0)	25(100.0)
30 ~ 39세	11(15.1)	62(84.9)	73(100.0)
40 ~ 49세	19(14.9)	108(85.1)	127(100.0)
50 ~ 59세	56(20.8)	213(79.2)	269(100.0)
60 ~ 69세	17(22.1)	60(77.9)	77(100.0)
70세 이상	1(12.5)	7(87.5)	8(100.0)
계	112(19.3)	467(80.7)	579(100.0)

\* 무응답자 제외.

업계 고등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예 농민을 양성하자면 농업계 고교가 변화가 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영농을 희망하는 청소년들도 농업계 고교를 기피할 것이라 생각된다.

#### 마. 농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농률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과 한계

정부에서도 농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농률 증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1955년 이후 농업계 고교 육성 관련 주요 시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표3-60>과 같다.

먼저 1955년부터 실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습농장 운영심사를 시작하였으며, 1963년에는 중견 농업경영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1971년에는 중견 농업경영자 양성이외에 농업관련직 종사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 1971년에는 현장실습을 확대하였으며 (농업산학협동을 실시), 1972년에는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범농고를 10개교 지정 육성하였으며, 1980년에는 농업계 고교생의 영농정착 촉진을 위하여 10개 농고에 자영 농과를 설치하였으며, 1983년에는 자립농고체제를 시작하여, 1983~1985년에 40개교에 7,65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 1983년에는 재학생 영농과제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여 왔다. 그 이후에도 농업계고교 교육을 통하여 영농인 양성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펼쳐왔다. 그중 주요한 시책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업계고교를 자영농고화하거나 자영농과 설치 운영

정부는 농업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경지면적의 확대 그리고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업기계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고의 자영농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여 1980학년도부터 전국 10개 농고에 자영농과를 설치하였다.

표 3-60 농업계 고교 육성 관련 주요 시책의 변화 과정

연 도	주 요 시 책
1955	○ 실습농장 운영심사(실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임)
1963	○ 중견농업경영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
1968	○ 농공병진정책과 농업의 기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농공고 등학교 신설
1969~78	○ 농고졸업자 해외 영농실습생 선발 파견
1971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산학협동을 강화함으로써 농고생의 현장실습 활기
1971	○ 중견농업경영자+농업관련직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 ○ 농업산학협동
1972	○ 전국 12개 농고에 시범농고 지정 집중적 육성 ○ 영농학생전진대회(FFK) 개최(영농학생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심어주고 농업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함) ○ 부실농고 43개교 정비 ○ 실습농장 운영 심사 범위 확대(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전체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우수교에 시상)
1978	○ 농고학생에 대한 영농자금 융자 및 영농설계교육 실시
1980	○ 자영농과 설치(전국 10개교)
1981	○ 중견자립영농인+농업관련직 종사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함
1983	○ 농고자립체제 운영 ○ 재학생 영농과제 지원자금

자료: 문교부, 「한국교육 40년사」, 1978.

학부형의 영농기반을 승계할, 즉 영농기반을 가진 농가의 자녀를 출신학교장과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으로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자영농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였다.

자영농과는 1학급당 학생수를 40~50명으로 하고, 자영농과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전학생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

편, 유관 행정기관의 협조로 기숙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1981학년도부터는 자영농과 특별운영비로 1학급당 220만원(총 4,4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 사례자 특강, 선진 농가 견학 및 영농설계실습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1980년도부터 10개 농고에 설치 운영되어 온 자영농과는 1983년부터 첫졸업생의 영농정착률이 88.3%(443명 졸업, 391명이 자영농으로 정착)였으며 1984년도에는 436명 졸업생 중 428명이 농촌에 정착, 98%의 영농정착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의 자영농과 운영이 핵심적인 영농후계자 육성 교육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1984학년도부터 여주농고를 자영농고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5학년도부터는 재학생의 식비를 내무부, 농수산부, 문교부와 학교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본인은 20%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밖에 1986년 강원도의 주천농고에 자영농과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졸업후 영농정착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1990년의 경우 자영농과 자영농과 졸업생이 농어민 후계자를 희망할 때는 희망자의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또 원예종묘, 농업기계, 임업 종묘 등 분야의 자격증 취득시 동일계대학 특혜입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자영농고와 자영농과에 대한 투자정도는 <표 3-61>과 같다.

표 3-61 자영농고와 자영농과에 대한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981~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운영비	236	80	92	94	96	94	92	784
기숙사비	-	105	124	133	143	148	140	793
계	236	185	216	227	239	242	232	1,577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1990년 4월1일 현재 전국의 자영농과 현황은 <표3-62>와 같은데 자영농과도 정원의 77%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학급당 33.8명의 학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91학년도 자영농과 학생 모집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자영농고나 자영농과의 제도 존립마저 어려우면 농고의 자영농 양성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된다.

<표 3-63>은 지난 1983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자영농과와 자영농고 졸업생들의 진로를 나타낸 것인데 영농정착률이 점차 떨어져서 1990년의 경우 71.5%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전체의 영농정착률인 9.49%에 비하여는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런 면에서 자영농고와 자영농과 체제는 매우 긍정적이라 여겨지며

표 3-62 자영농과계 설치 현황(1990. 4. 1 현재)\*

시 · 도	학 교 명	학 급	정 원	현 원	비 고
경 기	여주자영농고	15	600	514(33)	'84년부터 모집 '88년 폐과
	이천농고	1	50	34	
강 원	춘천농고	3	130	89	'88년 종고로 개편
	주천농고	3	120	101	
충 북	청주농고	3	150	77	
	보은농고	3	130	84	
충 남	공주농고	3	150	113	
전 북	김제농고	3	150	135	
전 남	강진농고	3	150	90	
경 북	안동농고	3	150	111	
경 남	사천농고	3	120	98	
제 주	서귀농고	3	120	110	
계	12교	46	2,020	1,556	

\* 특수목적고 지정 관보고시(문교부고시 제427호: 1979. 9. 15)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앞으로 모든 농업계 고교가 이런 형태로 변화함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 ② 자립농고 육성

정부는 농고를 자립체제로 전환하여 전 농고생이 영농실습 장학금을 받으며 자립영농 실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영농후계자 중심학교로 육성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60개 순수 농고에 경영실습장을 확보토록 하고, 실습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을 자체 특별회계 형태로 운영하여 소득 증대를 통한 수입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하에 1983년 10개교를 선정, 1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84년에는 15개교에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85년에는 15개교에 30억원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학교별로 완성연도에 이르면 실습농장 운영비와 재학생의 수업료는 농장실습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단위농장운영 중심에서 경영단위 실습의 농업교육으로 전환하여 유능한

표 3-63 자영농과 졸업생 진로

(졸업년도 4.1현재)

졸업연도	졸업생수	영농정착 (비율)	취업	군 입 대	기 타	비 고
1983	443	391(88.3)	18(13)	17	17	취업란의
1984	436	428(98.2)	4(3)	1	3	( )는
1985	425	420(98.8)	1	4	1	동일계임
1986	381	376(98.7)	1	3	1	
1987	551	530(96.2)	10(4)	11	-	
1988	515	484(94.0)	30(2)	8	1	
1989	565	434(76.8)	110(56)	20	1	
1990	540	386(71.5)	114(33)	30	10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였는데 1983년부터 그 이후에 60개 농고에 156억원을 투자하여 학교마다 경영실습시설을 확보케 함으로써 복합영농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 1989년에는 사후관리비 2억 2,5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③ 농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영농과제 자금지원

농업계 고교 재학생이 자신이 수립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실습을 하고 이를 졸업후 영농정착에 연계함을 목적으로 우수 농고생에게 영농과제 자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1983년 4억원, 1984년 5억원, 1985년 5억원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수산부에서 과제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여 졸업후 유능한 영농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자금을 통하여 농업계고등학교의 사기진작과 자영농 양성에 크게 기여하려 하고 있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고교 2학년 재학생으로 졸업 후 영농정착 의사가 있고 보호자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1인당 1백만원을 1년 거치 1년 상환(연리 8%)하는데 융자금액이 적으면 300~500만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 ④ 추천입학제도 실시

농고에 적격 학생 및 여학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입학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의 1982년에는 30%, 1983년에는 50%, 1984년 100%를 각 중학교의 학교장 추천에 따라 해당학생을 무시험 입학시켜 왔다.

그 조건은 ①해당학과에 지원하는 목적의식이 뚜렷, ②해당학과에 소질과 적성이 있으며, ③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며, ④학업성적이 지원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적정자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고의 정원 미달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농고가 정원미달이 되는 이유는 농고가 취업률이 저조하며, 추천입학생에 대한 학비감면등의 혜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영농후계자 육성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각 농고에 여학생 입학을 위한 유인책을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청년 결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농업계 고교에 여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여 영농후계자의 부인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최근 농업계 고교에 여학생의 진학희망과 실제 진학자가 늘고 있다(1990년 13.1%).

#### ⑤ 영농학생회 조직운영

영농학생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고등학교 농업과 재학생들이 하나의 조직체를 발전시킨 것이다. 1928년 미국의 영농학생회연합회(Future Farmers of America)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 조직이 소개되어 학교별, 도별로 활동이 활발해지자 1972년 한국영농학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표 3-64>는 지난 1973년 이후 한국영농학생회 회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영농학생회의 목표는 농업계고등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영농학생회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농업에 대한 지도성, 협동성, 과학성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농촌근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한국영농학생회의 연합회 정관에 정하여져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영농학생회는 ①과제활동, ②실기경진대회등의 행사, ③전시회, 품평회, ④견학, 현장실습, 특강, ⑤등급제 및 기능검정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시·도연합회에서는 ①가정영농 실습과제계획 발표회, ②영농성과 발표 및 전시회, ③기술 및 경진대회의 개최, ④등급제 및 기능경진을 실시하며 중앙의 영농학생연합회에서는

표 3-64 한국영농학생회원수의 변화

단위: 명

	영농학생회원(A)	농업계학생수(B)	A/B(%)
1972	7,559	55,781	13.6
1973	6,968	56,087	12.4
1974	6,575	57,647	11.4
1975	6,494	59,114	11.0
1976	7,431	61,561	12.1
1977	8,772	62,279	14.1
1978	10,415	67,791	15.4
1979	14,860	71,107	20.9
1980	18,979	79,800	23.8
1981	26,043	76,968	33.8
1982	28,037	76,734	36.5
1983	29,704	73,208	40.6
1984	34,271	68,108	50.3
1985	39,976	63,950	62.5
1986	38,190	60,427	63.2
1987	40,082	57,976	69.1
1988	38,850	55,338	70.2
1989	37,469	53,408	70.2
1990		49,586	

자료: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 각연도.

①영농성과 발표회 및 생산물 전시회, ②등급제 및 기능검정, ③전진대회의 개최, ④모범영농학생 일본 농업교육 시찰등을 실시하고 있다.

#### ⑥ 농어촌 종합 대책의 농업계 고교 대책

농어촌 발전종합대책(1986년 3월5일 발표)에서는 농업 및 수산고등학교의 장학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지, 가축 등 실습용 수익 자산의 구입을 지원하고, 농수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산물 판매수익으로 장학금

을 재원조달하는 것과 농수산 고교를 종합실업고교로 전환하여 공업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농업계고교에 공업계과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 ⑦ 농업계 학과의 전과

이런 방침과 관련하여 최근 농업고교에 인문계와 공업계통의 학과가 설치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농업계고등학교의 과를 타계열로 이미 상당히 전환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표 3-65〉는 도별 농업계 학과의 타계열 학과로의 개편 계획인데 1991년 36학급, 1992년 29학급, 1993년 11학급 등 3년 동안에 76학급의 농업계학과를 감축하려 하고 있다.

1991학년도의 농업계 학과의 타 학과로의 개편 계획을 보면 〈표 3-66〉과 같이 8개 시도의 12개 학교에서 36학급이 감축되고 공업계와 상

표 3-65 도별 농업계 학과를 타계열과로 개편할 계획

시·도	1991		1992		1993		계	
	신설	감축	신설	감축	신설	감축	신설	감축
경기	3학급	3학급	3학급	3학급	1학급	1학급	7학급	7학급
강원	6	5	6	5	3	2	15	12
충북	3	3	-	-	-	-	3	3
충남	3	3	-	-	-	-	3	3
전북	6	16	2	2	-	-	8	18
전남	-	2	6	6	5	5	11	13
경북	-	-	7	6	-	-	7	6
경남	2	2	6	6	2	2	10	10
제주	3	2	1	1	-	-	4	3
계	26학급	36학급	31학급	29학급	11학급	11학급	68학급	76학급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1990.

업계등의 학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표 3-66 1991년도 농업계 학과를 타학과로 개편할 세부계획

시·도	학교명	신설과	감축과	계획년도
경기	이천공고	기계과 3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원예과 1 농업과 1	1991 "
강원	춘천농고	전자과 3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원예과 1	"
	원주농고	정보처리 2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원예과 1	"
	인제종고	정보처리 1	농업과 1	"
충북	보은농고	화공과 3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원예과 1	"
충남	서산농고	기계과 3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원예과 1	"
전북	부안농고	기계과 3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원예과 1	"
	순창농고	상업과 3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토목과 1 축산과 1 원예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원예과 1	"
	이리농고	전문대승격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원예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원예과 2 식품공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원예과 2	"
전남	진도실고	학교통합	농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농업과 1 임업과 1 원예과 1	"
경남	고성농고	전자과 2	농업과 1 축산과 1 임업과 1 축산과 1	"
제주	서귀농고	자동차과 3	농축산과 1	"
계	12개교	26학급	36학급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표 3-67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학과의 동계열 개편계획

시·도	학교명	신설과	감축과	계획년도
충 남	천안농고	조원과	농업과	1992
	금산농고	농업기계과	”	1992
	청양농고	농업기계과	임업과	1992
	합덕농고	식품가공과	축산과	1992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2
	주산농고	식품가공과	농업가정과	1992
전 북	전주농고	조경과	임업과	1992
전 남	구례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1
	보성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3
	강진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1
	함평농고	농업기계과	원예과	1993
	호남원예고	농업기계과	원예과	1991
		조원과	원예과	1991
경 남	금산종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2
	함안종고	원예과	농업과	1991
	함양실고	원예과	농업과	1991
	남해종고	식품가공과	농업과	1991
	영산종고	식품가공과	농업과	1991
		식품가공과	축산과	1992
제 주	제주농고	식품가공과	-	1992
	동래원예고	식품가공과	-	1992
부 산	대구농고	조원과	임업과	1991
		식품가공과	축산과	1993
대 구	광주농고	식품가공과	농업과	1993
	유성농고	조원과	농업과	1992
경 기	수원농고	조원과	축산과	1991
		생물공학과	임업과	1993
	일죽농고	농업기계과	원예과	1993

〈표 3-67 계속〉

시·도	학교명	신설과	감축과	계획년도
강원	원주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1
	조원과	임업과	임업과	1991
	홍천농고	조원과	축산과	1992
	청주농고	조원과	축산과	1991
	충주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
		조원과	임업과	"
		식품가공과	축산과	"
충북	제천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
		조원과	임업과	"
		식품가공과	축산과	"
	진천농고	농업기계과	농업과	1993
	광주농고	농업전산과	축산과	1992
	수원농고	농업생산유통과	농업과	"
	문산종고	"	"	"
경기	양평종고	"	"	"
	광주종고	"	"	"
	공주농고	농업정보처리과	축산과	"
	전주농고	"	"	"
	구례농고	"	임업과	1991
	고흥농고	"	농업토목과	1992
	보성농고	"	축산과	1993
충남	강진농고	"	"	1991
	함평농고	"	"	1993
	곡성농고	"	원예과	1992
	영광농고	"	"	1993
	광양농고	"	축산과	1993
	장성농고	"	농업과	1993
	언양농고	"	"	1991
경남	김해농고	"	"	1991

자료: 문교부 실업교육과.

한편 농업계과의 동일 계열내의 개편계획은 <표 3-67>과 같이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등의 농업생산학과가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조원과 등 농업전산과 농업생산 유통과, 농업정보처리과 등의 농업관련 학과로 전환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군단위에 농업, 공업, 상업등 각급 학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농업계 과만 있다면 타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농업고교가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 위축되어지면 앞으로의 농업인력 확보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 바. 취농률 증대를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개편방안(안)

#### ①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농업계 고교의 취농률 저하와 이것과 관련된 농업계 고등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농업계 고교는 어떤 형태로든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농업계 고교의 개편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림수산 행정조직 개편방안(1988)에서는 농업계고교의 운영 관리의 중앙정책 기능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1C 농정기획반(1989)에서는 농업고등학교의 일부를 4~5년제의 특수농업자 전문학교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중학졸업자로서 농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전학년동안 장학생으로 특별 선발하고, 일반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 병행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농업 전반에 관한 기술교육과 경영, 기계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전에 6개월 정도의 군복무와 1년정도의 농장실습을 이수토록

표 3-68 21세기 농정기획반(1989)의 구상

	현 재	개 편 안
명 청	○ 농고	○ 농민대학
교육목적	○ 농업관련직 요원 양성과 중견영농인 양성	○ 장래의 과학영농을 담당할 농민후계자 육성
기 간	○ 3년	○ 4~5년(군복무기간 6개월, 1년정도의 농장실습포함)
입 학 요건	○ 입학조건이 없음	○ 부모들의 동의와 자녀들의 희망, 중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발
장 학 금	○ 일부학생만 장학금 혜택	○ 전교육기간동안 장학금 혜택
자 격 증	○ 졸업장	○ 졸업자에게 농업사 자격증을 부여하여 각종 농업정책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함

표 3-69 농고의 공고 또는 종합기술고 전환계획

도	농 고 수		증 감 (전환 고교수)
	'89	'94	
강 원	7	5	△2
충 북	6	3	△3
충 남	8	4	△4
전 북	8	4	△4
전 남	8	4	△4
경 북	5	4	△1
경 남	6	4	△2
기 타	10	10	-
계	58	38	△20

자료: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지역균형발전시책방안」, 1990. p. 270.

하여 졸업자에게는 농업사 자격을 부여, 이들이 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68>과 같다.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의 지역균형발전 시책 방안(1990)에서는 전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를 지역실정에 마추어 공과계 또는 종합기술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표 3-69>와 같이 1989년 현재 58개 농과계 고등학교중에서 20개 학교를 199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과계 또는 종합 기술고등학교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영농을 이어나갈 영농후계세대를 정예화하여 육성하고 현재 크게 위축되어 있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인력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해균등은(1990) 농업계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농고교육개편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표 3-70>과 같이 70.6%가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7%는 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다.

개편의 방향에 관하여는 <표 3-71>과 같이 48.8%가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계과에 상업이나 공업계과를 병설하는 데 대하여 22.3%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농업계과를 다른 과로 바꾸는 데 대하여는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70 농업계 고등학교의 개편 필요성

항 목	빈 도	백 분 율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887	70.6
잘 모르겠음.	109	8.7
개편의 필요성이 없음	260	20.7
계	1,256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1989.

표 3-71 농업계 고등학교의 편제를 개편할 경우 그 방향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지금보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줄여야 함		501		48.8		
기존의 농업계 과를 농업계 학과로 바꾸어야 함		31		3.0		
기존의 농업계 과를 공업이나 상업으로 바꿀 것		14		1.4		
농업계과에 상업이나 공업과를 병설함		229		22.3		
기 타		251		24.5		
계		1,026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72 농업계 고등학생의 수에 관한 교사의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율
너 무 많 음		374		28.7		
많 음		528		40.5		
적 당 함		340		26.1		
적 음		51		3.9		
너 무 적 음		10		0.8		
계		1,303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73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졸업생의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절 대 찬 성		279		17.6		
찬 성		489		30.9		
찬성도 반대도 안함		460		29.1		
반 대		255		16.1		
절 대 반 대		100		6.3		
계		1,583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이와 관련하여 〈표 3-72〉와 같이 농업계 교사들의 69.2%는 현재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도 〈표 3-73〉과 같이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줄이는데 대하여 48.5%가 찬성을 하였다.

또 농업계 고등학생의 수를 줄이는데 대하여도 〈표 3-74〉와 같이 농업계고교 졸업생의 41.8%가 찬성, 30.1%가 반대를 하고 있었다.

## ② 농업계 고교의 개편 방안(안)

이와 같은 농업계 고교의 상황과 연구 동향에 비추어 농업계 고교의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상한다..

먼저 농업계 고교를 소수의 정예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농업계 고교를 소수 정예화시켜 농고가 영농인 양성만을 전담하고 농업관련직 요원 양성기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져야겠다. 즉 농업계 고교 전체 학교와 학과가 현재의 자영농고 체제로 전환하여야겠다.

구체적인 학교운영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목적은 깊고 유능한 농업경영자 양성으로 과거 농업계 고교가 교육목적으로 내세웠던 농업관련직 요원 양성기능은 농업계 전문대학으로 이전한다.

표 3-74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데 대한 졸업생의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절 대 찬 성	256	16.3
찬 성	402	25.5
보 통	442	28.1
반 대	318	20.2
절 대 반 대	156	9.9
계	1,574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숙련공 (Skilled Worker) 과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중견기능인 (Technician) 은 엄격히 역할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최근의 하향취업 (Under-employment) 실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가능성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농업계 고교가 갖는 문제의 하나인 목적의 2중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고등학교는 현재의 순수 농고 50개(사립 제외)를 그대로 유지하여 입학 인원은 200명, 전국적으로 10,000명(제주는 100명)을 매년 입학시킨다.

입학자격은 농업에 흥미가 높고, 영농 종사 의욕이 강하고, 영농기반이 충분하거나, 농지등 영농기반을 확보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

영농의욕이 없거나, 영농기반이 없거나 확보할 수 없는 학생은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입학과정은 자녀의 희망, 부모의 동의, 중학교장의 추천, 군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발 한다.

지금까지의 자영농과 지원자도 군 농촌지도소장의 추천과정이 필요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각 시·군별로(3개 시·군에 농고 1개 정도) 적정인원을 할당하여 추천하게 하여 일부 군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거나, 다른 군에서는 전혀 추천이 들어오지 않게 되도록 한다.

다음은 재학중에 충분하게 영농인으로 교육,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농과나 자영농고의 교육도 영농인 양성을 위하여 잘 추진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전문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농업전반에 관한 기술, 경영, 기계 교육을 더 실시하여야 겠다.

특히 최근 농업기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을 농촌지도소와의 협조로 철저하게 이수시킨다. 재학생에 대하여는 현재의 자영농고나 자영농과에 상당한 지원을 전액 한다. 그리고 졸업자에 대하여는 병역 의무를 마친후 우선적인 영농지원을 하도록 한다.

둘째, 농고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시험연구 기능을 갖추어 그 지역의 농업문제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 앞에서 농업

계고교가 점차 그 수가 줄고, 지역적으로 도시에 분포하는 등에 따라 농고가 없는 군도 많음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농업계 고교와 농촌지도소는 지역단위 농업시험연구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농고가 재학생수가 감소하여 생기는 여력을 이용하여 지역단위 시험연구 기능을 기존의 포장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농고의 개편 구상에 의하면 3개 시·군에 1개 정도의 농고가 배치되는 데 3개 시·군의 특화작목에 관하여 농고가 농촌지도 기관과의 산학협동의 강화로 지역단위 시험연구 기능을 가져야 겠다.

현재 농촌지도 조직에서 농고에 시범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수준에서 더 발전하여 농고가 농촌지도소와의 산학협동체제 구축으로 지역 농업 시험연구 기능을 가져야 겠다.

더구나 농촌지도소의 면지소가 본소로 통합되어진 후 많은 인력이 여유가 있으며 그동안 수도작 위주의 지도에 그쳐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축적이 미흡한 바 농고의 시험농장을 이용하여 농촌지도사들이 지역농업을 시험연구 하여야 겠다.

셋째, 농고에 농민지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다. 영농인 양성 과정 이외에 농업경영인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농업 시험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정시제로 교육시킨다. 이른바 개방대학 체제로의 개편과 비슷하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U.R협상 등에 따라 우리 농업도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국제화, 개방화 등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고의 개편 구상에 따라 농고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따르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포장을 연구사업 실시에 따라 시험장화하여 연구를 통하여 충분한 선진기술을 터득함에 따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표 3-75〉는 농업계교사들의 농업고등학교에 6개월, 1년과정의 성인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대한 의견인데 40%가 찬성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구상에 따라 학생지도의 부담도 덜게 되고, 지역농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한 다음에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더 많은 찬성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지도의 부담과 자신들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부족인 바 이 장애가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현재의 농촌지도소 사업이 농민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큰 바 이것은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자적 지도능력과 결합 된다면 농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넷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런 시책들이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농업계 고교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나 농촌진흥청 등이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농고를 현재의 문교부에서 농림수산부로 가져와 농업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함도 검토하는 것도 생각 해 보아야겠다.

이러한 시도는 1971년에 시도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네덜란드등에서는 농고가 농무성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농업계 고교가 농림수산부로 이전하는 것은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효과나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표 3-75 농업고등학교에 6개월, 1년과정의 성인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찬 성	503	40.0
반 대	753	60.0
계	1,256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그것을 정리하면 <표 3-76>과 같은데 농림수산부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반대가 극심하리라 본다. 그러나 농업계 고교의 농림수산부로의 이관 주장은 현장의 농업계 교사들에게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농업계 고등학교의 개편 구상과 농고의 농림수산부로의 이전이 실시된다면 현재의 농고와 농촌지도소 조직을 <그림 3-3>과 같은 지역농업 기술원(가칭) 체제로 변화시켜 영농후계자 양성, 대농민 대상 비정규 교육과정 개설, 지역농업 시험연구 기능, 대농민 기술지도의 기능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농업시험연구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농고와 농촌지도소의 통합에 대한 의견과 찬성, 반대 이유는

표 3-76 농업계 고교의 농림수산부 이관이 가져오는 예상 효과와 문제점

예상되는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부가 필요로 하는 인력 직접 양성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은 문교부가 주관하여야 하며 교육 외적 이유로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력 양성과 함께 이들의 영농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부처에서도 실업계 고교 교육을 가져가려 함(예 : 상고는 재무부에서, 공고는 상공부에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사업과 연계하여 농민을 포함한 농업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부의 예산만 증대 되고 농업생산에는 도움 안됨</li> <li>○ 각 부처간의 협조 미비로 반대가 많을 것임</li> <li>○ 그동안 농림수산부가 농업계 고교 교육을 위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농림수산부로 농고를 가져가도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li> </ul>

그림 3-3 지역농업기술원(가칭) 체제로의 농업계 고교의 기능 전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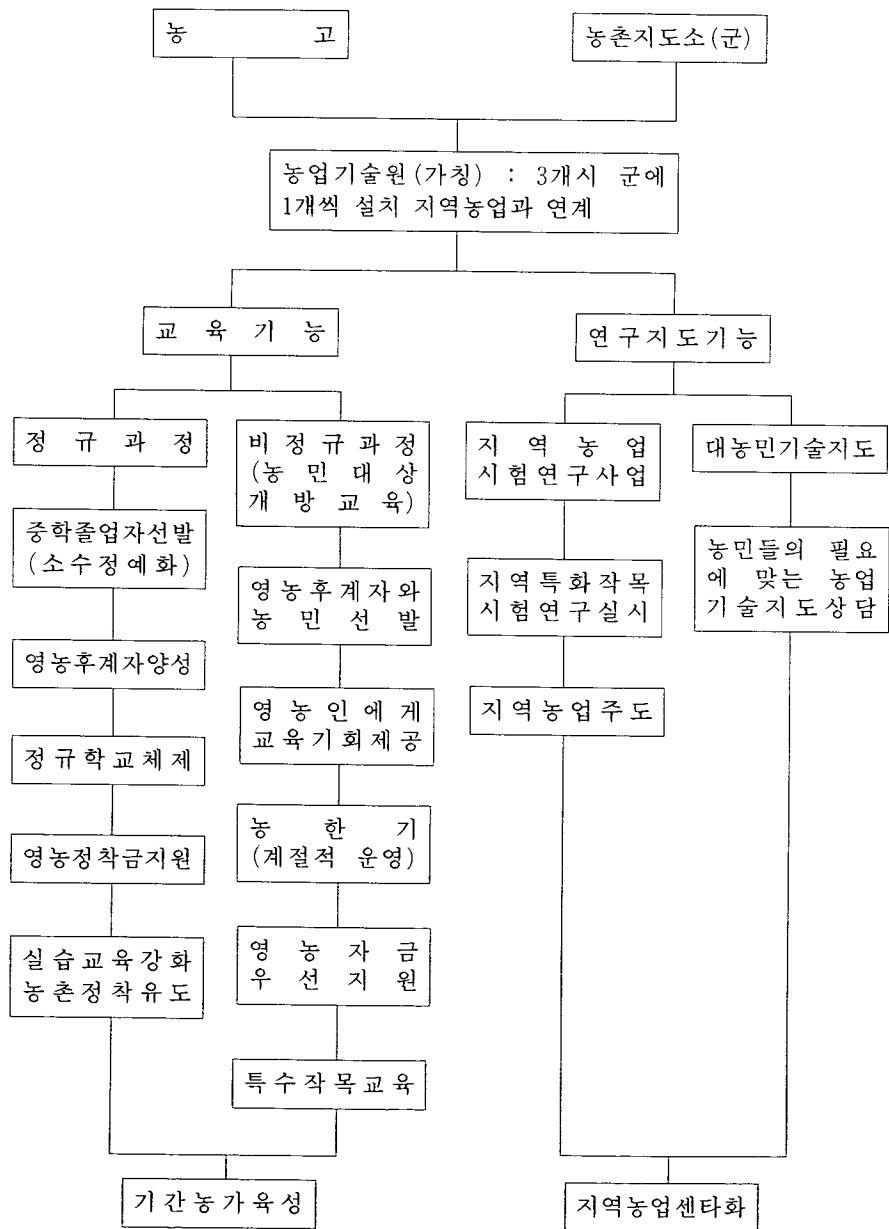


표 3-77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촌지도소의 통합에 관한 의견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찬 성	386	29.9
반 대	907	70.1
계	1,293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78 농고와 지도소의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항 목	빈 도	백 분 율
농업의 사향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45	10.6
학생 교육과 성인 교육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함	88	20.0
인력, 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임	79	18.6
농업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바람직 함	205	48.3
기 타	10	2.4
계	424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79 농고와 지도소의 통합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정부내의 소속부서가 다르기 때문	64	6.8
각각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	769	82.2
통합하더라도 인간적인 융합을 이루기 어려움	86	9.2
기 타	17	1.8
계	936	100.0

자료: 송해균 외, 전계서.

〈표 3-77〉에서 〈표 3-79〉와 같다. 그런 면에서 국가정책상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정치적 결단으로서 농업계고교 교육을 농림수산부로 가져와 정말 새롭게 정예농업인력을 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커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농림수산부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관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농업계 교사들의 지식과 기술연수를 농촌진흥청 조직에서 제공하여야 겠다.

그런 다음 기존의 농어민 후계자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부는 농촌진흥청 내에 정예농민양성사관학교(가칭)를 두어 농고 졸업자나 4-H 회원 가운데서 영농후계자를 사업비지원 2년전에 뽑아 1년간 영농인 양성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다시 1년간 해외연수시켜 충분히 영농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만 소수 정예로 대폭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하겠다.

예비후계자 선발제도는 독일등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년 간의 해외연수는 기존의 전업농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농촌진흥청 내에 정예농민사관학교(가칭)를 신규로 설립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은 해외에서 농산물을 우리농민이 나가서 생산, 국내반입하는 것과도 연관을 맺을 수 있다. 즉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 사. 농대나 농업계 전문대학 교육을 통한 신규 정예 농업인력 확보 와 지역농업 선도방안

앞으로의 농업은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업계 대학 졸업수준의 영농 자라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최근 일고 있다. 상업농화하고 국제화되는 현재의 농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자면 농업계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생의 영농정착 유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농대나 농업전문대학이 지역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농업에 대한 농대나 농업계전문대학의 시험연구 지도기능의 부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대학-지도조직-농민으로 이어지는 지역농업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대농민 기술지도에 농대나 농업전문 대학이 나서야겠다.

### 아. 외국의 농업계 학교교육 실태

외국의 농업교육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농림성이 농업교육을 주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성에서 농업교육을 주관하는 경우는 네덜란드인데 농림자연관리 수산부의 농업 및 식량국 산하에 농업교육과가 <그림 3-4>와 같이 설치되어 있어 농과대학 교육, 농업계고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반면 농림성에서 농업교육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아도 비정규 형태로 농업인력 양성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그림 3-5>와 같이 농촌개발국내에 교육·농촌청소년 지도 담당이 있어 네덜란드의 경우와 달리 농림성이 농업교육을 주관하지는 않으나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독일은 고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 형태로 문부성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농무성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3-6>과 같이 농민양성과정과 농업단체, 교원등의 농업지도자 양성과정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민양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농장실습(1년)-직업학교(2년)-농업직업학교(2년)-실습(3년) 혹은 농가경영교육(1년)-졸업실습(2년)-실습(5년)의 과정이다

덴마크의 경우도 <그림 3-7>과 같이 자영농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학교는 지역농민들이 돈을 거두어 설립의 기초를 만든 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는데 학교운영진에 그 지역의 농민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재학중 농장경험(6~12개월)-학교에서의 기초훈련과정(3개월)-농장실습(2~2.5년) - 농장경영과정(9개

그림 3-4 네덜란드의 농업, 자연관리 및 수산부와 농업계 학교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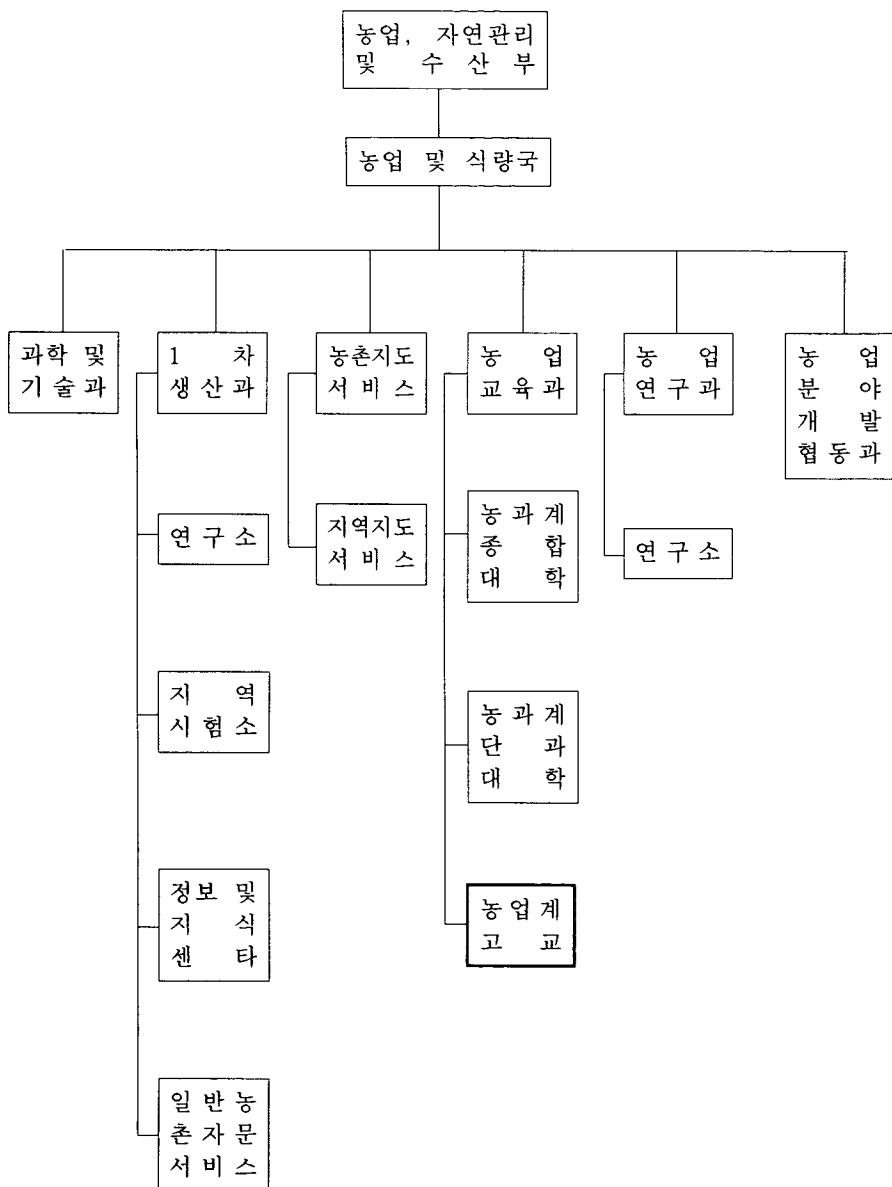


그림 3-5 독일의 농업성과 농업계 학교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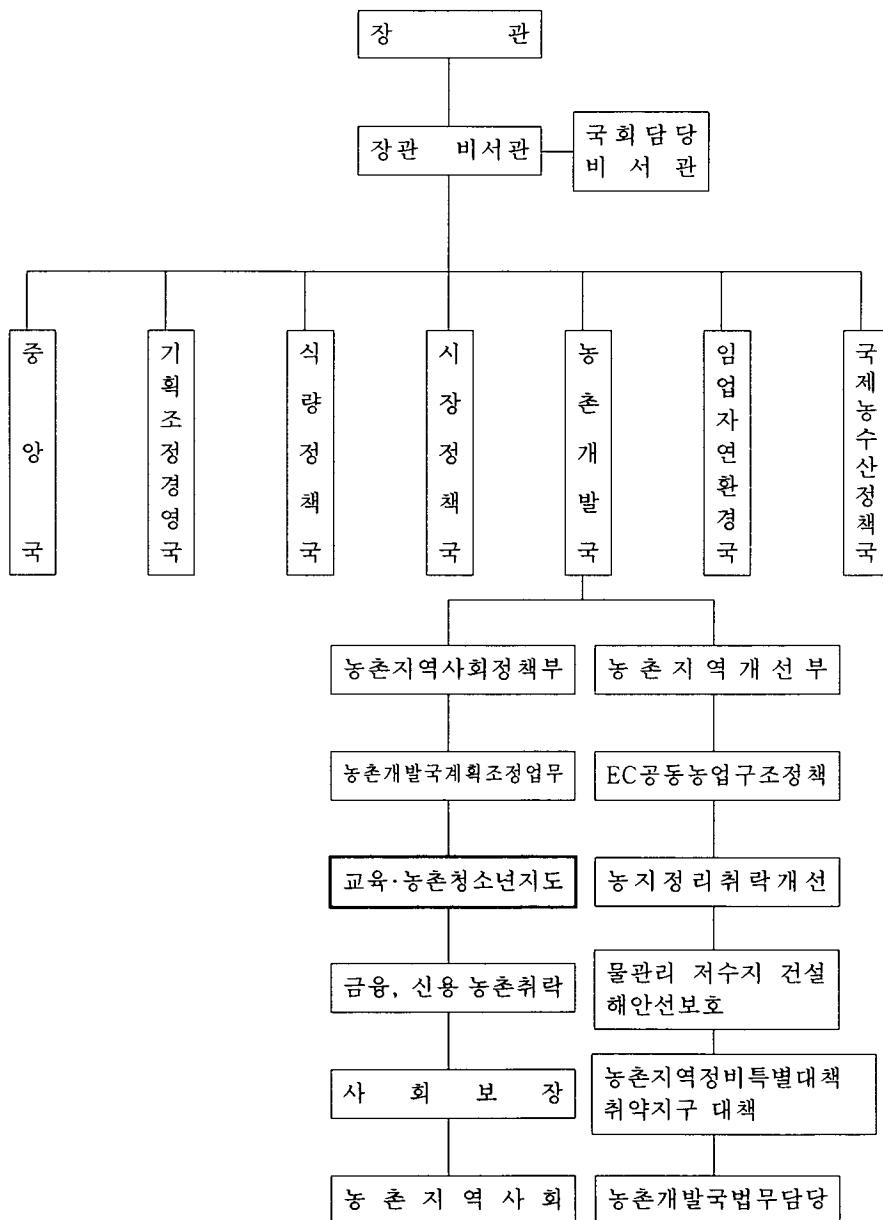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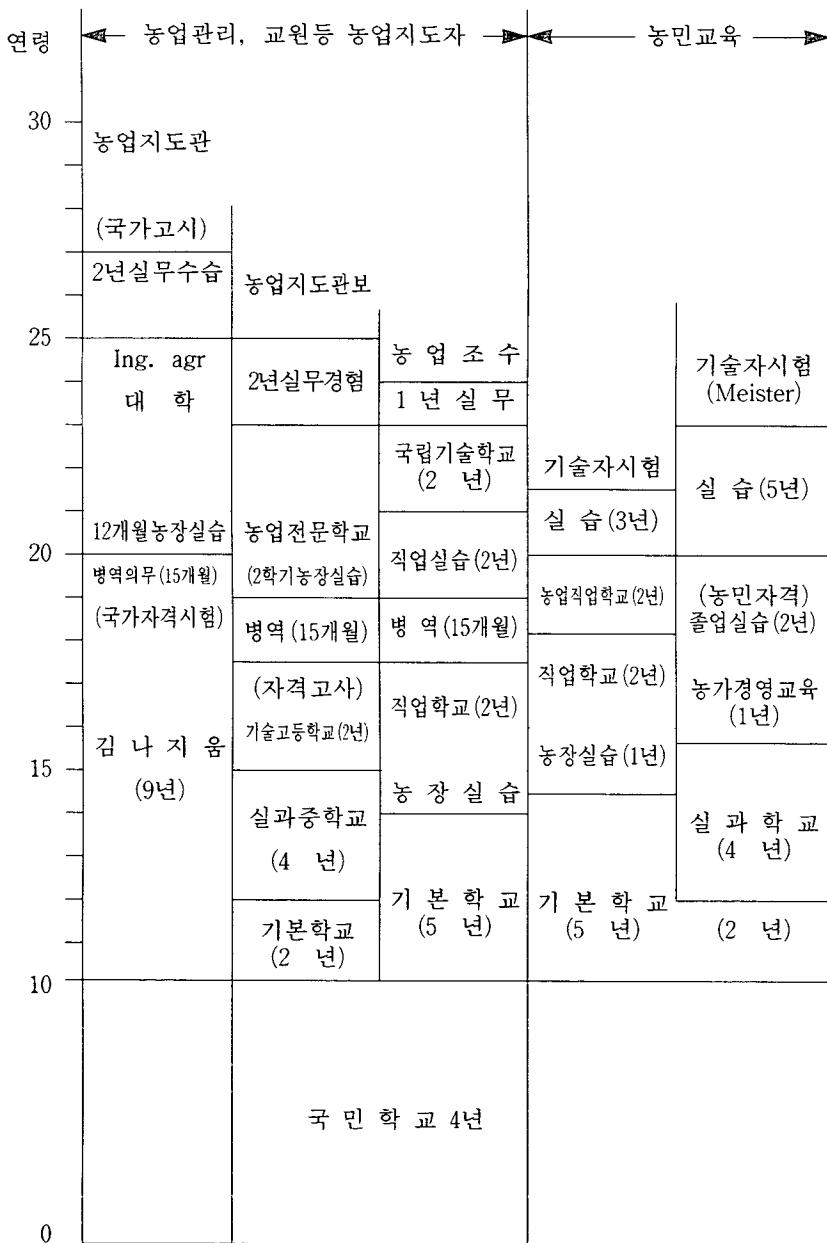


그림 3-6 독일의 농업교육제도 예(바이에른)



월)의 교육을 받는다. 반면 농업관계 조직체의 사원이나 기술자, 협동조합의 지도원, 자문위원, 농업계 학교 교사, 연구기관 연구원자문위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그림 3-8>과 같이 농민양성을 위한 동계학교(2년 과정)가 비정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의 각국의 공통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 종사할 인력을 다른분야에 취업할 인력과 분리하여 따로 양성하고 있다.

둘째, 영농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비정규(non formal)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경우는 동계학교가 된다.

셋째, 영농인을 양성하는 학교의 입학조건으로 반드시 영농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영농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자에게 일정한 자격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Meister, 덴마크의 Green Certificate, 스위스의 Master Farmer 등이다. 이 농업분야 자격증 문제는 다음의 농업인력의 자질향상 방안에서 다시 다룬다. 이런 자격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격을 증명하고 이들의 사기를 양양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다섯째, 농업교육 이수자에게 농경지 소유면적 확대(덴마크, 스위스 등), 농장구입자금지원, 농지상속, 농업지원 제도에서 우선권을 준다.

여섯째, 외국의 농업교육제도는 어려서부터 농업, 비농업분야로 진로를 미리 결정(기초교육 과정 수료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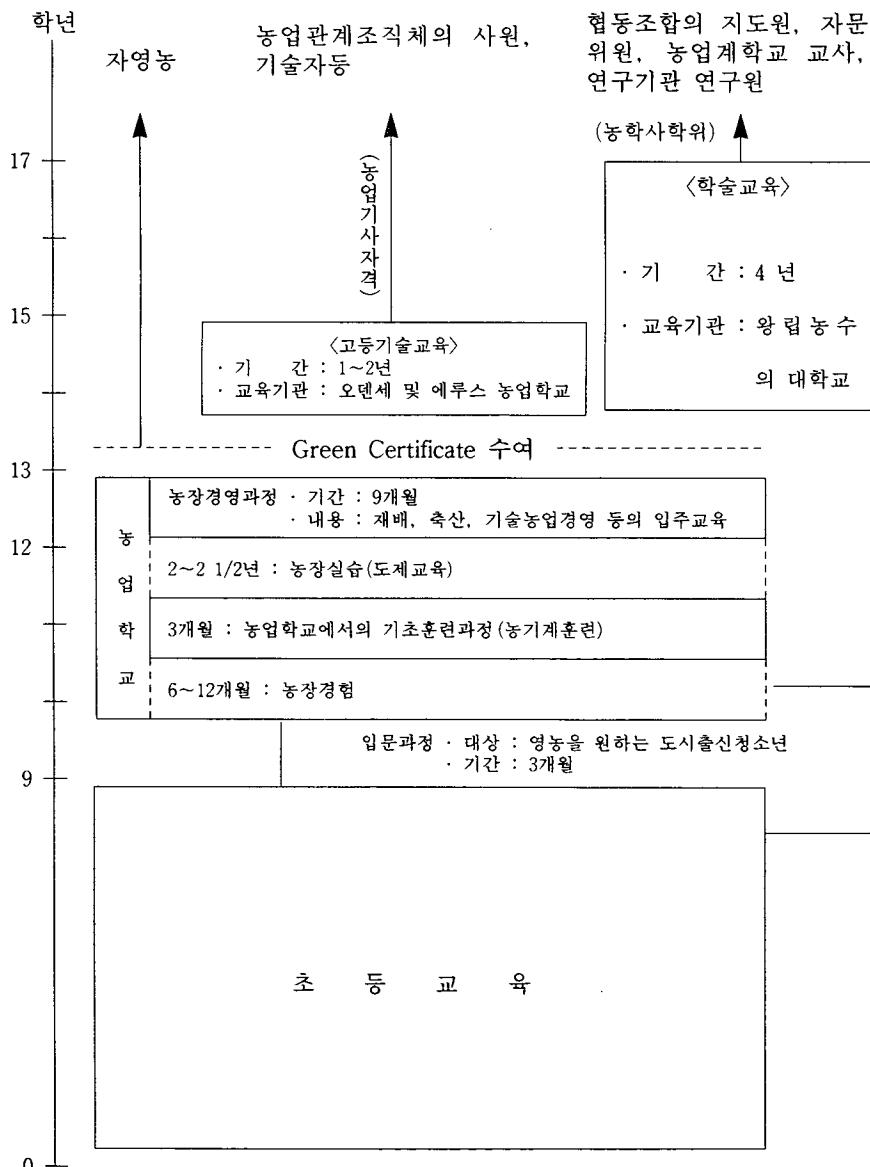
일곱째, 교육내용에서 실습위주인 경우가 많다.

#### 자. 4-H 사업을 통한 정예 농업인력 확보 방안

건전한 농촌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4-H 지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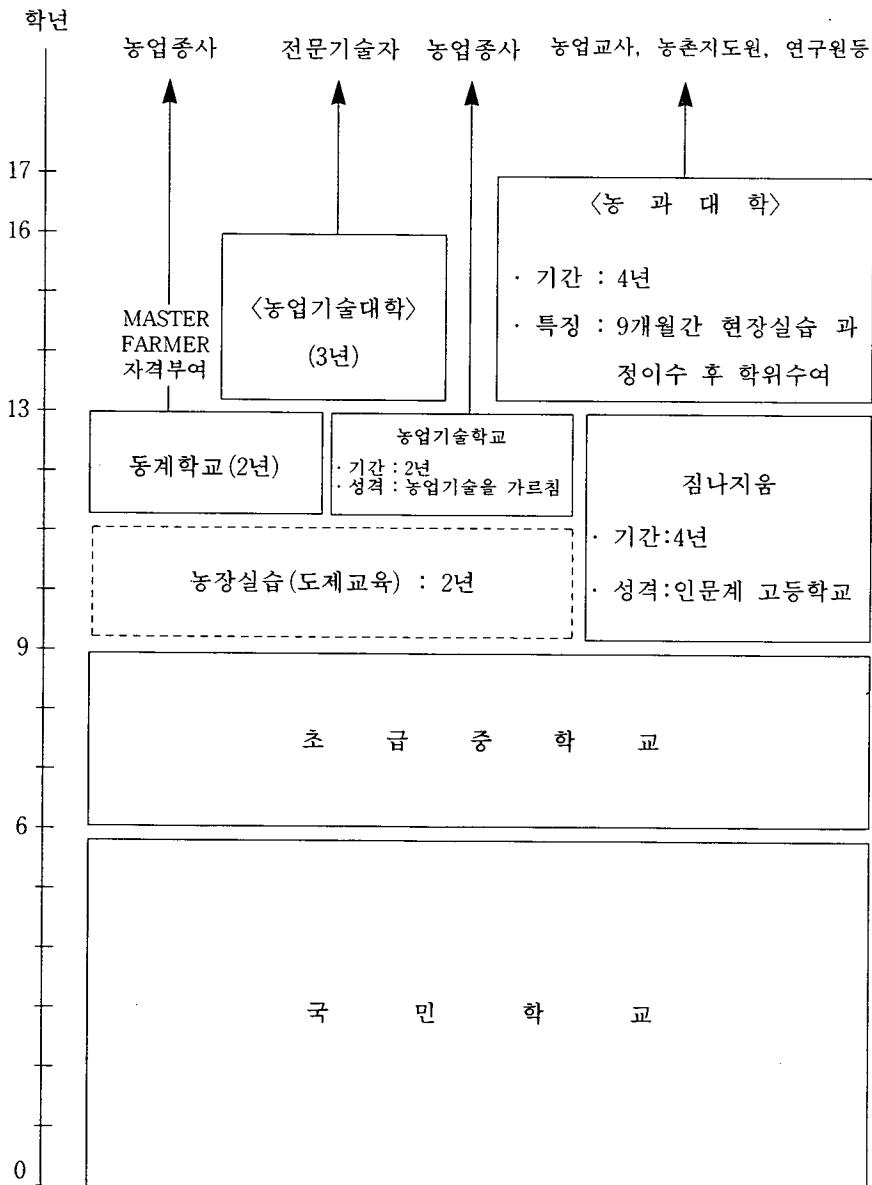
현재 <표 3-80>과 같이 12,813개의 조직, 271,672명의 회원이 있다.

그림 3-7 덴마크의 농업교육 제도



\* Green Certificate는 첫 농업자산을 구입할 때 일정액의 정부보조금과 저리 정부대여금을 응자받을 수 있는 자격부여

그림 3-8 스위스의 농업교육 제도



그리고 <표 3-81>과 같이 학생회원이 많으며 여회원이 적은 등의 문제 가 있다. 그중에서도 4-H회원들을 영농인으로 육성시키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영농 4-H회 조직실태와 조직운영 강화

현재 농업에 대한 사기저하와 여건 변화로 후계영농세대의 탈농 및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군단위로 조직된 영농 4-H회는 자율 활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동일작목 및 직능별로 영농 4-H 회를 군단위로 조직(작목별, 직능별 다양화)되어야겠고 재촌 영농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원 개인별 카드작성 전산화 및 사전 사후 정밀 지도를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해당작목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지도자로 위촉하여 조직활동의 내실화를 가져와야겠다.

#### ② 생산소득과제 활동 지원

4-H회원은 생산소득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제자금이 최근 지원 중단되었으며(농어촌 발전자금으로 지원) 아직 회원들의 영농결정권이 적은 이유로 과제이수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예농민으로 성장하자면 과제활동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과제자금을 농협의 영농자금에서 일부 확보하든지 혹은 기존의 농어촌발전기금 과제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하여야겠다. 그리고 전문작목별로 과제활동을 촉진하고 회원의 연령이나 능력, 과제이수의 경험에 따라 과제이수 모형을 개발하여 새로운 과제를 개발 보급 시켜야겠다. 또 군단위로 통합되어 전문화된 지도사들이 담당 작목을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어야겠다.

#### ③ 4-H회원의 영농인으로 유도 강화

영농은 그 특성상 청소년시절 이전에 영농경험을 가져야만 정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영농기반이 있고 상당한 농업소

득을 올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4-H활동을 열심히 하고 농고에 진학하여 충분한 영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 4-H를 통한 영농경험 체득과 영농 4-H회를 통한 실천적인 과제이수를 통하여 영농을 시도한 다음 성공가능성이 있는 4-H회원은 영농정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만약 고교에 진학하지 않은 4-H회원이 있으면 농고에 적극 진학을 유도하고 병역의무를 마친자를 적극적으로 영농으로 유도하여 4-H회원의 더 많은 영농정착을 가져와야겠다.

표 3-80 4-H회 조직현황

단위: 개회, 명

	조    직	회    원	지    도    자
1965	27,911 개회	720,003	62,772
1970	29,803	633,481	56,708
1975	34,698	572,733	81,360
1980	32,921	608,132	133,710
1981	33,140	661,624	145,121
1982	33,016	668,747	149,227
1983	33,067	697,251	154,269
1984	33,236	747,137	158,573
1985	34,027	974,035	171,675
1986	33,932	1,011,488	179,388
1987	33,787	985,331	177,746
1988	14,577	325,244	77,876
1989	12,813	271,672	67,802

※ 1988년도 명칭변경 및 조직정비 정예화.

자료: 농촌진흥청.

표 3-81 4-H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분야	문제점	개선방향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자원의 급격한 감소</li> <li>○ 학생회원이 다수(1990년 영농회원 6만명, 학생회원 26만명 양성 목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청소년의 희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 4-H회원의 내실있는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회원이 적음(이촌에 의하여 - 여회원활동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촌 4-H대상 여자 적극 가입 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연령범위가 13~29세로 너무 넓어 공감대 형성 곤란</li> </ul>	
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H담당 기피(업무과중으로)</li> <li>○ 지도경력이 짧고 연령이 낮은 지도사가 담당 : 우수하고 전문적인 지도사가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H담당 지도사의 사기진작(근무평정, 표창, 해외연수등)</li> <li>○ 우수전문지도사 확보(연령, 경력)</li> <li>○ 청소년업무중 어렵고 힘드는 일 가급적 배제</li> <li>○ 4-H담당자 활동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의 이해부족</li> <li>○ 4-H이념의 퇴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농민후계자 사기 진착책 강구</li> <li>○ 생활개선 등 우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도시근교마을단위 4-H회 육성 곤란 - 거의 학생회원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단위는 마을단위 4-H회 육성 지향하고 시연합회 중심 육성</li> <li>○ 도시근교마을의 4-H는 해당 읍면 4-H회원으로서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청소년 연령과 4-H회원의 연령이 상이(즉 9~24세, 13~2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수혜혜택을 4-H회원에게 도 수혜토록 조치하고 연령을 29세로 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H시범농장 입주훈련 성과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단위 농업기술수련소 훈련으로 대체</li> </ul>

## 第 4 章

### 農業人力 育成方案

#### 1. 정예 농업인력 영농정착 지원방안

영농의 향이 있고 충분한 영농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영농정착시 지원이 따라야 한다. 기존의 부모영농을 충분히 물려받거나 충분한 규모의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신규 취농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는 바 우리 나라의 지원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계속 추진 및 내실화

###### ①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추진과정과 현황

1980년 39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시작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표 4-1>과 같이 1989년까지 45,444명의 후계자를 선정하여 1인당 평균 7.3백만원을 지원하여왔다. 1989년의 경우도 신규후계자는 1인당 1,000만원, 기존후계자의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사업별 육성현황은 <표 4-2>와 같이 초창기에는 축산에 몰렸으나 최근에 와서는 경종과 복합 영농에 몰리고 있다.

표 4-1 농어민 후계자 육성인원 및 지원액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계
육성인원(명)	1,945	1,998	2,001	5,000	10,000	10,000	8,500	4,000	2,000	2,000	
여민후계자	150	152	193	520	979	937	816	400	150		
여성후계자	5	13	37	159	307	313	391	137	86		
자금지원 (백만원)	86	13,010	13,906	35,007	70,042	70,194	70,307	35,147	19,425	214 억원	
1인당 평균지원	4.4	6.5	6.9	7.0	7.0	7.0	8.3	8.8	9.7		
금액(백만원)											
기금조성(억원)	515	665	1,477	1,742	1,893	2,162	2,417	2,499	2,525		
자금지원(억원)	86	130	139	350	701	702	703				

1) ( )내는 어민 후계자수임.

2) 1981~89년 여성후계자 1,448명 양성.

2) 1980년에 39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자료: 농림수산부.

표 4-2 농어민 후계자의 사업별 지원

단위: %

	경 종	복합영농	축 산	과 수	특 작	수 산	계
1981	14.7	-	74.3	1.5	1.8	7.7	100.0
1982	41.0	-	43.4	3.4	4.6	7.6	100.0
1983	36.0	9.2	41.9	0.8	2.5	9.6	100.0
1984	27.8	22.6	36.8	0.4	2.0	10.4	100.0
1985	24.8	29.3	33.1	0.7	2.2	9.8	99.9
1986	31.9	37.6	17.5	0.9	2.9	9.4	100.0
1987	42.7	31.0	11.9	2.6	2.2	9.6	100.0
1988	46.3	28.0	8.4	5.9	1.4	10.0	100.0
1989	39.7	27.3	16.4	7.6	1.6	7.5	100.0
1981~1989	27.1	26.9	25.8	2.0	2.3	9.5	99.9*

\* 1981~89년 원예 6.4%, 과수 2.0%가 빠졌음.

자료: 농림수산부.

농어민 후계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이 중졸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국졸과 고졸의 순서이다.

농업계 학교 졸업자 가운데 일정 비율을 농어민 후계자로 선발하고 있는데 1981년에서 1989년까지는 전체 졸업생의 25%가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였다. 1990년에도 농업계 학교 졸업자를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는데 <표 4-4>와 같이 농고의 자영농과와 농고 여자졸업자는 희망자의 60%를,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하며, 순수농고는 학교당 2명, 비 순수농고는 학교당 1명을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농대는 학교당 1명, 농전은 학교당 2명을 농어민후계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 읍면에서도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할 때 농수산계학교 졸업자에게 <표 4-5>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4-3 농어민 후계자의 학력, 1981~89

단위: 명, (%)

	국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계
농수산계학교 기 타	-	-	9,108	1,613	559	11,280(25)
기 타	6,724	14,397	11,627	658	218	34,164(75)
합 계	6,724 (15)	14,397 (34)	20,735 (14)	2,271 (5)	777 (2)	45,444 (100)

자료: 농림수산부.

표 4-4 1990년 선정 농어민 후계자 중 농업분야 후계자 출신분야

단위: 명, %

	자영농고 자영농과	농고여자 졸업생	순수농고 졸업생	비순수농 고졸업자	농대농전 졸업자	영농교육 기관출신	읍 면	계
인 원	138	27	116	38	40	52	1,439	1,850
비 율	7.5	1.5	6.3	2.1	2.2	2.8	77.8	100.0

자료: 농림수산부, 「1990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1990.

표 4-5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1990

## (1) 정착의욕 및 지역사회 기여도 : 50점

- 시·도지사가 사업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대한 배점을 정한다.
- 정착의욕 강약도(전업, 취업, 도시이주 등이 예상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지역사회기여도 및 기여가능성
  - 지도자로서의 자질여부
  - 사업작목선택 및 성공가능성
  - 영농(어) 기반이 미흡한 자 우선 지원-기타사항

## (2) 과학영농(어) 능력: 50점

구 분	배 점	비 고
영농(어) 경력 (10점)	1년미만 : 5점 1~3년 : 7점 3년이상 : 10점	○ 본인이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한 기간
영농(어) 기술훈련 (10점)	2주이상 : 5점 3~5주 : 7점 5주이상 : 10점	○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또는 수산청계통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 또는 수산청이 인정한 독농 가능장 및 연수기관(가나안농군학교, 신갈농민학교 등) -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영농(어) 훈련기관
농수산계학과 졸업자 (10점)	농수산관계학과 : 5점 자영농과 : 10점	○ 고교, 전문대, 대학의 농수산계학과 졸업자 ○ 농업계고교에 설치한 자영농과 졸업자
영농(어) 기술자격 (10점)	10점	○ 기술자격증 소지자 ○ 기술자격고시 합격자
사회(단체) 활동 (10점)	1년미만 : 5점 1~3년 : 7점 3년이상 : 10점	○ 새마을청소년회 ○ 새마을지도자 ○ 영농학생회
계 (50점)		

자료: 농촌진흥청.

표 4-6 농민후계자 영농규모 변화

작 목 별	자금지원전	사업착수 직후	1989. 12월 현재
일반농사	2,725 평	3,536	3,971
시설채소	142 평	388	631
한우	1.8 평	7.7	9.0
낙농	2.2 평	7.4	12.0

자료: 농촌진흥청, 「농민후계자 경영성과와 활동실태조사보고」, 1990.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성과를 농촌진흥청의 농민후계자 경영성과와 활동실태 조사보고(1990)에 의하면 <표 4-6>과 같이 모든 작목에서 농민후계자는 자금지원 전에 비하여 사업 착수 직후에 규모가 커지고 (최고 4.3배에서 최저 1.3배) '89. 12. 현재의 영농규모는 더 커지고 있었다.

이것은 전혀 영농기반이 없는 영농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통 정도의 기반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에 있어서도 <표 4-7>과 같이 농민후계자의 농가소득이 10,747천원으로 우리 나라 전체 농가의 농가소득에 비하여(1989년 9,437천원) 14%가 더 높았다.

또 하나 농외소득의 비율에 있어서 농민후계자 농가는 13.8%로 우리 나라 전체 농가의 농외소득률(1989년 40.5%)에 비해 낮아 농어민후계자 농가가 앞으로 전업농가로 육성시켜야 할 대상농가로 간주되고 있다.

농민 후계자의 기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는 <표 4-8>과 같이 61.7%가 신뢰하고 있었다. 이것은 농민 후계자들이 미래의 우리 나라의 농업을 이끌고 나갈 여론 지도자적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민 후계자 중 리장, 새마을 지도자, 농수축협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이 전체 후계자의 16.1%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지

도자로도 크게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어민 후계자 사업은 <표 4-9>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일선에서는 나름대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4-7 농민후계자의 농가소득

단위: 천원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 소득	
	소계	식량	원예	과수	특작	가축	생산	부업		
평균	10,747	9,266	3,292	2,020	678	637	1,836	723	80	1,481
일반농사	9,406	7,658	4,479	1,209	163	505	1,145	102	55	1,748
시설채소	10,672	9,844	2,920	6,005	75	147	519	63	115	828
한우	10,566	9,296	2,775	1,098	337	450	4,404	138	94	1,270
낙농	14,736	13,852	2,177	590	117	257	3,702	6,932	77	884

資料: 農村振興廳, 上揭書.

표 4-8 농민후계자의 기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단위: %

全의으로 信賴	大部分 信賴	普通	믿지 않음
12.5	49.2	34.5	1.8

資料: 農村振興廳, 上揭書.

표 4-9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분 야	문 제 점	개 선 방 향
관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기관의 다원화(행정, 지도, 농협에서 관리)로 일괄책임지도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자의 선정, 지도, 관리 등 후계자 육성업무를 일원화</li> </ul>
단체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후계자협의회 조직이후 단체행동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목별 개인접촉의 강화로 건전 활동 유도</li> <li>○ 기존 협의조직을 심도있는 지도와 지원으로 협력지도체로 육성</li> <li>○ 혜택받은, 선택된 농민으로 모범된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육성지원 미약</li> <li>○ 농민후계자 친목회 등 계형식 조직으로 소비성 행사(예: 관광지 유람, 야유회) 빈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대화로 불만고충사항 처리</li> <li>○ 각종 학습조직체</li> <li>○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별 연찬회 및 시범농장 견학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유도</li> </ul>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민후계자의 외부여건(예: 축산물파동)에 의한 사기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농민후계자 사기진작책 강구</li> <li>○ 생활환경 개선 등 우선지원</li> </ul>
문제후계자 발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기반이 미흡한 후계자의 농촌여건 변화에 적응력 부족</li> <li>○ 농촌부채가 비교적 많고 불만, 불안상태(경영수지의 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기반이 성숙한 후계자 중심의 작목별 과제부 활성화</li> <li>○ 문제후계자 특별지도</li> <li>○ 소득이 낮은 후계자 중점지도(작목전환, 자금지원)</li> <li>○ 자금부족, 사업부실 후계자를 정확히 조사 추가자금 지원</li> </ul>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후계자 발생과 겹업농의 증가</li> <li>○ 지방단위 사업자금 지원미흡</li> <li>○ 상환기간이 짧음</li> <li>○ 지원액수가 적음(사업추진중 자금난으로 도산)</li> <li>○ 농어민후계자 지도예산부족으로 실질적 지도 미흡</li> <li>○ 지원 농민후계자 연령한계 구분없음.</li> <li>○ 희망자에 비해 대상이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소득금고자원, 영농영어자금 추가지원, 소득이 낮은 후계자 자금지원</li> <li>○ 군유림지원 등 추가자금 지원</li> <li>○ 기술습득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지도예산 과감히 책정</li> <li>○ 지원연한, 나이 등의 어느 일정 선에서 한계를 두어 연령이 지난 사람은 후계자에서 제외</li> </ul>
선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모호, 불명확으로 잡음이 있음.</li> <li>○ 대상자 선정연령이 35세로 기존정착자가 선발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명확화, 전문가 참여 증가</li> <li>○ 4-H 회원 출신자와 영농정착의지 강한 자 선발</li> <li>○ 30세까지로 축소</li> </ul>

자료: 농촌진흥청, 1989 지도사업평가자료 정리한 것임.

## ②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계속 추진 및 내실화 방안

최근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계속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예농업 인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므로 계속 추진하여야 겠다.

반면 농어민후계자 사업은 내실화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양 위주에서 탈피하여 소수정예 위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수정예의 농업고교나 전문대학 등 농업교육을 이수한 자중 후계자 선발 시험을 통하여 엄선하고, 확보된 후계자는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1~2년 동안 시킨 다음(여기에는 우리나라 여건이 비슷한 선진농업국을 1년이상 장기 유학실습시킴이 포함) 영농정착자금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겠다.

## 나. 기타 영농정착자에 대한 각종지원 부여 방안 강구

### ① 병역 감축 혜택 검토

최근 상공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병역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상공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병무청 병역특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 정부는 그 동안 실시해오던 15개의 병역특례 분야를 3개 분야로 축소하여 선발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병역 특례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996년까지는 완전 폐지할 계획임을 1990년 정기국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또 국민개병제의 취지에 맞추어 농업분야에도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으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될 수 있다.

지난 1980년 과가 설립되어 1983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농고 자영농과의 경우, 당초 입학 당시 병역 혜택을 준다는 설이 있었으나 막상 졸업생이 배출되자 그 지역의 인적자원이 남는 경우 도 지방병무청의 임시적 유권해석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하게 되어, 그 이후 자영농과 지원자가 격감한 바 있다. 이 상태가 현재까지 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그 산업의 특성상 군복무기간 동안에도 생명체가 계속 성장하는 관계로 누군가가 대신 영농에 종사하여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농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영농기반이 무너지는 등 각종 문제가 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청소년들은 병역문제로 영농을 기피하고, 영농에 종사하다 병역을 이수하는 자는 군복무기간 중에 마음이 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농업분야에도 농고 및 농전을 졸업하고(2급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 영농정착에 임하고 있고, 영농정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아야겠다.

청년영농인에게 병역 혜택 부여시 기대 효과와 기대되는 문제점은 <표 4-10>과 같다.

## ② 농업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과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우리 나라도 정예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춘 우수한 농업사를 선별하여 특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한 방안으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게 우

표 4-10 영농정착자에 대한 병역혜택 추진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예상되는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영농 가능하기 때문에 의욕있는 영농인 유치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위배</li> <li>○ 영농종사에 대한 정의 곤란</li> </ul>

선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겠다.

### ③ 농업계 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영농 지원

이제까지 정부는 농어민후계자 사업에서 농업계 학교 출신자에게 더 많은 비율을 할애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자들에게 과연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농업계 학교 출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예농민 확보 차원에서 소수 정예로 양성한 농업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우선적인 영농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업계 학교 졸업자들과 달리 앞으로 양성되는 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신규 정예 인력이기 때문이다.

### ④ 적정 농지 확보방안 유도

정부는 농가 자녀들이 영농 상속과정에서 충분한 영농여건을 갖추도록 (예: 적정한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겠다. 상속과정에서 농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자 상속제도를 도입하되 영농 경영주가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상속 농지 매매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농지 구입을 위한 금융을 공급하여야 겠다.

### ⑤ 영농정착 후 자립하기까지 계속 지원

영농정착은 정착만 하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금, 시설의 부족, 농사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을 극복하여야 완전한 정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영대의 조사(1981)에 의하면 영농정착후 완전히 성공 정착하는데 3~5년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농업계 각급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농업계 각급학교의 추수지도(follow-up)의 차원에서 영농정착자에 대한 지

도가 있어야 겠다.

#### 다. 외국의 농업인력 정착 지원방안

##### ① 각종 자금지원

###### 1) 일본

일본은 1964년 각 도도부현에 농업개량 자금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의 종류는 3가지로 ① 기술 공동습득 자금, ② 연수교육 자금, ③, 부분경영 개시자금이 있다. 자금의 지원 조건은 무이자, 무담보 융자원칙이며 3~7년의 상환기간이 설정된다.

######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73년 청년 영농 취업자 보조금 제도(Dotation des Jeunes)를 신설하여 청년 영농자들에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35세 미만 청년 영농자에 대하여 농기계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시키고 중장기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원 이외에 농고수준 이상의 농업교육을 이수하고, 3~5년간 자신의 농가나 타 농장에서 영농종사하고, 自耕者の 경우 12ha미만의 경지를 갖고 있는 자를 특별히 선정하여 농지 구입 및 농장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의 지원 내용을 보면 ① 기초 정착 자금, ②농지구입자금, ③건물, 기계, 농장정비자금이 있다. 농지구입자금은 연리 8.25%로 25~30년간 균분 상환하며, 건물, 기계, 농장정비자금은 4~6%의 저리이자로 10~15년간 장기보조된다(사업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일반 평야 지역보다 산악지나 인구가 적은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정착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특색이 있다.

### 3) 서독

농업고등학교 출신 가운데서 후계자 선발 시험을 통하여 엄선하고 2년간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한다.

### 4) 벨기에<sup>1)</sup>

벨기에는 35세 이하의 신규 취농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40세 이하의 농민에게 특별지원을 한다. 그 지원내용에는 ① 영농 정착자금, ② 주택자금이 있다. 영농정착자금은 타자금보다 10%이율이 낮으며, 주택자금은 타자금보다 40% 저리이다. 이 중 35세 이하의 농민은 융자금 상환 최초 5년간의 이자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다.

### 5) 편란드

1982년에 35세 이하 농민에 대한 자금 지원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목적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려는 청년 영농인이 당면하는 자금의 문제 해결에 있다. 지원 내용은 ① 일반 비용, ② 기계구입비용, ③ 건축비용, ④ 토지개량비용 등이다.

### 6)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영농경험을 갖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청년 농민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② 농업사제도 운영

농업교육 이수자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1) 벨기에, 프랑스, 편란드, 뉴질랜드의 사례는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Member Countries, 1980~1982, 1983 p. 104를 참고하였음.

선진국의 사례이다. 이들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농지 구입과 농업금융 지원 등에서 특별한 우대를 하고 있다.

각국의 농업사 명칭을 살펴보면 일본은 청년농업사, 지도농업사이며, 독일은 마이스터(Meister), 덴마크는 Green Educational Certificate, 프랑스는 BTA농업 diploma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① 농민의 사회적인 평가를 제고하고, ② 직업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③ 엘리트 농가를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하에 농업사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청년 농업사는 우수한 농촌 청소년에게 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 청소년의 신념을 고무시키고 자주적 농업 활동을 조장하게 한다. 농업지도사는 앞으로 농촌청소년을 육성지도할 사람에게 수여한다.

서독의 경우는 <그림 4-1>과 같이 농업경영자 양성, 농업기술자 양성, 농업전문인 양성과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각 라인

그림 4-1 서독의 마이스터 제도의 위치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기초학교	주요 학교	직업학교 주1회 등교 자택실습 위탁 실습 계회로 펜시 험	동계농업학교 월 1회 등교 자택경영 체험 마이스터 시험
기초학교	실 과 학 교	농가체험 (마이스 타 농가) 1년제 2년제 3년제	전문 학교
기초학교	김 나 지 움		대 학 고등교육기관

자료: 田鳥重雄, 「世界の 農業教育」, 筑波書房, 1985, p. 86.

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라인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농업 경영자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농업직업학교 (Landwirtschaftliche Berufsschule)는 기초학교와 주요학교를 졸업한 농촌 청소년으로서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취학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의 수업은 통산 주 1회 정도 학교에 나가서 받는다. 연간 40회 총 240시간으로 3년간 합하면 720시간이 수업시간이다. 교과는 보통과목이 50%이고 농업과목이 50%로 되어 있는데 농업과목은 실제적인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농업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에서의 실습을 하는데 그중 2년은 자기 집에서 농사에 종사하면서 지도를 받고 매일 보통의 일지와 작업일지를 기록한다. 3년째에는 마이스터 농가에 가서 견습하면서 일지와 작업일지를 계속 기록한다. 마이스터 농가 실습을 하는 동안에도 학교에 주1회 등교하여야 한다. 이 실습이 끝날 때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농업조수 (Gehilfen)로서의 자격과 칭호를 얻는다.

서독의 농업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마이스터 (Meister)이다. 마이스터 자격을 얻기 위하여 농업조수 (Gehilfen)의 자격을 얻은 뒤 6년간 농업조수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풍부히 하여야 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학교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최소한 1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公認農場에서의 실습을 하여야 하고, 마이스터 시험을 치기 전에 자신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이스터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경영성과가 우수할 경우 지역의 농업회의소의 추천에 따라 국가가 엄정한 심사를 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Lehrer의 칭호가 주어지는데 이들은 실습생을 맡아 지도할 자격을 갖게 된다.

덴마크의 Green Educational Certificate는 10개월의 기본 교육 참가, (Farmers School), 3년의 영농 경험 소유, 9개월의 농장 경영 과정 이

수자에게 부여하는데, 3ha이상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나 다른 농장에서의 영농 경험이 선결 조건이다.

## 2. 기존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

### 가. 기존 정착 청년 영농인의 자질 실태

현재의 기존 정착 청년 영농인들의 영농정착과정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긍정적인 요인 (즉 농장의 꿈, 돈을 벌고자, 농업이 좋아서, 농업의 장점 때문에, 농촌의 장점 때문에, 농업계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등) 보다는 부정적인 면(즉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와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도시 진출이나 타 산업 취업이 곤란하여, 몸이 아파서, 못배워서,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착청년영농인들이 충분한 자질(영농, 비영농)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기존의 영농 정착 청년 영농인들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농촌 청년 결혼 문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표 4-11〉은 연령별 농민의 지식과 기술의 충분 정도에 대한 의견을

표 4-11 연령별 농민의 지식과 기술의 충분 정도\*

단위: 명 (%)

연령계층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29세 이하	4(23.5)	10(58.8)	3(17.7)	0(0.0)	0(0.0)	17(100.0)
30~39	22(27.5)	37(46.3)	17(21.3)	2(2.5)	2(2.5)	80(100.0)
40~49	51(33.6)	69(45.4)	22(14.5)	9(5.9)	1(0.7)	152(100.0)
50~59	158(38.4)	207(50.2)	36(8.7)	9(2.2)	2(0.5)	412(100.0)
60~69	49(37.4)	59(45.0)	19(14.5)	4(3.1)	0(0.0)	131(100.0)
70세 이상	4(30.8)	6(46.2)	2(15.4)	1(7.7)	0(0.0)	13(100.0)
계	288(35.8)	388(48.2)	99(12.3)	25(3.1)	5(0.6)	805(100.0)

\* 무응답자 제외.

조사한 결과인데 연령에 관계없이 농민의 지식과 기술이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매우 부족과 부족을 합하였을 때 29세이하가 82.3%, 30~39세가 73.8%, 40~49세가 79.0%, 50~59세가 88.6%, 60~69세가 82.4%, 70세이상이 77.0%로 각각 나타났다.

더구나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업이 국제화되어 가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농민의 자질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표 4-12)와 기술(표 4-13)을 습득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정신자세(표 4-14)의 고취를 위하여 이런 분야에서 교육내용이 기존의 정착 청년 영농인들에게 실시되어야 하겠다.

표 4-12 국제화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지식\*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분비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세계적 농업지식	46	18.7
외국농업여건에 대한 지식	26	10.6
세계속의 우리나라의 농업의 나아갈 방향	12	4.9
전문적인 농업지식	46	18.7
새로운 농업지식	30	12.2
현실의 여건에 대한 지식	23	9.3
대체작물 등에 관한 지식	27	11.0
농업개방 등에 대한 지식	25	10.2
기타(농고수준 정도의)	11	4.5
계	246	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4-13 국제화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

단위: 명 (%)

항	목	빈도	백분비
우수농산물 생산기술		54	17.7
노후노동력 대응기술		4	1.3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 기술(과학영농기술)		40	13.1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기술		63	20.7
수입개방 대응작목 기술지원 미비		17	5.6
고소득 작목 기술 습득		33	10.8
선진기술,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		68	22.3
농기계기술		26	8.5
계		305	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4-14 국제화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정신자세\*

단위: 명 (%)

항	목	빈도	백분비
용기와 희망, 신념의 자세		24	8.5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		29	10.3
국제경쟁자세, 적응자세		72	25.6
여유, 주인의식, 자신감, 긍지		67	23.8
단결, 협동		22	7.8
인내, 노력		30	10.7
고급 농산물 생산하여야겠다는 자세		30	10.7
기타		7	2.5
계		281	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4-15〉는 청년 영농인들의 자질에 대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응답하게 한 결과인데 사회적응력, 도시적응력, 의욕, 자신감, 판단력, 기본소양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보통에 응답이 몰리고 있었다.

표 4-15 청년영농인의 자질<sup>1)</sup>

단위: 명 (%), 점

	낮 음	보 통	높 음	계	평균점수 <sup>2)</sup>
사회 적응력	208 (27. 1)	285 (37. 2)	274 (35. 7)	767 (100. 0)	2.09
기본소양 정도	152 (21. 0)	404 (55. 7)	169 (23. 3)	725 (100. 0)	2.02
판단력	197 (26. 5)	334 (45. 0)	212 (28. 5)	743 (100. 0)	2.04
자신감	210 (28. 6)	278 (37. 9)	246 (33. 5)	734 (100. 0)	2.05
의욕	242 (32. 8)	208 (28. 2)	288 (39. 0)	738 (100. 0)	2.06
도시적응력	188 (26. 2)	280 (39. 1)	249 (34. 7)	717 (100. 0)	2.09

1) 무응답자 제외.

2) 평균점 계산방법 낮음이 1점, 보통이 2점, 높음이 3점의 가산점 부여하여 평균

#### 나. 기존 정착 청년 영농인의 자질향상방안

우리 나라에서도 기존 정착 청년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일본의 경우 청년 영농인의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수산성 및 농업자 대학을 설치하여 전문 농업자를 양성하는데 2~3년간 집합 교육을시키고, 실습교육을 파견하여 시키고 있다. ② 농촌청년 강좌제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3년간 집합 연수를 시키고 자가학습도 병행한다. ③ 3주~1년간의 해외연수를 권장한다.

〈표 4-16〉은 우리 나라 농민들의 자질보충방법을 조사한 결과인데 ① 각종 교육, ② TV·라디오 교육, ③ 외국 농업 시찰, ④ 견학, ⑤ 농촌지도소의 역할 증대 등이 제시되었다. 또 〈표4-17〉은 청년영농인의 자질 보충방법을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① 사회교육, ② 견학, ③ 외국농업 시찰, ④ 외국농업에 대한 방송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사례와 우리 나라 농민들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청년영농인의 자질향상방안을 제시한다.

표 4-16 청년 영농인의 부족사항 보충방법 \*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분비
사회교육 및 농민교육강화	71	18.5
도시견학강화(선진사회 견학확대)	16	4.2
외국농업 현지견학확대(외국실정 언론보도)	10	2.6
영농의욕 고취 강화	89	23.2
중농정책, 정책적 배려 강화	175	45.7
정신함양, 애향심 고취	10	2.6
더 많은 접촉기회 제공	8	2.1
건전여가, 오락 보급	3	0.8
기타(서적 보급)	1	0.3
계	383	100.0

\* 무응답자 제외.

표 4-17 농민의 자질 보충방법 \*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백분비
자질이 부족하지 않음	13	3.8
교육(전문가 교육, 기술교육, 실제적 교육)	126	37.0
기술습득 지원	56	16.4
견학	16	4.7
TV, 라디오 교육	27	7.9
외국농업시찰	37	10.9
농촌지도소의 역할 증대	35	10.3
우수인력 보충	29	8.5
기타(서적 보급 등)	2	0.6
계	341	100.0

\* 무응답자 제외.

#### ① 농업계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농업계 각급학교의 졸업생중 영농정착자에 대한 추수지도가 강화되어야 겠다. 농업계 각급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후 영농에 정착하고서도 완전하게 자립하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농업계 학교는 졸업생들에 대한 추수지도를 통하여 이들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겠다.

#### ② 국내외 장단기 연수 및 견학기회 증대

영농후계자 외국연수를 시켜야 한다. 몇 개월씩 외국에 내보내 외국 어도 잘 말할 수 있게 하여야 겠다. 그러자면, 기존 전업농육성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후계자 선발과 연계하여 후계자 교육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겠다.

#### ③ 기존 농민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선

청년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과정(예:농촌지도자 중앙회, 농업기술자협회, 각종 생산자단체의 교육 등)에서 강조가 되어야 겠다. <표 4-18>과 같이 겨울 영농교육이 많은 등 농촌지도사업이 대농민 교육을시키고 있으나 <표 4-19>와 같은 문제도 있어 청년영농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겠다.

#### ④ 비정규 교육과정 개설

농업계 학교에 비정규적으로(계절별 혹은 단기간으로) 청년 영농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겠다. 그 한 방안으로서 정규 대학이 아닌 청년 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대학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⑤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농촌의 젊은 청년인들이 영농정착후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 시장 경제화,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방화되는 사회속에서 가치상실과 소외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새로운 산업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술경제교육과 함께 문화, 역사, 정치 등에 관한 교육강좌들이 개설 운영되도록 하여야겠다.

표 4-18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항 목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지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까지 미곡증산지도에 치우쳤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농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도가 되어야</li> </ul>
지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장비의 부족(교육 기자재와 장비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지도장비의 보완</li> </ul>
지 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사의 질적저하(대출자 특히 농대출업자 비율 저하)</li> <li>○ 업무량이 과다</li> <li>○ 보수조건이 나쁨</li> <li>○ 사기저하</li> <li>○ 전문특기분야의 전문지도 사로 육성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능력의 지도사를 확보하여 높은 사기 유지하여야 함</li> <li>○ 연구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지도사가 되어야 함</li> </ul>
지역농업 관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부터 본소로 통합후 1개군 지도소에 평균 5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며 역할 미정립</li> <li>○ 지역농업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 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시험연구기능 강화</li> </ul>

표 4-19 겨울 영농교육 인원의 변화

연 도	종합반(식량작물반)	전문반(소득작목반)	생활개선반	계
1981	1,730천명	294천명	-	2,024천명
1982	1,651천명	238천명	-	1,889천명
1983	1,779천명	997천명	-	2,776천명
1984	1,563천명	914천명	81천명	2,558천명
1985	1,577천명	1,007천명	202천명	2,786천명
1986	1,457천명	967천명	209천명	2,633천명
1987	1,137천명	1,221천명	197천명	2,555천명
1988	998천명	1,227천명	207천명	2,432천명
1989	988천명	333천명	159천명	1,480천명
1990	880천명	279천명	147천명	1,306천명

자료: 농촌진흥청.

## 제 5 장

### 요약 및 정책 전의

#### 1. 요 약

① 영농자질이 뛰어나고 의욕이 있는 젊은 영농인을 신규로 더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영농정책에 반영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② 젊고 교육받은 농업인력의 이농이 증가하나 새로운 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노령화되고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만이 남아있어 국제화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이 곤란하므로 소수 정예화된 농업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③ 정예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가지 단계의 정예 농업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농가단위에서의 후계자 확보단계이고, 제2단계는 농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단계이며, 제3단계는 영농정착자에 대한 정착지원단계이며, 제4단계는 영농정착자의 자질향상단계이다.

④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과정에서 가정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우리 나라의 농업소득의 저위와 농업노동의 힘 듬 등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농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거나 자녀의사에 맡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청년인들의 영농정착 의욕 유발과 이에 대한 부모들의 반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⑤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상당한 농업소득을 올리는 유망한 농가의 자녀중 1명을 영농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하여 우선 이들 조건에 맞는 농가부모들의 긍정적인 농업관 보유, 농가부모들의 영농에의 성공, 자녀의 영농동기유도, 적극적인 영농권유, 적절한 영농 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영농으로 유도하여야겠다.

⑥ 농업계 각급학교의 취농실태가 매우 낮아(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23.6%, 취업자의 29.0%만이 농림어업 취업자가 되었다),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전체 각급학교 졸업자중 신규 농림어업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전체 농림어업취업자중에서 농업계학교출신이 낮은 편이다.

⑦ 농업계 고교가 영농인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0년 2월 졸업생의 경우 불과 1,670명만이 영농에 정착하여 전체 졸업생의 9.49%뿐이다. 반면 동일계 취업은 21.28%이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취업하거나 미취업 상태이다.

⑧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점차 위축되어 1982년 이후 연평균 6.7%씩 학생수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74%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39.5명이며, 학교규모도 순수농고는 724명, 비순수농고는 267명이며, 여학생은 13.1%이다.

⑨ 농업계 고교는 12개의 전공학과로 너무 세분되어 있는데 교육 목적이 같은 영농인 양성에 있는 농업과, 원예과, 임업과, 자영농과, 잡업과, 축산과 등의 과로 세분되어 있다.

⑩ 농업계 고교의 입학 지원자가 정원에 비해 낮으며, 입학자는 정원에 비해 미달되며, 농고 입학 동기가 부정적이며, 중학교 때의 성적이 낮은,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등 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업

교육에 적격한 자가 입학을 적게하고 있다.

[11]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농고재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열등감이 강하며, 부정적인 농업관을 갖고 있으며, 기초학력이 낮으며, 중도탈락자가 많은 편이다.

[12] 농업고교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어렵고, 흥미가 없거나, 이론적이고,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며, 학교농장 실습시설은 충분하나 학생들의 교육목적보다는 학교의 재정수입 목적이 크다.

[13] 농업계 고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농업계 고교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거나 일부 군에 농고가 없어 지역의 농업센터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농업내용이 학교교육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4] 정부에서도 농업계 고교에 대하여 ① 자영농고, 자영농과 설치 지원, ② 자립농고 육성, ③ 농업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영농과제 자금 지원, ④ 추천입학제도 실시, ⑤ 영농학생회 조직 운영, ⑥ 농업계 과에 공업계과 설치, ⑦ 농업계 학과의 전과 등의 시책을 펼쳤으나 결국 농업계학교가 종합고교로 되는 등 영농인 양성기능은 약해지고 있다.

[15] 농업계 고교의 영농인 양성 미흡에 비추어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전체적으로 농업교사의 71%가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편의 방향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줄이고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16] 농업계 고교를 소수의 정예 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 개편함을 제시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농업계 고교를 소수 정예화시켜 영농인 양성만을 전담하고 농업관련직 요원 양성 기능은 포기하는 방안으로 변화함을 제시하였다.

[17] 개편되는 농업교육의 목적은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자 양성으로만 하고, 현재의 순수농고를 자영농고 체제로 개편 유지하여 농업에 흥미가 높고, 영농 종사의욕이 강하고, 영농기반이 충분하거나 농지 등 영

농기반을 확보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로서,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통해서 선발한다. 재학생에 대하여 영농인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자영농과 생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하고, 영농정착시 우선적인 지원을 한다.

⑯ 농고가 지역농업 시험 연구기능을 갖추어 지역의 농업문제 해결에 나서야겠다. 농고가 소수정예 영농인력을 양성만 하면서 남는 교원인력은 산학협동을 통한 농촌지도요원들과 지역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수행케 하여 지역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게 한다.

⑰ 농고의 개편에 따라 농고교사들이 학생지도의 부담도 덜고, 지역농업 시험 연구사업을 펼쳐 나온 연구결과를 UR협상 등에 따라 재교육이 필요한 농민들을 위한 비정규형태의 교육인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겠다.

⑱ 농고의 개편에 따른 영농후계자 양성, 지역농업시험연구, 대농민교육 등을 충분히 잘 수행하기 위하여 농고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결정하여야만 정예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국가정책상의 큰 결단으로 이룩될 수 있으리라 본다.

㉙ 농업계 고교 관리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농림수산부나 농촌진흥청의 농고교육에 대한 관여가 증대되어야 하며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농업계교사들의 지식 및 기술연수 등을 농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겠다.

㉚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과대 졸업생에 대한 영농정착 유인방안이 모색되어야겠고, 지방의 농대나 농업전문대학이 지역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㉛ 외국의 농업교육제도를 검토하여 보면 농림성에서 직·간접으로 농업교육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업종사인력과 비농업분야 종사

인력을 분리하여 양성하고, 영농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비정규적으로 운영되며, 영농인 양성 학교의 입학조건으로 영농경험을 요구하며, 농업교육 이수자에게 농업사자격증을 주며, 농업교육 이수자에게 특별 혜택을 주며, 어려서부터 농업, 비농업분야로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며, 영농실습 위주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㉔ 4-H활동을 통하여 후계영농인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영농 4-H회 활동이 강화되어야 겠고, 4-H회원에 대한 과제 활동이 강화되고, 4-H 회원을 더 많이 영농인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다.

㉕ 농어민 후계자 사업은 그 성과가 분명히 있고,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규 취농 인력에 대한 지원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반면 소수정예의 인원을 대상으로 내실화를 꾀하여야 겠다.

㉖ 농어민 후계자 사업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예비후계자를 정착자금 지급 2년전에 선발하되, 농촌진흥청내에 정예농민 양성사관학교(가칭)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주체가 되어 1년간은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1년간 해외연수시킨 다음, 그 중에서 영농으로 성공정착이 가능한 자에게만 정착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겠다. 또 이것은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 농산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 개발수입을 위해 현지 생산요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㉗ 그 밖에 영농정착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영농정착 확실자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검토, 농업사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예농민의 객관적 증명과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 이들의 사기양양을 꾀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 적정 농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영농정착후 자립하기까지의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겠다.

㉘ 일본, 프랑스, 서독, 벨기에, 핀란드,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습득자금, 연수교육자금, 부분경영 개시자금이 있으며, 프랑스는 기초정착자금, 농지구입자

금, 건물·기계·농장 정비자금이 있으며, 일반 평야지역보다 산악지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며, 서독은 2년전에 후계자를 선발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시킨뒤 자금을 지원하고, 벨기에에는 영농 정착자금과 주택자금으로 지급하고, 핀란드는 기계구입비용, 건축비용, 토지개량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다.

▣ 외국은 농업교육 이수자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이들 자격증 소유자에게는 농지 구입과 농업금융 지원 등에서 특별 우대를 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데 자격증 제도의 목적이 있다. 일본의 청년농업사, 지도농업사, 독일의 마이스터, 덴마크의 Green Certificate, 프랑스의 BTA, 덴마크의 Master Farmer가 그것이다.

▣ 기존 정착 청년인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한 원인이 되므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UR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 기술, 정신 자세 등에서의 보충교육도 필요하다.

▣ 기존 정착 청년 영농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리 나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는 농업계 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국내외 장단기 연수 및 견학 기회의 증대, 기존 농민 교육기관의 청년영농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의 개설 운영, 각종 농촌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 2. 정책 견의

① 미래의 정예 농민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분야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증대하여야 겠다.

② 농업소득의 저하와 농업노동이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이유로 농가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농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 위해 고된 노동력 대체를 위한 기계개발지원과 농로개설 등 농업노동환경의 정비가 촉구된다. 또한 농업이 힘들이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계획생산이나 가격지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농업의 쇠퇴화인식, 농민에 대한 천대 및 농산물생산과 소비식품 자급에 대한 무관심이 농어업종사자의 긍지를 해치고 있으며 농어업후계인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긍정적인 농업관과 식품조달 및 자급생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어민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④ 농업계 고교 졸업생의 영농정책이 극히 낮은 바 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농고의 취농률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야 겠다.

⑤ 농고에 공업과를 설치하는 등 순수농고를 종합고교나 실업고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현재의 순수 농고를 현재의 숫자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며, 자영농 양성기능만으로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정예 영농인 양성소로 변화시킬 것을 검토하여야 겠다.

⑥ 농고가 농촌지도소와 통합 혹은 산학협동방식으로 지역농업시험 연구 기능을 갖게 하고 지역농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겠다.

⑦ 농고의 농림수산부로의 이관을 통한 획기적인 영농 후계세대 육성, 대농민 기술지도, 지역농업 시험연구가 가능하도록 교육법을 개정 할 것을 검토하여야 겠다.

⑧ 만약 농고가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부나 농촌진흥청이 농고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

⑨ 지방의 농대나 농전이 지역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겠다.

⑩ 4-H사업은 영농인 양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겠다.

⑪ 농어민 후계자 사업은 계속 추진하며 내실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

⑫ 서독과 같이 영농자금 지급전 2년전에 예비후계자를 선정 국·내 외 교육을 이수시켜 성공에 확신이 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겠다.

⑬ 농촌진흥청 산하에 예비 농어민후계자 교육을 전담할 가칭 정예 농민 양성사관학교를 신설한다.

⑭ 정예농민으로서 양성된 자에게는 객관적인 증명으로서 농업사자격증 제도를 도입 검토하여 이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명예를 부여 할 것을 검토하여야 겠다.

⑮ UR협상 등의 진전에 따라 필요하고, 농업구조 개선의 과정에서 도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인력에 대한 재충전 교육기회를 좀 더 충실히 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수립 운영하여야 겠다.

부표 1 농림·수산분야 학교 학생수의 변화

연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합계	농림학계	해양수산학계	합계	농림학계	해양수	총계	농림학계	해양수산학계	합계	농림학계	해양수산학계
1965	426,531	42,853	3,162	23,159	3,102	1,038	105,643	8,636	1,194	3,842	139	19
1966	434,820	41,859	2,945	27,609	4,057	1,574	131,354	9,051	1,277	4,700	165	22
1967	441,946	39,951	2,912	30,854	4,533	2,059	124,029	9,449	1,232	4,880	144	21
1968	481,494	38,409	3,463	30,987	5,059	2,437	123,659	10,038	1,471	5,492	172	23
1969	530,101	41,720	3,850	33,193	5,419	2,761	132,930	10,432	1,412	6,155	200	38
1970	590,382	41,178	3,961	33,353	5,816	2,719	146,414	10,618	1,975	6,640	248	42
1971	647,180	39,788	4,230	37,209	5,968	3,009	155,369	10,689	2,146	7,300	267	43
1972	729,783	40,068	4,540	41,825	6,276	3,337	163,932	11,545	2,213	8,681	340	53
1973	839,318	35,236	5,457	48,028	6,331	3,519	178,050	12,070	2,267	10,236	413	50
1974	981,209	38,748	6,599	56,740	6,434	4,203	192,308	10,855	2,185	12,289	497	51
1975	1,123,017	42,011	7,849	62,866	6,556	5,635	208,986	12,197	2,453	13,870	548	47
1976	1,253,676	42,405	8,618	72,297	7,054	4,788	299,811	14,889	2,703	15,290	602	81
1977	1,350,600	47,428	9,087	90,526	7,306	13,042	251,329	16,176	3,024	17,220	719	91
1978	1,454,376	48,968	9,582	114,948	7,437	4,434	277,783	18,209	3,172	19,150	712	90
1979	1,565,355	50,340	9,904	142,624	8,053	3,753	330,345	21,045	3,810	25,789	957	136
1980	1,696,792	53,678	7,096	165,051	7,159	4,577	403,989	23,307	3,532	33,939	1,248	217
1981	1,823,039	55,105	10,294	199,705	10,157	5,096	535,876	27,227	3,684	44,731	1,527	215
1982	1,922,221	56,028	10,413	218,210	9,738	5,695	661,125	33,495	4,289	54,208	1,724	222
1983	2,013,043	55,952	10,308	218,213	10,667	5,783	772,907	40,977	5,598	60,282	2,046	278
1984	2,092,401	55,121	10,326	230,354	10,872	5,395	870,170	38,597	6,024	62,862	2,017	305
1985	2,152,802	51,842	10,030	242,117	N.A.	N.A.	931,884	N.A.	N.A.	68,178	N.A.	N.A.
1986	2,262,397	49,271	10,056	250,652	N.A.	N.A.	971,127	N.A.	N.A.	69,962	N.A.	N.A.
1987	2,237,624	48,034	10,054	259,898	N.A.	N.A.	989,503	N.A.	N.A.	70,364	N.A.	N.A.
1988	2,300,582	55,338	11,005	266,844	N.A.	N.A.	1,003,648	N.A.	N.A.	75,117	N.A.	N.A.
1989	2,326,052	53,446	10,754	291,041	N.A.	N.A.	1,020,771	N.A.	N.A.	81,171	N.A.	N.A.
1990	2,283,806	49,586	10,095	323,825	N.A.	N.A.	1,040,166	N.A.	N.A.	86,911	N.A.	N.A.

1) 1985년 이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계열 변경으로 농림학계 구분 근한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부표 2 각급학교 졸업자의 산업으로서의 농림수산업 취업현황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1965	115,776	28,869	9,230	6,180	3,452	137	36,180	12,564	917	893	657	5
1966	129,301	28,540	9,200	5,933	3,456	154	26,166	10,084	503	1,028	1,091	23
1967	136,090	31,393	9,558	7,796	2,483	128	22,338	10,123	605	1,221	1,113	23
1968	137,490	29,618	5,056	8,354	3,613	184	26,974	13,938	381	1,118	1,275	25
1969	136,660	35,580	5,094	7,445	3,790	331	22,684	12,659	440	1,822	1,461	20
1970	145,062	39,963	5,410	7,838	4,323	470	23,515	13,743	327	2,150	2,023	25
1971	173,872	48,986	6,514	6,784	3,858	370	27,168	14,448	839	2,020	1,866	53
1972	183,508	45,306	5,972	7,905	4,003	436	29,544	15,078	447	2,263	1,936	30
1973	205,587	54,322	6,938	9,460	4,459	608	28,775	16,139	587	2,463	2,067	25
1974	234,876	67,727	8,391	11,483	5,526	654	30,153	17,227	593	2,940	2,310	47
1975	263,369	76,805	9,385	14,106	6,375	687	33,610	19,635	658	3,466	2,591	74
1976	310,119	90,548	10,451	18,876	8,612	828	34,725	21,299	495	4,174	3,421	56
1977	367,281	108,008	10,935	22,948	10,106	1,159	37,374	22,807	462	4,721	3,798	92
1978	400,421	125,314	12,235	30,902	12,296	1,044	41,680	32,057	629	4,970	4,517	91
1979	439,848	142,548	11,658	39,630	16,733	1,147	45,424	29,378	347	3,857	3,118	54
1980	467,388	128,103	10,210	51,507	17,836	804	49,735	28,349	434	5,552	4,042	61
1981	496,836	123,947	10,125	59,128	16,658	493	55,846	28,524	613	7,940	5,503	55
1982	545,598	129,040	10,047	61,280	18,619	799	62,688	33,988	574	10,168	7,843	100
1983	579,123	134,841	11,799	77,044	27,219	1,192	77,272	38,489	671	13,214	9,721	107
1984	614,062	158,711	14,321	69,339	27,769	668	90,888	43,907	822	15,960	11,789	136
1985	642,354	107,221	4,576	73,927	29,556	798	118,584	48,552	1,036	18,307	13,479	234
1986	667,779	186,250	12,688	75,572	30,669	951	137,848	51,667	900	18,701	13,830	159
1987	683,420	205,427	13,047	82,657	33,862	885	149,582	60,718	1,290	20,669	14,760	279
1988	685,909	225,334	12,289	83,240	38,094	959	161,983	70,732	894	21,019	14,282	229
1989	709,889	239,200	10,955	85,129	41,316	854	166,845	76,594	1,419	21,292	14,412	210
1990	761,922	257,905	10,327	87,131	47,094	1,048	165,916	79,975	1,019	22,269	15,477	197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부표 3 각급학교 졸업자의 직업으로서의 농림어업직 취업실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졸업자	취업자 계	농·림 수산업
1965	115,776	28,869	7,590	6,180	3,452	88	36,180	12,564	560	893	657	5
1966	129,301	28,540	10,217	5,933	3,456	127	26,166	10,084	275	1,028	1,091	5
1967	136,090	31,393	8,316	7,796	2,483	166	22,338	10,123	387	1,221	1,113	15
1968	137,490	29,618	5,342	8,354	3,613	151	26,974	13,938	265	1,188	1,275	6
1969	136,660	35,580	4,924	7,445	3,790	327	22,684	12,659	467	1,822	1,461	22
1970	145,062	39,963	4,955	7,838	4,323	430	23,515	13,743	283	2,150	2,023	25
1971	173,872	48,986	5,675	6,784	3,858	234	27,168	14,448	552	2,020	1,866	42
1972	183,508	45,306	5,410	7,905	4,003	386	29,544	15,078	326	2,263	1,936	28
1973	205,587	54,322	6,397	9,460	4,459	554	28,775	16,139	390	2,463	2,067	20
1974	234,876	67,727	7,018	11,483	5,526	367	30,153	17,227	374	2,940	2,310	35
1975	263,369	76,805	8,720	14,106	6,375	140	33,610	19,635	260	3,466	2,951	22
1976	310,119	90,498	10,516	18,876	8,612	699	34,725	21,299	366	4,174	3,421	49
1977	367,281	108,008	10,628	22,948	10,106	834	37,374	22,087	285	4,721	3,798	3
1978	400,421	125,314	13,023	30,902	12,296	623	41,680	32,057	498	4,970	4,157	59
1979	439,848	142,548	10,682	39,630	16,733	820	45,424	29,378	402	3,857	3,118	22
1980	467,388	128,103	9,341	51,507	17,836	688	49,735	28,349	242	5,552	4,042	34
1981	496,836	123,947	9,474	59,128	16,658	486	55,846	28,524	299	7,940	5,503	62
1982	545,598	129,040	9,810	61,280	18,619	466	62,688	33,988	416	10,168	7,848	78
1983	579,123	134,841	11,393	77,044	27,219	726	77,272	38,489	590	13,214	9,721	56
1984	614,062	158,711	13,290	69,339	27,769	500	90,888	43,907	740	15,960	11,789	41
1985	642,354	170,404	13,368	73,927	29,556	797	118,584	48,552	895	18,037	13,479	180
1986	667,779	186,250	11,817	75,572	30,669	820	137,848	51,667	680	18,701	13,830	108
1987	683,420	205,427	11,743	82,657	33,862	658	149,582	60,718	953	20,669	14,760	133
1988	685,909	225,334	10,982	83,240	38,094	629	161,983	70,732	847	21,019	14,282	170
1989	709,889	239,200	11,279	85,129	41,316	672	166,845	76,594	1,002	21,292	14,412	145
1990	761,922	257,905	9,805	87,131	47,094	762	165,916	79,975	810	22,269	15,477	138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연도.

## 參 考 文 獻

-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구상: 경제구조조정자  
문회의 보고서」, 1988.
- 경제기획원, 「산업인력 수급대책(안)」, 경제교육 종합교재, 1990.
- \_\_\_\_\_,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결과보고」, 1987.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7.
- \_\_\_\_\_,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각연도.
- 곽기상·송해균,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  
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1985. pp. 1-8.
- 국제식량농업기구, “농업의 생산성과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 「국제  
식량농업」, 제28권 제12호, 1986. 12. pp. 12-17.
- 김광진,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자립영농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 김민남·최익수, “농민의 의식구조변화,”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1982.
- 김민남·이성규, “농민의 의식구조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경  
제」, 제6권 제1호, 1983. pp. 123-136.
- 김병호, “농업계 고등학교 연구생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  
남도 실과연구생을 중심으로,” 「실과교사 현장연구보고서」,  
1986.
- 김성수, “한국농촌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  
지」, 제17권 제1호, 1985, pp. 15-23.
-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노동」, 二友출판사, 1985.

- 김수곤 외, 「복지사회의 인력정책과 직업안정」, 한국개발연구원, 1981.
- 김영봉 외,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4.
- 김영식, "농가인구 노동력 이농모형," 「농업경제연구」 25, 1984. pp. 57-68.
- 김운근 외 2인,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03, 1985.
- 김원기, "농고 여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사례연구," 삼척 원덕종고, 1983.
- 김주숙,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1982. pp. 34-49.
- 김한구, "농촌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 나승일 · 이무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1987. 6.
- 노창섭 외, 「개발과정에 있는 농촌사회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65.
-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1970, 1980.
- \_\_\_\_\_, 「간이농업센서스」, 1975, 1985.
- \_\_\_\_\_, 「농어민 후계자 및 사업계획」, 1985.
- 농림수산부,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각연도.
- \_\_\_\_\_, 「농림수산주요통계」, 1988.
- 농협중앙회, "한국농민의 의식구조분석," 「농협조사월보」, 1978. 3.
- 다지마 시게오, "농업후계자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 문교부, 「한국교육 40년사」, 1988.
- \_\_\_\_\_, 「문교통계년보」, 각연도.
- \_\_\_\_\_, "농업고등학교 학교별 현황," 각연도.

- 문병만 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의 운영개선방안”, 「새 마을운동 연구논총」, 제14집, 1978, pp. 266-301.
- 박금수, “농업계 고등학교 농장실습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박진환, “산업사회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세미나 보고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1981.
- 박평식, “농가의 교육투자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박효근 외,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과계열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987.
- 손삼곤 · 박종귀, “겨울철 농민교육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1985. pp. 39-42.
- 송대희 · 유병서, 「산업고도화에 따른 농업구조의 개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5.
- 송해균 외 6인,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1987.
- \_\_\_\_\_ 외, “농업계대학 현장실습 개선방안(1974년도 종합평가보고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6권 제1호, 1974.
- \_\_\_\_\_ 외, 「2000년대 농업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 1989.
- \_\_\_\_\_, “농업고등학교 자립체제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1988. pp. 1-10.
- \_\_\_\_\_, “2000년대를 향한 농업교육의 좌표,” 「한국농업교육협회지」, 제19호.
- \_\_\_\_\_ 외, “농업계 학교를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세미나 보고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1981.
- \_\_\_\_\_ 외, 「농업교육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양복승,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영농후계자로서 육성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1980. pp. 51-55.
- 왕인근, “산업사회진입과 발전적 농촌지도과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1988. pp. 45-54.
- 이근수, “농촌여성노동력의 잠재력과 활용방법,”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1980. pp. 50-60
- \_\_\_\_\_, “노동력 이동과 농촌여성의 도시출가,” 「농촌문제」, 제2집,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1976. 12. pp. 1-36.
- 이동원, “농어촌 2세대의 거주지역, 교육 및 직업에 관한 태도 연구,” 「논총」,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제31호, 1977. pp. 167-193
- 이만갑,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총서 제5집, 1960.
- 이만우, 「농업계학교 출신 영농정착 성공사례집」, 충북대 새마을 연구소, 1975.
- 이무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에 관한 연구」, 1985.
- \_\_\_\_\_,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적 · 교육적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1977.
- \_\_\_\_\_, 외, “농촌청소년의 의식동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학 연구」, 제4권 제1호, 1979, pp. 153-167
- 21세기 농정기획반,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경제의 갈등과 새 도전」, 21세기 농정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이양수 · 김재기, “농업고등학교 농장실습 및 현장실습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7권 2호, 1985.
- 이영대, “농림어업 취업자의 직전교육수준과 내용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1988.
- \_\_\_\_\_. “농업교사의 사기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5권 제1호, 1983년 6월
- 이영대 · 정명채, “농가유형별 노후준비실태분석,” 「농촌경제」 제11권

- 제2호, 1988. 6. pp. 67-78.
- \_\_\_\_\_, “농민의 변화와 그들의 농업 및 농촌관,”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 「연암문화」, 1984. pp. 103-115.
- \_\_\_\_\_,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영석, 「상업농 시대의 농촌지도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이용환, “농업교사의 교직발전에 관한 연구,” 「농학연구」, 서울대학교, 제12권 제1호, 1987.
- \_\_\_\_\_, “농업계학교 농업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농업학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1987. 12.
- \_\_\_\_\_, “농업고등학생의 진로결정요인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1979.
- 이용환 · 이수길, “학교농장실습교육의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3권 1호, 1981.
- 이용환, “자립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I),”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 1975.
- \_\_\_\_\_, “자립농고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1985.
- 이정환 외 4인, 「농업부문 장기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이중웅 외 2인,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위한 작목별 표준영농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 이질현 외, “농고생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새마을 운동연구총집」, 제10집 제1권, 1981, pp. 91-126.
- 전승규, “농촌여성의 가사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6. pp. 23-33.
- 정명채 · 이영대, 「농어민 연금제도의 연구」, 연구보고 1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 정성봉,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1987. 12.
- \_\_\_\_\_. 송해균, “농업계고등학교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1987. 6.
- \_\_\_\_\_.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조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1985.
- \_\_\_\_\_.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취업현황과 전망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2권 제4호, 1990.
- 정지웅 · 유귀옥, “한국농가주부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새마을 운동종합연구」, 제5권 제1호, 1985, 서울대학교 새마을 운동종합연구소, pp. 37-51.
- 조완규 외, “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학생의 진로결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1984.
- 지준섭 · 김성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민의 요구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1988. pp. 55-65.
- 최민호 외, “농촌 청소년 선도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과대학, 1978.
- \_\_\_\_\_. “농촌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I),”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권 제1호, 1970.
- \_\_\_\_\_. 김성수, “농촌청소년의 가치관조사연구(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4권 제1호, 1972.
- \_\_\_\_\_. 외 4인, “농촌청소년 선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2권 1호, 1980. pp. 1-8.
- 최양부 외 2인,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연구보고 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 최은숙 · 이애순, “농촌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 생활시간대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3권 제1호, 1981. pp. 12-2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교육과학사, 197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 행정조직 개편방안」, 1988.
- 함종한·정지웅, “농촌현장 실습부락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전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6권 1호, 1974.
- 홍성찬, “구역말지역의 농업종합개발계획,”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제7권 제4호, 1982.
- 홍종운, 박종열, “영농후계자 육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 연구논총」, 제17집 4권, 1982. pp. 243-264.
- Hong, K. Y., “An Estimated Economic Contribution of Schooling and Extension in Korean Agricultur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hillipines, 1974.
- Jamison, Deam T. and Lawrence J. Lau, *Farmer Education and Farm Efficien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 Lee, Jil Hyun, “Farmers Education and Resource Productivity in the Korea Agriculture,” 「농업경제연구」, 제19집, 1967. pp. 89-112.
- Lee, Mu Keun,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Expectations of Students in the Agricultural High Schools in Korea,” Unpublished Ph. D Thesis, Univ. of Illinois. 1977.

## 연구보고 229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책은날	1990. 12.	펴낸날	1990. 12.
발행인	허신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록	제5-10호(1979. 5. 25)		
책은곳	(주)문원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